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

Exploring the Life Experiences of Korean-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
A Narrative Inquiry Research on Recognition
Struggle

2018년 0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황 해 영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

Exploring the Life Experiences of Korean-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
A Narrative Inquiry Research on Recognition
Struggle

The seal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blue and white design, possibly representing a building or a symbol. The shield is surrounded by a ring containing the university's name in Korean characters (인하대학교) at the top and 'INHA UNIVERSITY' at the bottom. The year '1954' is also visible within the seal.

2018년 02월

공동 지도교수 배 을 규

공동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황해영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8년 02월

주심 _____ 정 상 우 _____ ①

부심 _____ 배 을 규 _____ ①

위원 _____ 김 영 순 _____ ①

위원 _____ 손 영 화 _____ ①

위원 _____ 최 현 식 _____ 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속 인정투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한 인정의 부재, 인정의 획득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고자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그들의 시각에서 결혼생활에서의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거주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그들의 이주배경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정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Honneth의 인정이론을 기초로 이주민 사회의 인정투쟁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주민들은 주류사회가 유포하는 문화적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인정의 부재 및 왜곡된 인정을 경험하면서 인정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모습들을 생활전반에 걸쳐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위양상들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는 인정투쟁의 유형을 Honneth의 사랑, 권리, 연대라는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절차, 연구참여자,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서술하였다. 연구절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속 인정투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연구현장에 존재하기’, ‘연구현장에서 현장자료로 이동하기’, ‘현장자료 구성하기’, ‘현장자료에서 연구자료로 이동하기’, ‘연구자료 구성하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5명으로, 모두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이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심층면담이었으며, 수집된 현장자료에는 녹취한 면담의 전사 자료, 현장 기록 노트, 연구일지, 연구참여자와 주고받은 SNS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분석은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삼차원 공간적 특징을 살려 전체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현장자료를 분석하는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연구의 목적인 인정투쟁 경험을 찾기 위하여 인정윤리의 세 가지 유형을 참고로 하여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이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중요 경험들을 아우르는 영역을 찾고 영역에 따른 하위 주제를 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분석 결과는 인정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시간성과 상호작용의 관계성에 입각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였으며, 그들의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4장에서는 결혼을 모멘트로 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경험 이야기 속에서, 결혼을 전후로 그들이 겪은 이주와 결혼 등 다양한 전환 경험에 의해 변화하는 인정획득의 모습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의미 있는 결혼생활 속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인정획득을 위한 경험의 양상을 분석한 후, 이러한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사랑의 차원과 권리의 차원, 연대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탐색한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첫째, 사랑의 차원에서 친밀성 영역인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부딪치는 한국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획득을 위한 대처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가정에서는 남편과의 연애결혼을 남편의 인정을 받음으로 인식하여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시가족의 다양한 인정형태에 따라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인정획득으로 시대 앞에서 당당해지는 경우도 있고,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홀로서기로 대처하는 경우

도 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타자성을 감춘 채 인격적인 인정 획득을 우선시하고 있었으며, 직장에서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당당히 밝히며 인정획득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권리의 차원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그들의 인정투쟁 양상을 알아보았다.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은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으로 인정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주권만 갖고 있는 연구참여자들도 국민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한국사람과 평등한 수준의 권리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일부는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적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구직을 위한 준비활동 및 다양한 구직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권리확장을 위한 인정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취업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의 경계들을 실감하게 되고,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별에 대응하여 연대를 통한 단합된 움직임이나 권리주장이 아닌, 개별적인 역량강화 형태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같은 듯 다른 문화의 차이를 체감하면서도 적극적인 동화형태로 문화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과의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실감하지만 유연하게 정체성을 협상해나가고 있었다.

셋째, 연대의 차원에서는 생활공동체 연대와 초국적 네트워크 영역을 통하여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생활공동체 연대로는 국내에서 자국 자조모임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국적 결혼이주여성들과도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생활공동체 연대를 통하여 국내 결혼이주성과의 관계망을 확장해나가고 언어적 우세로 우월감을 재확인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문화적 동질감으

로 인하여 자국문화의 다양성을 인정받으려는 사회적 투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상호인정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다. 세계질서 영역에서는 가족과 친인척, 동문회 형식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SNS 등을 이용하여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속의 ‘조선족’이라는 글로벌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미디어 속 소통공간을 통하여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고 정체성의 지평을 확장시킴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 나가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화·지리적 경계인의 위치에 놓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많은 담론과는 달리, 그들은 유연한 정체성을 활용하여 적극적 행위 주체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다각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형성된 긍정적 자기관계와 형성과 주체성 향상에 의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인과의 문화적·언어적 동질감이나 연대를 통한 자신들의 문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정 요구보다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한국인 지향적인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춘 사회통합 정책보다는, 생애 주기별 특성에 알맞은 상담, 취업교육, 평생교육, 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적 지지, 그리고 다수의 내국인을 위한 차별, 편견 방지 시민교육, 인권교육 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해는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적 교육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v
표 목 차	v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및 내용	5
3. 관련 연구 동향	7
II. 이론적 논의	13
1.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13
1.1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13
1.2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관련 지원정책	21
2. 정체성과 인정투쟁	26
2.1 정체성	26
2.2 인정의 윤리	29
2.3 인정투쟁	32
3. 소결	42
III. 연구방법	44
1. 연구개요	44
1.1 내러티브 탐구절차	44
1.2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	48
1.3 연구참여자	55
2. 자료수집 및 분석	64

2.1. 자료수집	64
2.2. 자료분석 및 글쓰기	68
3.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72
IV.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75
1. 연구참여자 A: ‘배려와 인내’	75
1.1. 결혼 이전기	76
1.2. 결혼 이후기	78
2. 연구참여자 B: ‘순종과 헌신’	81
2.1. 결혼 이전기	81
2.2. 결혼 이후기	85
3. 연구참여자 C: ‘도전과 나눔’	89
3.1. 결혼 이전기	89
3.2. 결혼 이후기	91
4. 연구참여자 D: ‘강인함과 열정’	95
4.1. 결혼 이전기	95
4.2. 결혼 이후기	98
5. 연구참여자 E: ‘솔직함과 당당함’	100
5.1. 결혼 이전기	100
5.2. 결혼 이후기	102
6. 소결	106
V.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	111
1. 사랑의 차원	112
1.1 가정에서	113
1.2 지역사회에서	133
1.3 직장에서	139
2. 권리의 차원	143

2.1 정치적 영역	143
2.2 경제적 영역	148
2.3 문화적 영역	152
3. 연대의 차원	162
3.1 생활공동체 연대	162
3.2 초국적 네트워크	166
4. 소결	171
VI. 결론	176
1. 요약	176
2. 논의 및 제언	182
참 고 문 헌	188
ABSTRACT	202
<부록 1>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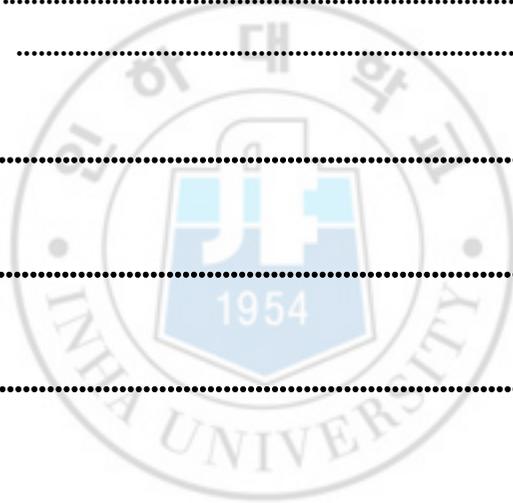


표 목차

<표 I-1> 국내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 동향	7
<표 II-1>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14
<표 II-2>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별 분포현황	14
<표 II-3> 결혼이민자의 성별 및 국적 현황	15
<표 III-1> 사회적 인정관계의 형식	37
<표 III-2> 연구참여자 별 특성	59
<표 III-3> 질문지 구성	65
<표 III-4> 연구참여자 별 면담 일정	66
<표 III-5> 분석의 범주	70
<표 IV-1> A의 생애 주기별 특징	76
<표 IV-2> B의 생애 주기별 특징	81
<표 IV-3> C의 생애 주기별 특징	89
<표 IV-4> D의 생애 주기별 특징	95
<표 IV-5> E의 생애 주기별 특징	100
<표 V-1> 인정투쟁 경험의 구성요소와 주제	111

그림 목차

<그림 III-1> 연구절차	53
-----------------------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이민인구의 증가로 빚어진 세계적인 다문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정주의 목적을 가지고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들은 수용사회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댁, 지역사회, 직장 등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인식,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인정에 대한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의 자아의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한다. 사회적 인정 역시 그 대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만 하고, 기존의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 역시 자아실현의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인정질서로 인해 갈등하는 개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갈등 경험이 일반화되고 집단화될 때 현실사회는 사회적 인정의 대상과 내용을 확장하려는 인정투쟁에 직면하게 된다(Honneth, 1992).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그리고 젠더라는 이중적 취약성 때문에 정서적 무시, 문화적 편견, 제도적 차별을 경험한다. 그들은 결혼생활 속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나 차별을 받을 때 마음속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그들의 인정욕구를 더욱더 강열해지게 만든다.

출입국 통계 월보 2017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만 명이 넘어섰다(출입국통계월보 2017년 1월호). 그중 결혼이주여성들은 숫자상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국의 다문화 시대 정책에 의해 가장 먼저 포섭된 집단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발적 이주를 경험한 집단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이주경험을 하였고,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및 자녀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권미경, 2006; 구차순, 2007).

이주와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생애 전환경험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소속이 되면서 그들이 깊어져야 하는 책임이 더 커지고, 한 남자의 아내에서 자녀의 어머니로 그리고 한국가정의 며느리로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타 문화에 속함으로써 새로운 다문화적 삶의 전형을 창출하게 된다. 인간 존재의 발달은 언제나 부드럽게 상승하는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아우성으로 이루어진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의 지점은 성장의 지점이 된다(김미영, 2015). 결혼이주민은 초국적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고 두 개 이상 국가의 경계에 걸쳐 삶을 영위해나간다(김영순 외, 2016). 세계화시대 초국적 이주를 행하고,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진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은 그들이 주류사회에서 인정획득을 위한 치열한 노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동포¹⁾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그들의 초기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 구직 및 직장생활 등 풍부한 경험 속에서 인정획득을 위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인정획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재구성되는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호칭에 있어서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권장한 ‘중국동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중국 조선족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다. 현재 국내에는 그들에 대해 중국(한국계), 조선족, 재중동포, 재중 교포, 중국동포, 재중한인 등 다양한 호칭들이 혼재해 있다. 연구논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일하여 ‘중국동포’로 호칭하였으며 다른 논문의 인용, 또는 인터뷰 내용에서는 저자 또는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조선족’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 조선족 지역 소개에도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결혼이주의 형태로 조기에 진입한 집단이고 대부분 한국사회 정주를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통계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사에서 출신국별로는 중국(한국계)이 30.8%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15). 이러한 통계 비율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양의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물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는 그들이 한국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점들인 언어결핍, 문화적응 등 어려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결핍의 존재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어렵다는 통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었거나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으로 포괄적으로 연구고 있었다. 하지만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중국 한족과도 다르고, 다른 나라 결혼이주여성들보다도 문화적응이나 정체성의 문제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한국 내 중국동포들의 수적인 증가는 그들의 중국동포로서 출신 배경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차별과 편견도 증폭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에 대하여 그들은 적극적인 상호작용 행위로서 인정투쟁을 통한 생존전략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투쟁은 자신을 무시한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배려, 권리 부여, 연대 형성에서 배제하는 사회 자체를 철폐하려는 것도 아니다(문성훈, 2014). 이는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공존하고 화해하고, 나아가 각자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Honneth, 1992).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그들의 삶을 담은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중국동포 결혼

이주여성들의 산 경험, 즉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초국적 이주를 결정하게 된 계기,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후 겪는 삶의 변화와 그에 맞선 그들의 다양한 대처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그 후 맞이한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변화 및 한·중관계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며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서로 다른 생애체험을 배경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투쟁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 참여하고 실천하며 재구성되는 사회, 정치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두었다. 따라서 주체적 시각을 통해 국내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그려보고자 한다. 심층면담을 통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어떠한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였으며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인정투쟁의 모습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경험에 근거하여, 국내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선주민들의 이해 지평을 확장시키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다문화가정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내용

본 연구는 국내거주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지만, 학계 연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들이 전달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인정의 부재 또는 왜곡된 인정의 내용, 그들의 갈등과 고뇌, 삶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개인의 깊은 체험을 그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언어를 도구화하여 이야기, 대화, 등 내면에 있던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 의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있어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연구문제 1은 삶의 맥락성에 근거하여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들의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 생활의 모습들을 담기 위함이다. 즉 그들의 인정투쟁의 양상이 결혼을 모멘트로 생애 전환 경험을 하면서 증폭되어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적극적 행

위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2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인정의 부재 또는 왜곡된 인정에 대한 다양한 인정투쟁의 모습들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는 Honneth의 사랑, 권리, 연대의 영역을 참고하여 사랑, 권리, 연대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삶의 빛깔을 지닌 5명의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을 심층 인터뷰하고 면담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이 이주민으로서 그들이 가정, 지역사회, 직장 등 영역에서 어떠한 인정의 부재, 또는 왜곡된 인정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삶을 뛰어 나가는지, 아울러 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이주를 한 생애경험이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사회 맥락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초국적 이주를 선택한 적극적 행위 주체이고 더 나은 삶의 개척자임을 밝힐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결혼, 이주, 출산, 등 다양한 생활의 변화에 맞서 적극적으로 인정투쟁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 이주를 선택한 그들이 결혼 후 시대과의 관계, 다양한 지역사회의 편견과 무시, 그리고 인정의 부재나 왜곡에 대하여 어떤 방식의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3. 관련 연구 동향

국내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RISS에너 결혼이주여성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이상 학술지 논문 1,644개를 찾을 수 있었다(검색 월: 2017년. 3월). 그중 제목이 중복되어 나타난 논문을 배제하고, 연구대상이 한국거주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논문을 제외하면 모두 1,152편의 논문이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국내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동향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편수	30	50	70	91	128	135	169	141	117	128	92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관련 논문은 199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5년까지는 연간 2~5편의 논문이 있었다. 2006년부터 한국 사회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정부기관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논문들도 많아지고 있다. 2010년부터는 해마다 100여 편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2005년까지 연구물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관련 연구는 한국 사회 혹은 문화로의 일방적인 적응 패러다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이주민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하고 한국 사회로의 편입 혹은 ‘적응’의 관점에서만 사유하는 수동적 존재로 재현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김현미, 2005).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들도 내용부분에서 대부분 이러한 틀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1990년부터 17년의 세월을 걸쳐오면서 조금씩 경향이 바뀌고 있었다. 그중 가

장 많은 연구주제가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 또는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연구의 방향성과 내용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수동적 존재로 보거나 혹은 적극적인 주체로 보는 시각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이주여성들을 적응, 동화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존재로 재현한 연구들이 있다. 즉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연구들에서는 이주여성들을 한국 가족이나 권력구조의 ‘가여운 피해자’ 이거나 한국 사회가 포용해야 할 ‘불쌍한’ 존재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박수진, 2002; 윤형숙, 2005; 이지훈, 2005; 이혜경, 2005; 한건수, 2006; 김이선, 2007; 신은식, 2012).

두 번째는 이주여성들을 자신들의 삶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위치 지우며 이주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재구성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김은실, 김정선, 2007; 김현미 외, 2008)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연구들이 있다.

세 번째는 후기 연구물로 이주여성의 생활세계를 본국과 이주국의 경제선상에 위치한 존재로 보는 연구들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과 수용국 모두를 준거로 정체성을 협상하거나 초국적 이주자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연구들(민가영, 2009; 김영순 외, 2014; 이희영, 2014)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경험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가 있었으며, 이들 역시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적응 또는 통합의 관점으로 연구했다(이영애, 2012; 이승민, 구차순, 2013; 박신규, 이성희, 2015; 박원순, 김낙홍, 2016).

이상의 연구들은 연구의 대상에 있어서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출신국가별로 나누어 연구하는 연구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국가별로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송유진, 2008;

정주연, 2008; 최정렬, 2009; 최은영, 2011; 송명희, 2012; 오영훈, 박미숙, 2014; 이애련, 2014; 팜티웬짱 외, 2014; 김선희, 2015; 이홍자, 2015; 최대희, 2015; 이은주, 2016; 최미경, 2016 외 다수). 그밖에도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 양육 및 정체성을 연구한 논문(김석란, 2008; 조현미, 2009; 이정희, 2012; 이유나, 2015; 서양임, 2016)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논문(강미연, 2009; 김동엽, 2010; 송선화, 2011; 김정신, 2012; 이은정, 2014; 강영미, 2015)도 많이 있다.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 연구로(김현미, 2014; 신난당, 2014; 알기르마, 2015)와, 캄보디아(채옥희, 2012); 네팔(이기연, 2015)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또는 중국결혼이주여성의 틀 속에서 동질의 집단으로 분석되어 왔다. 중국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문제와 갈등문제를 다룬 연구들(양승민, 2007; 권복순, 2009; 장인실 외, 2012)은 적응에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거나 적응과정에서 중국 이주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반면, 변화하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국민 정체성은 개별적인 상황 조건에 따라 매우 구별적인 연구(서운석, 2009)와 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황정, 2015)가 있고, 그들의 미디어 사용이나, 효 문화 경험, 취업경험, 식생활을 다룬 연구들(공수연, 2014; 박미숙, 2014; 오영훈, 박미숙, 2014)도 있었다. 이해웅(2005)에서는 국내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중국동포 근로이주여성들의 정체성 변화를 다루었다. 그는 연구에서 그들이 기존의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노동자’ 정체성, 가족 내 성역할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체성 변화를 겪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 기혼여성들의 경험은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진입한 경우이기에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는 다른 맥락에서 설명이 될 필요가 있다.

최금해(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이상 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하여 연구하여 적응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 또는 결혼생활 초기

적응 단계 어려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적응을 넘어선 그들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모습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사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인정을 요구하는 존재이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주류사회를 향한 인정의 요구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긍정적 상호행위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에서도 인정투쟁의 이론으로 이주민들의 상호작용적 행위를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물들이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보는 단체나 집단속 인정투쟁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옥(2010), 박우(2011), Nandintsetseg(2011), 황해영, 김영순(2016)이 있다. 김영옥(2010)에서는 ‘아시아 이주여성들의 다문화 마을’을 예로 들어 상이한 이주여성들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이주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가고, 한국 활동가들과 시민사회의제를 논의하고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활동가’로서의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한국 사회로의 주체적 통합에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박우(2011)는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종교단체와 결합한 동포성 부각시기, 둘째는 자발적 단체의 출현으로 동포법 범주에 포섭되는 시기, 세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이질성과 차별성을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Nandintsetseg(2011)은 몽골 결혼이주여성들이 ‘고 간체책 살해 사건²⁾’으로 인한 49재 애도 집회를 통하여 자기존중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모습을 그려 몽골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원주의적 시민이 되기 위한 씨앗으로서 평가했다. 황해영, 김영순(2016)은 재한 중국동포 단체 리더들의 단체 활동경험을 내적으로는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류사회를 향한 적극적

2) 고 간체책사건은 다음과 같다. 고 간체책(26세)은 한국에 2009년 3월에 이주해 왔으며, 남편 및 시어머니와 함께 4개월 된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 간체책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던 다른 몽골결혼이주여성 E를 남편(가해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묵게 했다. 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2010년 9월 14일(화)에 집으로 찾아와 칼로 간체책을 13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인 권리확장의 움직임으로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인정의 훼손과 그로 인한 인정투쟁방식을 탐색한 김나영, 이경옥(2016)의 연구,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타국에서의 위치와 인정투쟁의 모습을 그린 허선미, 최인이(2016)의 논문도 있다. 또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인정투쟁을 연구한 이희영(2010)의 연구도 있다. 김나영, 이경옥(2016)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인정의 훼손, 무시의 경험이 일어나는 계기가 무엇이며 훼손된 인정을 회복하고자 이들이 펼치는 인정투쟁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연구에서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언어적 부족, 교우관계, 출신국가 배경에 의해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 분노하지만, 무시를 참고 이해하기, 소모임 만들어 분노표출과 하소연하기, 한국 학생들에게 점차 동등한 관계 형성 요구하기 형태의 인정투쟁 방식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허선미, 최인이(2016)는 이중언어 강사집단을 대상으로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 이전에 자신이 누리고 경험했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인정투쟁 형식으로 이중언어 강사라는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지적능력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했다. 이희영(2010)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adaptation)’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한 시민적 참여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일상적인 인정투쟁을 다루고 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 문제에 주목하여 삶의 양상과 적응과정에 내재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생활문화에 대한 천착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이주 주체 개개인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구술 생애사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선족 여성에 대한 관련 논문으로는 조선족 엘리트 여성인 1931년생 심혜숙의 삶과 정체성(조현미, 2013), 1932년생 박순옥의 이주 경험과 디아스포라 생활사(박경용, 2014), 칭다오 재이주민 박정옥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삶의 애환 및 정착전략을 다룬 논문(박경용,

2013a, b)을 들 수 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생존 전략인 인정투쟁의 생생한 경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및 지원정책

1.1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오늘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새로 등장한 이질적인 타자이다. 한국은 동일한 혈통과 역사적 경험, 그리고 언어를 강조하는 단일민족 국가로서 그 어느 공동체 보다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력이 확립되었다(문성훈, 2014: 342). 때문에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불편함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각적인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농촌총각의 신붓감 부족현상으로 사회적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스컴도 일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이상노, 이현심, 2014).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의식한 탓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타국의 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정지연, 2016). 이는 한국 남성과 외국출신 배경 결혼이주여성들의 꾸준한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대에는 종교단체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 법³⁾이 개정되면서 국적취득이 쉽지 않자 국제결혼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는 중국, 필리핀으로 두드러졌고 근래에는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국

3) 1998년 제4차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국제 결혼으로 인한 외국민의 자동국적취득이 빚은 위장결혼 폐단을 막기 위하여 별도의 귀화를 거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이철우, 이희정의, 2016).

적이 다양해졌다.

현재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은 2016년에 152,023명으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6. 7)으로서 연도별 현황은 <표 II-1>와 같다.

<표 II-1>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7월
인원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152,023
전년대비 증감률	2.1%	2.6%	1.6%	0.1%	0.2%	1.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6. 7

<표 II-1> 과 같이 결혼이민자 증가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전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된 2008년도 122,552명에 대비하여 약 19.2% 증가하였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별분포 현황으로 <표 II-2>와 같다.

<표 II-2>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별 분포현황

(단위: 명)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전남	계
41,456	27,727	10,087	9,239	8,534	7,624	6,984	6,784	
전북	대구	충북	강원	대전	광주	울산	제주	150,180
6,003	4,939	4,829	3,644	3,447	3,360	3,271	2,25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6. 7

<표 II-2>의 결혼이민자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은 전국에 분포하여 살고 있지만 특히 경기 및 서울, 인천지역에 결혼이민자들이 집중

적으로 많이 살고 있다. 전체 결혼이민자의 52%가 넘게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II-2>과 같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전체 결혼이민자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성별 및 국적현황은 아래 <표 II-3>와 같다.

<표 II-3> 결혼이민자의 성별 및 국적현황

(단위: 명)

구분	중국	한국 계	베트 남	일본	필리 핀	캄보 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전체	57,367	21,876	41,524	13,004	11,573	4,599	2,998	2,396	18,562	152,023
남자	11,582	6,943	1,124	1,214	328	50	74	113	8,950	11,582
여자	45,785	14,933	40,400	11,790	11,245	4,549	2,924	2,283	9,612	12,8588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6. 7

<표 II-3> 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귀화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적취득 한 결혼이주여성까지 취합하여보면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계는 중국동포를 나타내며 이전에는 ‘조선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는 개념, 특히 이념과 관련된 개념과 사회적 호칭에 더욱 민감한 사회로 대체적으로 개념과 용어, 호칭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많이 요구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칭하기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정귀자, 2009).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2006) ‘전국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 여성이 이주를 통해 삶의 기반을 옮겼지만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37.2%에 불과하여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라는 용어사용을 유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김혜순, 2008 재인용). 그러면서 그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위해 이민을 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여러 이주경로 중 결혼이주가 선택된 것임을 주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민정 외(2006)도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따라 그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성별을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선택할 때 이주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한 이주가 곧바로 국적취득과 같은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과 초국가적 성격이 강해지는 이주자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민자라는 용어의 사용은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으며,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가 유용하다(구은정, 2010).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귀화자 실태조사결과⁴⁾를 살펴보면 2015년 결혼이민자·귀화자 수는 304,516명이고 여성이 81.5%이다. 그중 연령별로 30대가 32.6%로 가장 많고, 한국 거주 기간은 5~10년 미만 36.1%, 10~15년 미만 27.3%, 15년 이상 20.6%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해 5년 미만 거주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중은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장기거주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출신국별로는 중국(한국계)이 30.8%로 가장 많고, 중국(한족), 22.4%; 베트남, 20.8%; 필리핀, 6.0% 순으로 있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27.4%가 친구·동료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25.0%, 가족·친척 소개 21.1%로 결

4)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고서는 2015년 자료를 참고하였다.

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은 20.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15). 여성가족부 2015년 결혼이민자·귀화자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는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중에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팔려오다시피 한 존재’라는 인식과는 달리 그들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또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다양한 만남의 경로를 통해 결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의 어려움, 부부간 언어소통의 어려움, 출신국 문화에 대한 시대의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될 위험이 큰 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 증가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건수가 2004년 3,300여 건 이 2008년 11,000건으로 연평균 약 60%씩 증가하였고, 2011년 11,500여 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이혼율은 그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박현선(2014)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함께 한국 사회라는 이질적 문화에 적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같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도 자녀 양육 및 교육영역의 스트레스 인식이 가장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신국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언어 소통,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수선, 류한수, 2009; 박현선, 2014:354, 재인용).

실제로 외국인을 볼 때, 우리의 인식이나 시선은 ‘이중적 기준’ (double standard)의 잣대를 가지고 본다(오창우, 이현주, 2011). 즉, 한국보다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동경의 대상으로 보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시선을 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21세기 초반부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 방향의 인식으로 고착되어 있었다. 그 중 첫 번째는 가부장적인 한국 가족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존재라는 이미지로 모국에서의 가난을 탈피하고자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팔려오다시피 한 존재이다. 두 번째로 미디어에서 부각된 한국의 이미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남편을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존재이다. 이들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모국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곧장 한국 가족을 등지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있다(설진배, 김소희, 송은희, 2013). 주로 빈곤탈출이라는 경제 이유로 취업 또는 결혼의 형태를 통해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서열을 놓고 볼 때 Spivak이 말한 주변인(혹은 하위주체, subaltern)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주류사회에 의해서 말해지고 규정되어지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오창우, 이현주, 2011 재인용).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중국동포들은 이주로 인한 직업의 하향평준화를 경험하면서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무시, 편견,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은 한국 내 문화적응을 빠르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투나 억양을 사용하는 언어의 화용적 차이는 한국인들이 중국동포를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변수가 되었다(이민혜 외, 2013). 한족과 조선족을 다 같이 중국인이라고 규정하지만,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한족과 조선족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은 다른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다(방미화, 2013). 조선족은 ‘나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차별을 받은 데 이어 한국에서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이명민, 이용균, 이현욱, 2012).

이광규(1994: 11)는 “재중한인들은 중국에 거주하여 중국의 문화를 흡

수하고, 중국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도 한국적인 생활 문화와 언어를 지키면서 두 문화가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고 했다. 국성하(1996)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민족 감정을 중시하는 바탕 위에 중국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여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이문화적 성격은 조선족 이주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나타났고, 이 역사적 과정으로 인해 한국문화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인들과 매우 다른 관점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최금해, 2006). 중국에서 민족이란 말은 ‘소수민족’, ‘한족’ 등과 같이 국민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구집단으로서의 ‘민족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족들의 의식성향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응집력이 매우 강하다’ (이효선, 김영모, 1992, 신승철 외, 1994; 국성하, 1996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인이 ‘우리 민족’ 혹은 ‘한민족’ 이라고 할 때는 남·북한의 한국인을 포함하여 현재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인의 혈통을 이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다(최금해, 2006). 그러나 이처럼 끈끈하게 보이는 한국의 민족의식도 개인적 이해관계 혹은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리면 그 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유명기, 2003). 중국동포에게 있어서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자치구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명칭이었으며, 이들은 조선족이란 명칭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김영로,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조선족’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나/너’, ‘우리/그들’ 등 구별화의 대상이 되며, 그 구별화의 의미에는 ‘차별과 멸시’ 또는 ‘동정’이 내포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선족’을 조선족이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동포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김영로, 2016).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진 뜻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이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김영로, 2016).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중국동포 여성들은 한국에서 새로 형성된 특수한 집단이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가 있다(최금해, 2006).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집단의 문화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들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모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란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최금해, 2006).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라는 어려움과 한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라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의 한국생활의 모습들은 기타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중국에서 온 한족들과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내부인과 외부인 사이의 긴장을 안고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국내 중국동포 이주민들이 수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족에 대해 형성 및 고착화되어가는 새로운 스테레오타입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을 감당해나가야만 하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만연하는 중국동포들의 보이시 피싱에 대한 낙인과 몇 번의 강력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루머, 그리고 괴담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로 빚어진 중국동포에 대한 범죄자 이미지들은 같은 중국동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주민이라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류사회가 유포하는 문화적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내적으로는 새로운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외적으로는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고정 관념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고초를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떠한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대처 전략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1.2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관련 지원정책

1992년부터 중국동포들이 국제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 한국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딱히 없었다. 입국초기에 그들은 홀로 한국에서의 적응하였으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고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위치 지을 수 있었다. 이전의 그들은 ‘중국에서 시집온 여자’ 라는 애매모호한 호칭 속에서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고민하였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타문화권 출신들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이질성과 문화적 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주민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이주민 자녀의 학업과 사회적응의 문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내국인의 불안감 고조, 타종교의 유입으로 인한 내외국인의 종교적 충돌예상,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의 문제, 그 외에도 2005년 프랑스의 이주민 소요사태는 전 세계국가들로 하여금 사회통합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이성순, 2014).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가정문화운동단체 ‘하이패밀리’가 인권 침해적인 표현인 ‘혼혈아’ 대신 ‘다문화가족 2세’라는 표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시하면서부터이다(김현미, 2008). ‘다문화가족’이라는 카테고리는 2006년에 정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초안을 만들면서 생겼다. 정부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김원섭, 2008). 참여정부 시기에 기존의 단편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

원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현재 중앙정부의 다양한 다문화정책은 관련 법률의 상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으로서, 다양한 부처가 기본계획에서 세워진 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은 국내의 외국인 정책에 관한 5년 단위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다문화사회’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이혜경 외, 2016).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정책목표는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을 포함하는 13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통합에 있어 그 대상은 결혼이민자, 이민자 자녀, 동포 등이며 특징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들 수 있다.

다문화정책 지배국가에서는 젠더와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따라 제도화된 근대성의 질서와 위계를 공격하고 종속된 민중의 정체성을 토대이자 준거점으로 긍정한다(Negri & Hardt, 2001: 161). 다문화정책 지배국가에 해당하게 된 한국의 국적법은 결혼이주여성을 귀화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계혈통중심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국민의 경계와 가족의 경계가 상충될 때 해결방안으로 여성이 남성의 가족에 포섭되게 하는 것이다(황정미, 2011). 따라서 외국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할 경우,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결혼의 폐단들이 출현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적취득 방식은 변화하였다.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취득은 인지와 귀화로 한정되기 시작하였다(이용재, 2012).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2년이 경과한 다음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으로 결혼이주자의 국적법은 3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이용재, 2012). 먼저 국적 취득의 사유로 혈통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출생지를 기초로 하는 출생지주의를 보충하며, 셋째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녀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세워졌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이철우 외, 2016). 그러나 이 지원법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제정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란, 2012). 이를 통해 다문화 관련 정책들은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 자녀 등 다문화가족은 언론에도 자주 등장한다. 홍지아(2010)는 언론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가부장적 가치 실천자’로서 한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존재로 엮거나 순혈주의적 관점에서 구별 짓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종적 차별과 젠더적 차별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타자’가 된다.

한국 다문화 담론의 특수성은 그것이 문화가 다른 한국인과 외국인 등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는 개념보다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다문화가족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의 줄임말이 되어 복지대상자라는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통칭되어 ‘일반학생’과 분리되기도 한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었으므로 다문화가족 정책의 시혜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담론의 성격이 다원적이기보다 동화주의적 성격에 가깝고, 이 가운데서 이주민들은 주체가 아닌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오경석, 2010)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다문화 정책은 강력한 국가 주도성으로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으며(오경석, 2010; 김현미, 2008), 순혈주의적이고 가부장인 민족주의에 기반해 이주민에 대한 분리주의적이고 차별적 접근을 고수한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을 부계 가족의 틀 안에 국한시키고 있다(황정미, 2014).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겉으로만 다양한 이주민들과의 공존·통합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문화적’이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2015년까지 217개의가 설치되었으며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6).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가족갈등·체류·법률 등에 대하여 자국어 365일 24시간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후 보호시설·경찰·병원·법률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활동 및 네트워크구축, 현장방문을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및 한국 사회 적응지원, 가정해체예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보호시설인 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서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출을 시도한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일시 보호를 맡고 있다. 이곳에서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법률·출국 지원, 정서적 치료회복 등의 일시적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퇴소 후 이들은 다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퇴소하기 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활 지원센터가 이들의 직업훈련 교육 및 취업알선,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동반자녀의 육아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

로그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아 양적으로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5). 이외에도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보호시설로 이주여성 그룹 홈이 정부지원 2개소가 있으며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적인 열악함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권영호, 2014).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 진입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아무런 사회적, 정책적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적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립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대부분 동화위주의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교육내용도 대부분 한국 문화적응, 언어교육 등 초기적응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홀로 초기 적응을 마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난, 결핍에 대한 부각으로 다양해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속에서도 의도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타자로 전락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결국, 1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해오면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무에서 유를 경험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충돌된 ‘다문화’ 경험, 즉 실제로 살아 있는 경험과 삶의 이야기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2. 정체성과 인정투쟁

2.1 정체성

구성주의 입장에서 정체성 이론을 확립한 Ericson은 자아정체성을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정의했다(박아청, 1988 재인용). 그는 자아정체성이란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내적 충동과 욕구, 외부 자극, 그리고 도덕적 가치들을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통합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말한다(Honneth, 1992 재인용). Giddens(1991)는 정체성은 단순한 역할을 뛰어넘어 행위자 자신에 대한 의미의 근원이며 행위자 자신에 의한 개별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Castells(1997)이 말하는 ‘기획적 정체성’에서는 어떠한 사회행위자들이든 간에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재 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hmed(2000)는 세계화 시대에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정체성은 타자와의 마주침에 의해 결정되며, 정체성의 차이는 몸의 차이가 아니라 몸이 위치하는 장소와 주체에게 부여된 상대적 역할의 차이로 이해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위치의 정치학은 주체가 근거하고 있는 물적, 지리적 장소와 상징적, 정치적 위치성(positionality)에 따라 변화하는 정체성에 주목해야 함을 제시한다(Ahmed, 2000). Taylor는 정체성을 정의함에 있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이자,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이고 명시적 특성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인정’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말한다(전형권, 2014 재인용). 또한, 사회가 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승인은 피해를 끼치거나 억압의 한 형태로 변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 사람을 거짓되고 왜곡된 존재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정체성은 일단 왜곡되면, 그것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다고 한다(전형권, 2014 재인용).

Johnson & Johnson(2000)에서는 Goethe의 이론을 빌려 성격은 고독이 아닌, 인생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즉 사회적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혹은 집단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광범위한 경험들을 추구함으로써 형성한다고 했다. Hall(1994)은 정체성이란 이미 완성되거나 확립된 그 어떤 요소가 아니며 문화적 재현 속에서 구성되고 항상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결코 완성되지 않은 산물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재현 수단인 매스미디어는 의미의 생산과 소비,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사회적 정체성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주관적 정체성은 나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한편,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의 요구를 주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Honneth(1992)에 의하면 주체들은 이러한 인정투쟁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권리를 확대하고 새로운 규범을 창조해나간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회구성원들이 현존하는 제도적 현상들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부정의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 무시, 혹은 사회적 인정요구의 훼손이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법은 인정관계의 확대이다(문성훈, 2014). 이렇듯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규정이자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유동성과 가변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체는 적극적인 상호작용행위인 인정투쟁을 통하여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

Ranciere(2008)는 주체화를 논의함에 있어 정치와 치안을 구분하였다. 우선 치안은 기존의 위계질서와 그 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치안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결집시키기 위해 그들의 합의를 조직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회를 위계적으로 자리와 기능, 몫을 나누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통치의 과정이다. 다음으로 주체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활동으로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전제를 실천을 통해 입증하려는 해방의 과정이다(심승우, 2011 재인용). 이 단계는 소수자를 타자로 배제하고 관리하는 치안을 극복하고 정치로 구성하는 해방의 기획이다. 이때 다수집단이 규정한 정체성에 대한 소수자의 거부는 소수자의 주체화에 가장 중요한 합의를 가진다. 이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자 열등감을 극복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심승우, 2011 재인용).

Ranciere(2008)는 진정한 정치 변화는 권력의 소유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제된 주체가 새로운 장에 출현함으로써 새로운 틀이 짜여 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사회 질서 속에서 각자에게 분배된 자리와 기능으로부터 벗어나는 ‘탈 정체화’를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은 국가가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의 삶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형성되며, 개인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기존중, 자기 가치부여, 자기민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반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에 대한 인정 철회는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위험을 동반한다(심승우, 2011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개인 정체성은 변화되며, 자신의 건강한 정체성 수립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주체가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의 삶이나 정체성은 한국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만 논의되었다. ‘이주자’로서 그들은 모국과의 유대를 끊고 한국 사회에 전적으로 동화될 것을 강요받으며, 이들의 정체성은 한국의 언어나 관습, 문화를 익히고 자녀를 낳고 재생산 노동을 통해 하층가족을 유지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기여한다는, 유입국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고정되고 일관된 것으로 가

정되었다. 이주민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주류 사회 풍토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주류사회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갱신되고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2.2 인정의 윤리

1980년대부터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문화다원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운동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장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문성훈, 2014). 이러한 주장은 정체성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차이’가 이들 간의 우열을 나누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차이에 대한 인정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차별을 넘어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된다.

Hegel은 인간의 자아의식이 사회적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통찰을 발전시켰다. 즉 적절한 사회적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의식의 자기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자아와 자기발전을 중요시하는 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윤리적 정치적 요구는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된다(Honneth, 1992, 재인용).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자의 인정에 목매는 이유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다양한 정체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정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 Hegel은 「정신현상학」(1807)에서 내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 또한, 타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상호인정의 이념을 발전시켰다(이현재, 2015 재인용)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

적 조건이다.

공동체 안에는 각자 선한 삶을 사는 특수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체를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닌 이상, 개인은 자신과 같이 선한 삶을 사는 타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은 문화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Taylor, 1994). 왜냐하면, 개인은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기실현을 꾀하게 되는데,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역사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 공동체 안에서의 유의미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은 ‘인정’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담론에서 볼 때,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정’이 그 핵심적 내용이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입장을 따르는 대표적인 학자가 Taylor이다. Taylor는 근대성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적 반성을 통해 하나의 목적론적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근대철학의 단점과 포스트모던적 상대주의가 봉착하게 되는 허무주의에로의 귀결이라는 딜레마를 ‘상호인정’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Taylor, 1994). 그는 문화적 특수성만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성과 특수성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Taylor는 각각의 개인과 집단이 지닌 정체성의 사회적 인정을 중요한 도덕적 요청으로 내세웠다. 그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모든 문화에 내재하는 고유한 가치의 인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상호 인정이다.

Taylor(1994)는 「인정의 정치학」을 통해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인정의 요구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이 부분적으로는 인정에 의해서, 또는 인정의 부재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이들의 잘못된 인정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인정의 부재나 잘못된 인정은 해를 가할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잘못된, 왜곡된, 그리고 부족한 종족으로 가두어 버린다. 이것은 희생자에게 장애적 자기혐오를 부과함으로써 비통한 상처를 줄 수 있다. 마땅한 인정은 그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인간의 필요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외부상황, 즉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의 인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영향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

Mead(1934)는 인간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주관적 인정이라는 경험 속에서 형성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주체가 문제가 발생할 때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의식하도록 하게 된다. 행위자가 자신과 위태롭게 된 상호작용 상대자의 관계 속에서 행위자가 받아들여지게 된 관점으로 전환될 때 심리학은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Mead는 경험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아와 사회적 세계의 관계를 역전시켰고, 자아의식의 형성에서 타인에 대한 경험이 우선함을 주장하였다. 주체가 사회적 환경에 대해 ‘자기주장’을 펼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주격 나’의 요구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요즈음의 전체의지의 관점이 아니라 확장된 법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체가 자신 속에 수립해놓은 이상적인 ‘목적격 나’는 현존하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단절을 넘어서 그에게 상호주관적 인정을 허락한다. 이러한 인정 없이는 주체가 개인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주격 나’의 충동성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규범적 이상화의 요소는 모든 사회적 실천 속에 깃들게 된다.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발적으로 체험된 자신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 반 사실적으로 가정된, 즉 주체들에게 정착된 인정관계에 비해 더 많은 자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공동체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Mead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생활과정에 지속적으로 규범적 이상의 망을 씌우는 무수한 도덕적 이탈을 통해 사회적 발전과정을 특징지어려 한다. 이것이 상호영향이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호영향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Honneth(1992)는 도시민은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며 투쟁을 진행하는 한 자신이 원하는 동일한 인정을 타인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역시 새로운 소수자에 대한 인정질서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인정획득 요구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 구성원들도 자신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반성하는 존재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인 즉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3 인정투쟁

비판이론 또는 사회비판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집단을 보통 프랑크푸르트학파라고 부른다. 이 학파의 명칭은 비판이론가들이 프랑크푸르트 대학 부설 사회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론적 활동을 해온데서 유래한 것이다. 비판이론의 대표저자인 Habermas는 언어와 대화를 통해 해방적 잠재력을 일으키기 위해 시도했고, 도구적 사유로 인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항하기 위한 비판적 사유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고자 했다(McCarthy, 1978; 이희수, 정미영, 2010 재인용). 비판이론은 해방과 계몽을 목적으로 삼는다. 행위자들로 하여금 숨은 강제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려놓는다.

Honneth의 인정투쟁 이론은 Mead의 사회심리학을 토대로 Hegel의 사유 모델에 경험과학적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Honneth 자신이 「권력비판」에서 서로 대립하는 비판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한 바 있던 Foucault와 Habermas 이론의 통합이었다. Honneth의 인정투쟁 모델은 Foucault의 투쟁이론과 Habermas의 의사소통 모델을 결합한 산물인 것이다.

Honneth는 비판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Foucault의 이론을 투쟁 모델로, Habermas의 이론을 의사소통 모델로 규정하면서 이 둘을 통해 의사소통 이론적으로 정초된 사회적 투쟁 모델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이 모델은 1세대 프랑크푸르트학과와 2세대 Habermas 또 하나의 비판이론적 실마리인 Foucault에 대한 대안적 사회이론의 근본 방향이기도 하다(문성훈, 2014). Honneth는 행위이론을 염두에 두고 행위 범주가 인간의 변혁활동을 해명하는 이론적 중심 틀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즉 Honneth는 사회란 단순히 자기 보존을 위해 싸우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투쟁의 동기는 무시이며, 투쟁의 목표는 인정이라고 본다. 그는 「인정투쟁」(1992)에서 Hegel 인정이론의 두 가지 핵심을 현대 심리학과 사회이론을 빌어 체계화시키고 나아가 이를 인정윤리로 발전시킨다.

인정투쟁의 핵심은 사회적 투쟁이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는 주장에 있다. 또한,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조건이다(이현재, 2015). 이런 점에서 인정투쟁의 핵심은 Honneth에게 인간학적 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Honneth는 모든 사회적 투쟁이 인정을 둘러싼 도덕적 투쟁임을 역설하는 가운데, 각각의 긍정적 자기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인정 형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화 하였다(문성훈, 2014).

Honneth는 도덕적 손상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이현재, 2015). 그는 주체가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체성을 훼손당한 상황에 처할 때, 주체는 새로운 인정의 형식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새로운 인정의 모색이란 자신의 권리와 정체성의 인정을 위해 타인이 규정한 나에게 부여된 가치, 규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그것들을 규정하는 타인에게 합리적이고 사실성과 타당성에 근거를 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재, 2015).

Honneth는 이처럼 권리인정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 양식을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인정투쟁의 내용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에 의한 문화적 지배, 불인정, 경멸 등 문화적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한다(Honneth, 1992).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에 대해 주류사회가 유포시키는 문화적 낙인은 주류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정착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정체성에 분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다수집단이 규정한 정체성에 대한 소수자의 거부와 소수자의 주체화에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자 열등감을 극복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자아실현의 가능 조건인 사회적 인정이 보장된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무시로 고통당하는 사회를 병리적 사회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자기의식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한다면, 이에 따라 사회적 인정 역시 그 대상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기존의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 역시 자아실현의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이춘호, 2014).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인정질서와 갈등하는 개인이 증가면서 또한, 이들의 갈등 경험이 일반화되고 집단화될 때 현실사회는 사회적 인정의 대상과 내용을 확장하려는 인정투쟁에 직면하게 된다. 즉, 자신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저항과 병리적 사회 극복을 위한 집단적 투쟁이 가시화된다는 것이다(Honneth, 1992). 이러한 투쟁은 자신을 무시한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것도, 자신을 배려, 권리부여, 또는 연대 형성에서 배제하는 사회 자체를 철폐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는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공존하고 화해할 뿐 아니라 각자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문성훈, 2014).

인정투쟁은 바로 이런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문성훈, 2014). Honneth가 Mead의 사회심리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주격 나(I)는 타인이 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나 기대를 인지하면서 목적격(me)에 대한 심상을 얻게 된다(Honneth, 1992, 재인용). 따라서 Mead(1963:194)에 의하면 “공동체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개인의 자기정체성은 바로 그것이 타인을 인정하는 것일 때 인정된다.” 자기관계는 나에게 대한 타인의 관점이 나에게 내면화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 나’와 대상화되지 않는 어떤 자발성으로서의 ‘주격 나’의 긴장 관계를 전제한다(Honneth, 1992, 재인용). Mead(1963)에게 이 긴장은 특히 ‘사회화 과정’과 맞물려 있는 ‘개성화 과정’의 추진력이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규범적 이해, 즉 자기이해 또는 개인적 정체성 역시 이 두 과정의 긴장 속에서 형성된다. Honneth(1992)는 바로 이 긴장관계 속에 ‘인정투쟁’을 엮어 놓는다. 즉 ‘주격 나’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목적격 나’와는 다른 어떤 부분을 인정받으려는 투쟁에서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을 통해 사회적 주체들이 눈앞에 그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요구가 완전히 인정된 ‘이상적 공동체’이다. 물론 이때 인정을 위한 투쟁은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되며 그 형태 또한, 집단화되고 조직화된다.

인정과 투쟁의 관계는 인정의 유보나 불인정의 상태를 염두에 둘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자유로운 정서적 욕구의 분출과 충족을 가로막는 신체에 대한 폭행, 법적 권리의 유보나 불인정, 사회적 연대에서의 배제는 해당 당사자에게 ‘무시’나 ‘모욕’으로 이해되며, 이는 ‘분노’라는 심리적 반작용을 일으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을 추진하는 심리적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Honneth, 1992). 또한, 사회적 무시나 모욕은 각 개인의 정서적 욕구나 도덕적 판단 능력, 고유한 개성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갖기가 어려우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사회적 무시가 해당 당사자의 안녕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분명히 도덕적 ‘불의(Unrecht)’와 다를 바 없다. 따

라서 인정관계를 둘러싼 무시나 모욕 행위는 일종의 ‘도덕적 훼손(moralische Verletzung)’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도덕적 관점이란 것이 인간의 삶의 실현을 이러한 훼손 행위에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훼손 행위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투쟁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점에서 ‘인정투쟁’은 사회적 투쟁의 도덕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문성훈, 2014).

본 연구에서는 바로 정당한 사회적 도덕 형식 투쟁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의 부재와 왜곡된 인정 질서에 대하여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은 긍정적인 자아상 수립을 위한 주류사회와의 상호협상적 노력으로 보았다. Honneth(1992)는 도덕적 손상은 세 가지 심리적 차원에 상응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손상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안녕, 자신의 요구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 즉 자신감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서, 살인뿐만 아니라 고문이나 폭행과 같은 물리적 학대 역시 이런 부류의 전형적인 경우들이다. 둘째로 한 개인의 도덕적 사려 능력을 무시하여 자존감을 파괴하는 도덕적 손상의 전형적인 사례는 속임수나 사기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서 비롯하여 집단 전체에 대한 권리상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도덕적 손상은 한 사람 또는 다수가 해당 공동체 내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함으로써 자부심을 훼손당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경우에서부터 명예훼손과 같은 중대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Honneth, 1992). 이러한 이런 규범을 윤리적 혹은 도덕적인 규범으로 지칭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인격적 정체성의 조건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들의 열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관계의 훼손을 막는 규범은 그것이 인격적 정체성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는 한 도덕적이다.

Honneth(1992)의 세 가지 인정 형식은 우선 “정서적 배려”나 “사

량”과 같은 애정의 형식을 통해 서로를 그 욕구와 바람이 타인에게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한 개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지적 존중’을 통하여 서로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사려 능력을 갖는 한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연대’나 ‘헌신적 충성’ 등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부여’를 통해 서로를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자부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인정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사회적 인정관계의 형식

구분	사랑	권리	연대
개성의 차원	욕구 및 정서본능	도덕적 판단능력	능력, 속성
인정형태	원초적 관계(사랑, 우정)	권리관계(권리)	가치공동체(연대)
진행방향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실천적 자기관계	자신감	자기존중	자부심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부정, 제외시킴	존엄성 부정, 모욕
위협받는 개성구성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

Honneth(1992) 「인정투쟁」에서 재구성

우선, 사랑이라는 형태의 인정은 개인이 ‘지속적인 정서적(affective) 유대의 확실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Juul, 2010). 이는 자신감에 불과하며, 자신감은 개인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 내에 참여하여 행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랑영역에서의 인정 획득은 도덕적 주체자로서의 개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얻어야 할 자기 정체성 형성과정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서도식, 2008; 이문수, 2012).

그리고 권리 형태의 인정은 법적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Honneth(1992)에게 있어서 법적 권리 형태의 인정은 모든 이들에 대한 동등하고 보편적인 법적 대우를 구성한다. 이는 타자와의 동등한 관계 형성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기회 부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성인은 권리인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 자울성을 가짐을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즉 전자인 ‘사랑’이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심리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반해 ‘권리’ 인정은 자신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존중을 수반하게 된다. 즉 권리는 사회적 집단의 소속 원으로서 평등하게 인정받는 타인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인정의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 형태의 인정은 자존감(self-esteem)의 발전에 전제조건으로 이해된다. 법적 권리의 인정과는 달리 사회적 연대 형태의 인정은 타자를 그들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이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그들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호네프는 헤겔이 “인륜적 이념의 실현”이라고 불렀던 국가를 가치공동체란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리주체인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연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서도식, 2008: 194). 한 집단의 구성원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상호 연대적 관계를 가진다. ‘연대’ 관련 투쟁은 이미 더 이상 개별자의 개인적 의식형성의 매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편화 또는 공동체성 형성의 매체로서의 역할도 가진다.

Honneth(1992)는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인정요구가 단지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특수한 생활방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

첫 번째 유형은 특정한 문화적 공동체의 생활방식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적 공동체가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경우는 문화적 공동체의 생활방식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는 차이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따져 달라는 적극적 요구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타문화 구성원들도 존중해야 할 어떤 선(善)을 구현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Honneth(1992)는 사회적 투쟁이 인정의 경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바라본다. 우선 그것은 상호 인정관계의 확장을 요구한다. 나아가 개인은 사회적 투쟁, 즉 저항운동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관계’를 획득하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회적 수치심으로부터 야기되는 마비 상태를 집단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오직 자신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만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확신하게 되며 현존하는 사회적 조건이 그에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능력과 덕목을 입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운동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대감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개인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인정을 경험하게 된다. 국가가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의 삶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형성되며, 개인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기존중, 자기 가치부여,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Honneth, 1992).

반면에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에 대한 인정 철회는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위험을 동반한다. 국민국가의 ‘정상시민’에 대한 집착은 이주자의 권리문제를 주변화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또한, 권리 인정의 유보는 억압의 한 형태이며, 이주자를 권리 없는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정체성의 훼손과 자아 존중감의 상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로 직결되며, 자신을 규정하는 타자로부터 권리의 문제를 협상, 해결하는 것이 손상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Honneth는 성공적인 삶의 조건으로 사랑, 권리, 사회적 연대라는 세 가지 인정형태를 제시했다. Honneth(1992)에 따르면 인간은 사랑, 권리, 연대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의식

을 갖게 됨은 물론, 성공적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Honneth, 1992). Honneth는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존유지가 아닌 자기실현을 의미한다. 성공적 자기실현의 가능성이 타인의 인정, 다시 말해 나에게 대한 타인의 긍정적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인정윤리의 관점이다(문성훈, 2014).

인정투쟁은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변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간 주체의 자기 이해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인정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문성훈 2014). 한 사회 내에서 인정투쟁은 하나의 단일한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간관계에서 존재하는 인정관계는 다양하며, 그러한 다양성에 따라 인정투쟁의 양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인정투쟁의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실, 즉 다양한 혹은 여러 층위의 인정관계 구조에서 인정투쟁의 모습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문성훈(2014)은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인정투쟁에 영향을 주는 사회의 인정질서 혹은 인정관계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그 속에서 인정투쟁을 통한 인정회복의 양상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변동과 인정관계 구조변화 연장선에서 문성훈은 친밀성의 영역, 정치적 의사결정의 영역, 경제적 생산 영역, 문화적 생활 영역, 세계질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문성훈 2014).

문성훈(2014)는 현대 사회 변동에 따른 인정구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다. 첫째, 친밀성 영역의 구조변화이다. 이는 가족관계 혹은 부부관계의 구조변화와 관련된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의 구조변화다. 이는 민주주의 절차적 조건과 실질적 조건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셋째, 경제적 생산 영역의 구조변화이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가 관련된다. 넷째, 문화적 생활 영역의 구조변화이다. 여기에서는 타자의 등장에 따른 문화적 변동을 다룬

다. 다섯째, 세계질서 영역의 구조변화이다. 여기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탈 국민 국가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생활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삶의 창조자이고 행위자로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 정체성에 있어서의 인정투쟁의 행위전략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그들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속에 드러나는 인정투쟁의 경험들을 구성하게 된 근거들을 생애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모국에서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간 주체의 자기이해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인정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랑의 차원에서 친밀성영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펼쳐는 인정투쟁의 모습들을 살펴본다. 또 권리의 차원을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치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권리인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 영역에서 가정에서의 권력 획득의 구심점이 되는 구직 경험, 문화영역에서는 문화적응 형태의 인정투쟁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대차원에서 세계질서 영역을 고찰하는데 그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생활공동체 네트워크와 SNS를 활용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정투쟁의 형태를 고찰하였다.

3. 소결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유목적 주체이다.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발적으로 홀로 한국 사회에 진입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자녀 출산 자녀 양육까지 많은 것을 감당하여야 한다. 문화 및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넘어서 시대의 차별과 주위 사람들에 의한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주과정 중에 자국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하였던 사고의 틀과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짐을 겪게 되고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한국 사회에 새롭게 적응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수립하기에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다.

유목민적 주체로서 그들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그들은 혼돈과 갈등 속에서 새롭게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의 교섭을 통하여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나가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고정되거나 영구적인 정체성이 아닌 모순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상황에 맞는 자기주장으로 긍정적인 인정을 획득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의 인정투쟁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신의 회손된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은 외부에서 요구받는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고유의 정체성 속에서 혼성적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고, 한국의 국가, 계급, 언어, 문화와 미묘한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행위양상들은 결국 사회적 인정을 요구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므로 전체 삶의 긴 흐름 속에서 그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에 의한 느낌과 생각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즉 내적 동질성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속에서

통찰하고, 경험하고, 새롭게 재구성하고, 협상한다.

여성 결혼이주여성들은 ‘외국인 여성근로자’, ‘외국인 며느리’ 등으로 쉽게 호명되고 있다. 그들은 그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격적 존중의 시선을 배제된 채,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야하는 ‘기능적’ 성격에 의해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수자의 시선이 이들을 우리 사회의 성원이나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없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같이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타자의 위치에서 서성이게 만들고 있다(오현선, 2007).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주류사회에 의해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은 더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양한 상호작용행위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인정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 전략들을 통해 유연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상황, 사람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의 경험에 대한 탐색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나 사회적 인정의 부재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인정투쟁 행위양상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정투쟁의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경험을 다루는 연구로 인간의 경험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경험이나 삶의 의미를 깊게 통찰해 볼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는 교육 경험 연구에서는 그 어떤 연구방법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살아온 과정 중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미래의 삶의 목적 및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다.

1. 연구개요

1.1 내러티브 탐구 절차

Bruner(1990)는 교육 연구에서 가장 익숙해져 있는 패러다임적이고 논리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내러티브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삶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자기 삶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든 또는 타인에게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할 때,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내러티브에는 시간과 사회적 준

재로서의 우리의 경험이 스며져 있다(강현석, 2005:92 재인용).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과 같고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는 공유된 신념과 문화 가치를 구성하고 전하며 변형시킬 수 있다(Polkinghorne, 1988; Witherell & Noddings, 1991).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삶의 능동적 주체이기에,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교육은 이제 형식적인 제도적 교육보다도 실제 생활 속에서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삶의 양상에서 개인을 되돌아보는 생애사 연구 방식은 개인 스스로의 적응과 변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강민수, 문용린, 2007). 개인화와 다원화가 특징인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유동적인 생애사가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으로서 기능하는 ‘생애과정(life course)’에 따라 구성된다기보다는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인생진행(course of life)’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렇게 인생진행의 과정으로 구성된 생애사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체험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사적이지만, 개인이 처한 사회의 행위공간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공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이희영, 2005).

내러티브는 ‘연구의 현상이자 연구의 방법’으로서 다른 연구방법론들과는 달리,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에 대한 의미 창조를 중요시한다. Clandinin과 Connelly(2000)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협력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똑같은 영감으로 탐구를 진행시켜 나간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내고 다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탐구를 마무리 짓는다. 간단히 말해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들이다.

한편, Clandinin과 Connelly(1991)에 따르면 ‘이야기’란 구체적인 상황

에 대한 일화를 의미하며, ‘내러티브’란 긴 시간에 걸쳐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일한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탐구의 방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상황과 세계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자서전, 일기, 전기, 편지 등과 같은 개인에 관한 기록의 한 형태로 개인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의 자기반성적인 이야기를 기초로 참여자와 연구자사이에서 구성되기에 다른 형태의 개인기록물과 구별된다. 참여자가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그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후에 참여자의 해석을 연구자가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은 개별적인 개인의 경험이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되고 한 문화 속에서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생활담을 연구자가 역사적 맥락 또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 대한 사적기록이 아닌 공적기록이 된다(조용환, 1999).

즉 여성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즉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여성들의 말하기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여성을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주체의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다(김성례, 2002).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이자 이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우 특별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차별 경험의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법의 한가지인 밀접한 라포를 형성해 기술을 통해 그들의 내밀한 서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듯 내러티브 탐구방법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의미 있는 경험을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그 경험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으며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지, 그 이야기 구성방식과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 나가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있어서 내러티브는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는 도구로써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이나 체험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자에게 개인의 경험은 부족한 점이나 결점에 대한 추측 없이 그 자기 생각대로 먼저 들려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 내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의해 비판이 유발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내러티브 탐구자가 마음에 그리는 중재는 우선 체험의 질에 초점을 둔다. 내러티브 탐구가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초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는 내러티브를 협력적으로 변형하는 데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된 경험에 뿌리를 둔 그러한 기초 없이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노력은 비효율적이거나 외부적으로 부과된 권위의 허울뿐인 실행이라고 비난받을 것으로 생각한다(Clandinin, 2007, 강현석 외 (역), 2011: 82). 이렇듯 내러티브 탐구방법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의미 있는 경험을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그 경험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으며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고자 한다. Clandinin과 Co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연구의 전 과정 내내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검증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삼차원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s)은 Clandinin과 Conelly(2000)가 내러티브 탐구라는 연구방법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시킨 용어이다.

삼차원 공간은 경험에 의한 존 듀이의 관점, 즉 경험의 상황적 연속성, 그리고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경험에 관한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삼차원 공간은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서 연구의 틀로 사용되는데, 우리의 연구가 내적 지향(inward), 외적 지향(outward), 과거 지향(backward), 미래지향(forward)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의미하며 장소 안에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4가지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내적 지향은 감정, 희망, 심미적 반응, 도덕성과 같은 내적 상태를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적 지향은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지향, 미래 지향은 시간성(temporality),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을 경험한다는 것은 4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은 내러티브 탐구에서 추구하게 되는 방향성과 수단으로 보았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삼차원 공간 내에서 연구를 진행시킬 때,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억 저편에 있는 과거의 사건들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이야깃거리를 제공해 준다. 즉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

Clandinin & Connelly(2007)가 제시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연구자가 자신에 대해 탐구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입장을 형성하게 한 과거의 사건,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미, 경험이 이루어졌던 다양한 환경 등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내러티브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내러티브 안에서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연구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내러티브는 자서전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연구의 관심이 연구자 자신의 내러티브에서 나오고 내러티브 탐구의 즐거리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원으로서 연구자의 내러티브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이주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주의 형태도 다양하다. 본 연구자는 중국동포 출신으로 19년 전 중국에서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다. 연구자는 유학생 시절에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10년 넘게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하여 세부 전공으로 다문화교육전공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석사과정 유학생 시절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구자는 졸업과 동시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였기에 홀로 한국 생활문화에 편입되게 된다. 2년간의 유학생살을 통하여 언어 그리고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하였지만, 결혼 그리고 바로 이어진 출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새로운 생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멀리 떨어진 친정, 그리고 시댁도 멀리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였기에 새벽에 출근하였다 밤늦게 귀가를 하였다. 이에 가사와 양육의 부담은 고스란히 연구자의 몫이 되고 말았다. 비싼 국제 전화비용, 그리고 시댁과의 물리적 심적 거리감,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연구자는 고립된 상태에서 육아서적에 의존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이르렀다. 1년 반 지속된 이국타향에서의 외로운 육아전쟁은 연구자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고 자존감 또한 바닥을 치게 만든다. 육아에 대한 자신감 상실 그리고 남편의 창업으로 인하여 연구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된다. 남편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자 연구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초등학교 방과 후 중국어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또 직접 중국어학원을 운영하였다.

2006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자는 ‘중국에서 시집온 여자’ 라는 애매모호한 명칭과 그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에 공감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자신의 정당한 정체성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연구자는 적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기에 이르렀

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연구자는 다른 나라 그리고 고향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어울리며 동질감을 느끼고 이국 타향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은 듯한 편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시대이나 지역사회 무시나 편견에 대한 불만됨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연구자가 만났던 한 결혼이주여성 은 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었다.

시대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가 미용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한다니 다 못 판다고 안된다고 했어요. 그거 한국사람도 따기 어려운건데 니가 외국에서 와서 어떻게 딸 수 있겠냐고요. 설마 따더라도 누가 너한테 가서 머리를 하겠냐고. 저는 그래서 꼭 따려구요. 한번에 안되면 두 번 세 번해서 딸 때까지 하려구요. 보여주고 싶어요. 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한국사람이랑 똑같이 할 수 있다는거를 보여줄 거예요.(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013. 10)

연구자는 당시 그녀의 당찬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또 2년 뒤 그녀의 카카오톡 사진을 확인했을 때 미용사 자격증을 자랑스럽게 올린 사진을 보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격려해주었다. 또 연구자와 함께 바리스타 공부를 하던 한 결혼이주여성은 한식 요리사 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나 한국말 잘 못한다고 엄청 무시했어요. 근데 한식 요리사 자격증 시험 봤는데 필기시험 젊은 애들 다 떨어졌어요. 저는 합격했어요. 애들 공부 안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붙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중국 결혼이주여성, 2014.05)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는 인정의 부재에 대한 상처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니면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시에 대한 공감과 토론들은 오늘날 연구자가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기초가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중국동포 출신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계기는 바로 전국을 들쭉이게 만든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이었다. 당시 살인수범의 잔인함과 함께 오원춘의 중국동포 출신이 매스컴을 통해 부각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중국동포 출신에 대한 혐오감정이 들끓기 시작한다. 오원춘 사건은 당시 ‘인육 루머’로 그리고 대학교 축제에서 ‘오원춘 세트’가 나올 정도로 중국동포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 급격히 자신감을 잃게 하고 한국에서의 삶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곧 사춘기 진입을 앞둔 큰딸의 말은 연구자에게 더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엄마 애들이 그러는데 10월 10일은 ‘인육 데이’래. 중국 사람들이 한국사람 고기 먹는 날이래(2012. 09).

한국 사회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미디어를 타고 점점 고착화 되어가고 있었고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비하 발언들이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었다. 영화 ‘황해’, ‘해무’ 등 이미지를 통해서 중국동포 이미지는 살인마로 부각되었고, 중국동포 보이스포싱 집단을 상징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황해’에서도 중국동포에 대한 비하의 모습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연구자는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녀의 학부모들 앞에서는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곱씹기식 교제를 하고 있었다.

해외이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그리고 이국 타향에서의 출산, 자녀 양육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연구자가 중국에서 성장하면서 가졌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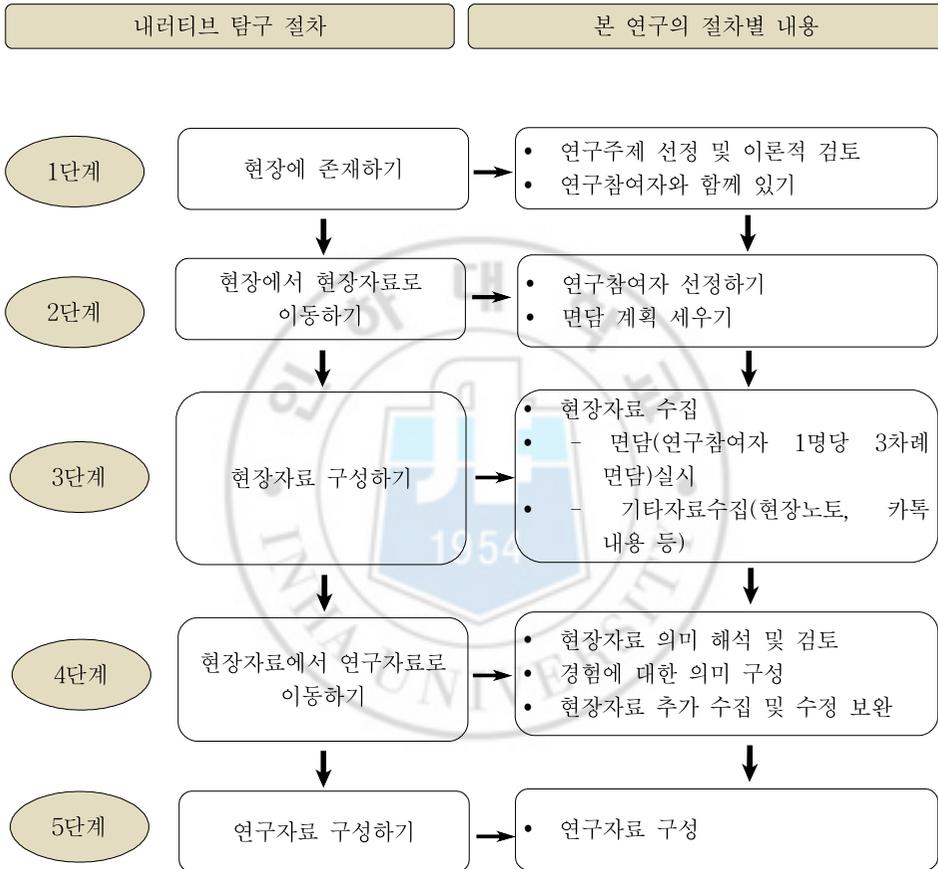
고의 틀과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연구자의 이주민으로서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은 연구자가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을 뛰게 만든 계기들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연구자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현상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관심이 연구자를 다문화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한 다양한 사연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났던 결혼이주여성의 당찬 모습들이 연구자가 인정투쟁 이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즉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정체성과 본인이 느끼는 자아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위로서 생활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주류사회를 향하여 자신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 삶 자체가 인정을 받기 위한 치열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1.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출발하였기에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다. 즉 연구자는 출신 특성상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과 성, 인종, 계급적으로 산 경험(lived experiences)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 및 언어에 익숙하기에 그들의 언술을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었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 즉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절차 중 1, 2단계인 가) 현장에 들어가기: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와 나)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이 두 가지 단계가 이미 일상 생활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연구자가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

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선행연구 고찰, 참여자 선정, 심층면담, 면담자료의 전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른 연구의 절차는 다음 <도표 III-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절차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연구 목적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는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중국동포 이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 다문화 담론과 중국동포 이주민에 대한 담론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Honneth의 인정투쟁의 이론에 대한 철학적 배경에 대한 학습 및 국내 이주민관련 인정투쟁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연구하고자 하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현장에 존재하기’에서 이미 그 현장의 경험자이고 연구참여자들도 모두 연구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이었다. 연구자는 그들 중 의도적 표본추출의 방법에 따라 선정 기준을 정하고 모두 5명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3회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 시에는 생애사적 내러티브 인터뷰 방법인 유년기 학창시절, 이주 전 경험 그리고 이주 후 경험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중심질문인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로 진행하였다. 즉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인정투쟁의 양상들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미친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그들의 충돌된 다문화 경험 실제의 산 경험(lived experiences)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원재연, 2010)

네 번째 단계는 심층면담 후 녹음된 면담내용을 그대로 전사(transcribe)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세 번째 절차인 다)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이다. 전사는 면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참여자와 공유된 비언어적 소통의 내용을 최대한 살려 전사본에 반영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주제(theme)를 구성하여 이를 해석하게 된다. 여기서 심층면담, 면담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은 참여자별로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현장자료와 연구자료를 오가면서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였

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라)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단계이다.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현장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수정 보완을 하였으며 보완 인터뷰를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다각화하고, 심층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동료연구자 및 참여자를 통해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과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논의하였다.

1.4.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를 탐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때, 연구의 기반이 되는 사례 수는 각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잡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Dukes(1984)는 면담의 질과 분석의 과정을 고려해 연구 참여자의 수를 3~10명으로 할 것을 권장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5명으로 설정하였다. Creswell(2007)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구할 특정 현상이나 탐구를 위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들려 줄 수 있고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한 나이, 성별, 사회적 역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적절성’ 과 ‘충분함’ 이라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purposeful selection) 하는 전략을 취한다(Maxwell, 2009).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가 갖는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력은 연구 참여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Patton, 1990, 2005).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강조되는 탐구방법이 내러티브탐구이다. 즉, 일종의 대화(dialogue)로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따라서, 이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지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지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에서 혼인 기간,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같은 중국 출신이지만 중국 한족과 조선족에 대하여 다 같이 중국인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한족과 조선족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은 다른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방미화, 2013). 또한, 중국동포들은 언어 문화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부인과 외부인의 경계에 서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인정의 훼손 경험과 나타나는 인정투쟁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10년 이상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는 그들이 가정에서 남편,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혼 후 10년 이상 된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그들의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인정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슬하에 학령기 자녀를 한 명이상 양육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학부모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려고

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E는 연구자가 한국생활에서 만난 첫 번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었다. 연구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고 한국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한국에 홀로 남게 되었다. 연구자가 생활한 주변에서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을 만나기 힘들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E는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그는 야무진 성격에 일숨씨가 뛰어났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C는 2011년 여성인력센터 요리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이다. 붙임성 좋은 연구참여자는 첫 만남부터 ‘언니, 언니’ 하면서 친하게 다가왔고 맛있는 중국요리를 하여 집으로 초대하는 등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연구참여자 B는 연구참여자 C와 같은 고향 친구이다. 연구참여자 C와의 만남은 연구참여자 B를 통해서이다. 당시 연구참여자 C는 중국에서 방금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의 물정이나 사정에 눈이 어두웠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학교만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는 큰딸을 한국에서 학교에 보내야 하였기에 한국의 학교 사정을 몰라서 연구참여자 C의 소개로 연구자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다.

연구참여자 D는 연구참여자 E와 1999년에 함께 한국에 연수를 온 사 이로 연구참여자 E의 소개로 연구자와 함께 2011년 또 다른 요리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그는 당시 직장을 다니다 잠깐 쉬고 있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중국동포 출신이라는 동질감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밥 먹고 차를 마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참여자 A는 연구자가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연구참여자 B를 인터뷰하러 갔을 때 만난 사촌 여동생이었다. 그는 연구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니 적극 “언니, 나도 해줄게.” 하면서 인터뷰에 자발적

으로 응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였고,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지 10년째 였다. 또 초등학교 2학년인 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연구자가 정한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국 사회에 자신들을 알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터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었다. 심지어 괄괄한 성격의 연구참여자 B는 “언니, 몇 명 필요해, 말만 해. 내가 다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연구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연구자의 연구에 많은 응원을 해주었고 연구자가 수시로 카톡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질문할 때마다 적극 대답을 해주었다.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조선족 마을에서 생활하였기에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은 20대에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을 만났거나 20대에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교체하였기에 10년 이상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대체로 연구참여자 모두 한국어를 구사함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때문에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였고, 중간중간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고향 사투리나 중국어 표현들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바꾸어 전사를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인터뷰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고 영어 알파벳으로 기록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 <표Ⅲ-2>과 같다.

<표 III-2> 연구참여자 별 특성

구분	나이	남편 나이	국적 (귀화년도)	출신지	결혼일자	자녀 (나이)	한국거주 기간
연구참여자 A	35	43	한국 (2009)	흑룡강성 목단강시	2007. 12.	1남(9)	11년
연구참여자 B	37	46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2000. 11.	1남(17) 1녀(12)	초기 1년, 후기 5년
연구참여자 C	37	45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10년 이상 (미상)	1남(12) 2녀(11, 8)	15년
연구참여자 D	35	44	한국 (2003)	길림성 용정시	2001년. 11.	1남(15) 1녀(12)	18년
연구참여자 E	37	46	한국 (2003)	길림성 연길시	2001.11. 18(중국) 2002.04. 21(한국)	1남(15) 1녀(14)	18년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5명이며 나이는 30대 중후반이다. 그들은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8살~9살이었다. 그들은 결혼기간은 모두 10년 이상이며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그중 연구참여자 B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고 자녀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불법체류 과거로 인해 혼인신고가 지연되어 결혼식을 뒤늦게 한 경우로 정확한 결혼시기를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중 한 명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 다른 세 가정은 시댁 가까이 살고 있었고, 한 가정은 시댁이 시골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결혼 전에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고, 한국인 남편과는 연애결혼을 하였다. 낭만적 사랑에 의한 연애결혼이라는 요인이 그들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이 달랐지만, 현재 대부분 한국에서 학령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별 출신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만 35세이며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출신이다. 시골에서 3남매 둘째로 자란 그는 철이 빨리 들었다. 가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중학교 졸업 후 그는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게 된다. 당시 중국 청도에 한국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는 청도 한국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회사 출장으로 한국에 오게 된 그는 한국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다. 8살 연상인 남편의 착한 모습에 끌린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줄곧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었다. 결혼 후 그는 꾸준히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아이가 있어서 정규직보다는 용돈별이가 되는 타임 아르바이트가 좋다.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서로 배려하기’로 정리할 수 있었다.

(2)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은 만 37세이며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출신이다. 3남매 장녀로 자란 그는 어려운 살림에도 억척스럽게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역시 중국 청도에서 일하는 외삼촌 소개로 한국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자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 심천에서 그는 현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자재관리를 맡게 되었다. 그는 공장에서 중국에 처음 온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공장 직원들의 소개로 중국어를 가르치게 된다. 자연스럽게 친해진 두 사람은 중국에서 결혼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는 중국에서 시아버지 회사 일도 돕고 남편 회사 일도 함께 도우면서 사업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시어머니의 현명함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며, 시어머니를 롤모델로 삼아 시어머니한테서 많이 배웠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는 중국에서 시댁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서로 돕고 살다가 시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온 식구가 한국에 오게 된다.

(3)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C는 37살이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8살 차이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 한 명, 딸 둘도 초등학생이다. 그도 중국 후룡강성 목단강 시골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그때 계서에 있는 일본어학당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된다. 공부를 마치고 일본어 자격증으로 취직을 한 사촌오빠가 일하고 있는 심천으로 가서 일본회사에 취직한다. 3년 뒤 심천에 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고향에 돌아와서 병원생활을 몇 달간 하게 된다. 퇴원 후 그는 당시 한국에 나와 있는 어머니 초청으로 한국행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C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중국어, 일본어 능력을 인정받고 사무직으로 전환하여 통번역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기에 이른다. 연구참여자 C는 시골에 계시는 홀시어머니와 자주 부딪치는 관계라고 말한다. 성격이 드센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내려갈 때마다 며느리를 구박하는 편이다. 연구참여자 C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지만, 명절 김장철 철철이 시댁으로 가는 편이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도 미리 근처 농수산물시장에서 장도 손수 보고 시댁에 내려가서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드리는 부지런한 며느리였다.

(4)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D는 35살이다. 중국 길림성 연변 용정시에서 태어났다. 중국에서 직업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산업연수로 한국에 있는 공장으로 오게 된다. 그는 연수 시절 친하게 지내던 회사오빠와 결혼을 하게 된다. 남편은 나이가 연구참여자보다 9살이 많았다. 신혼 시절 집이 없어서 시댁에서 10개월 정도 함께 살았고 그 이후로 분가하여 생

활하고 있다. 시댁과의 관계는 서로 관여하지 않는 냉정한 관계였다.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이듬해부터 직접 김장을 할 정도로 일습씨가 뛰어났다. 그의 말로는 시어머니의 김장은 짜고 맛없어서 그냥 직접 담아 먹는다고 했다. 그는 결혼 후에도 계속 가구회사에서 일하였다. 최근에는 집 근처에 작은 중국음식점을 차렸다. 아이 둘은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그는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장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다.

(5)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E는 나이가 37살이다. 고향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이다. 부모님은 모두 공무원 출신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구참여자는 마땅한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친척의 소개로 한국 회사로 연수를 오게 된다. 연구참여자 E와 D는 함께 인천에 있는 자재공장으로 연수를 오게 된다. 남편은 역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연구참여자의 남편은 9살 연상이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중학생 아들과 딸을 두고 있고 시댁과 가까이 살고 있기에 자주 다니는 편이다. 결혼하고 연구참여자는 10년 넘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남편 월급으로 적금을 부어가며 알뜰하게 살아왔다. 얼마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평수가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고 손재주가 뛰어났다. 1년 전 아는 동네 엄마 소개로 화장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얼마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연구자가 만났을 때 연구참여자는 모모 화장품 회사 연구원이라는 명함을 자랑스럽게 건네주었다. 그는 새로 자리 잡은 직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그동안의 주부 생활과 또 다른 삶의 시작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30대 초, 중반이었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평균 8살이었다. 그들은 국적법 개정 후인 2000년경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결혼 후 2년 뒤에 3명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들은 모두 생활수준이 중산층 수준이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1명 외에는 남편 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한편 그들 중 3명은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시골마을에서 살았고, 2명은 중국조선족 최대 자치주인 연변 지역 출신이었다. 그들은 모두 중국에서부터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였기에 초반 언어적응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이주민들보다는 쉽게 언어적인 부분에서 적응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자녀 연령은 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생까지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2.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중국동포 결혼이주 여성 출신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선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허락을 받고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다음 <표Ⅲ-3>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Ⅲ-3> 질문지 구성

범주	대분류	세부내용
결혼 전	유년기	부모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네 소개, 형제 관계, 부모와의 관계들은 어떠했나요?
	학창 시절	공부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창시절 성격은 어떠했나요? 선생님의 학창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왜요?
	졸업 후 취업	이주전 직장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세요.
결혼 후	결혼	결혼 경심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혼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이주 향후이주계획 본국과의 연계	한국에 계시는 또 다른 가족은 있으신가요? 또 다른 이주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족 초청을 하셨나요? 본국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자녀 출생과 교육	출산 경험, 산후조리, 초기 양육 환경은 어떠했나요? 학령기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결혼 후 생계	결혼 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시댁 가족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결혼 후 가족관계	
결혼 후 지역사회 네트워크	친구관계 출신국 네트워크 이웃관계 학부모 네트워크
직장에서 동료관계	일 경험
국적 변경	국적 변경 동기, 과정 국적 불 취득 이유 향후 계획
국적 및 민족과 어머니 정체성	한국인, 외국인, 다문화 한국엄마, 외국엄마 인식
정체성	이주와 모성의 결합 어머니 정체성이 주는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	다문화관련 활동참가 경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 친구추천 여부 자녀의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

위 <표Ⅲ 1>과 같은 반 구조화된 연구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은 Seidman(2006)의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 방식을 기본 틀로 하여 진행하였다. Seidman(2006)은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각기 다른 초점을 가지고 3회 정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면담을 3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면담에서 개인적인 생애적인 경험들, 즉 한국에 오기까지 본국에서 경험 그리고 이주 동기 한국에서의 결혼 및 생활에 대하여 생애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하였다.

두 번째 면담에서는 연구자의 연구주제인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한국 사회 다문화 현상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질문하였다. 연구자도 같은 결혼이주여성 출신이기에 서로 공감하고

토론하며 생각을 넓히고 경험들을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생활까지 연구자에게 세세히 이야기 해주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 및 연구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전사기록에 넣지 않았다. 이렇듯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4명은 서로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이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실 된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 면담에서 연구자가 논문을 실제로 작성하면서 연구참여자와 별생애사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또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족, 지역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며 어떤 요인들이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지 경험의 의미들에 대하여 재확인 하였다. 또한,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 과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재조망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와 별 면담 일정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연구참여자와 별 인터뷰 일정

구분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3차 인터뷰	추가인터뷰
연구참여자와 A	2017.01.06	2017.01.09	2017.03.13.(전화)	수시로 sns 또는 전화
연구참여자와 B	2017.01.06	2017.01.11	2017.03.07	수시로 sns 또는 전화
연구참여자와 C	2017.01.12	2017.01.17	2017.03.07	수시로 sns 또는 전화
연구참여자와 D	2017.01.13	2017.01.18	2017.03.13.(전화)	수시로 sns 또는 전화
연구참여자와 E	2017.01.10	2017.01.14	2017.03.13.(전화)	수시로 sns 또는 전화

면대면 인터뷰는 대부분 연구참여자와 거주지 근처 조용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이기에 자녀들 동반하지 않고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대화에 집중 할 수 있는 장소로 커피숍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와 A, B, C와의 인터뷰는 오전 시간대를 이용했고 주로 연구참여자와 집 근처 조

용한 커피숍을 추천받아 함께 갔다. 면담 시간은 2시간가량 되었고 가벼운 수다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가정이나 시댁과의 문제들도 함께 고민을 나누던 사이라 면담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 초면인 연구참여자 A도 연구참여자 C의 사촌 여동생이었기에 서로 얼굴은 처음이지만 간간히 들어서 가정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음식점을 하는 연구참여자 D는 휴일 없이 매일 음식점영업을 하기에 점심식사 후 조용한 오후 시간에 그의 음식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갓 차린 음식점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기에 인터뷰가 방해받거나 중단되진 않았다. 녹음기는 식당에 들어가서부터 동의를 얻고 녹음을 시작하였고, 식당을 나와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녹음을 하였다. 점심시간이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오후 늦게까지 긴 시간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연구참여자 E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커피숍에서 1차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차 인터뷰는 연구자가 당직인 토요일 오전 연구참여자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녹음했다.

3차 인터뷰는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연구참여자 B와 C는 커피숍에서 같이 만나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B와 C는 친한 고향 친구 사이였기에 서로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풍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A, D, E는 전화통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화 통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가량이었다. 전화통화 내역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자료분석 및 해석 과정은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

브 탐구 방법의 절차 중 네 번째 단계인 ‘현장자료에서 연구자료로 이동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분석 단계에서 연구자는 두 가지 결과물을 산출해내게 된다. 하나는 삼차원(4가지 방향성)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을 드러내는 재구성된 내러티브를 쓰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참여자)의 경험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다시 쓴 이야기는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는 오랫동안 권위와 타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이 된다(Conelly & Clandinin, 1990). 즉 모든 경험은 현재 순간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여 그것을 미래 경험으로 실어 나른다. 연구자에 있는 사건, 사람, 그리고 사물들은 시간적으로 전이 중에 있으며,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그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기술한다(D. Jean Clandinin, 강현석 외 역: 106).

또한, 하나의 결과물은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경험의 의미들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경험의 패턴을 볼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에서는 내러티브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보려고 했다. 즉 Dewey의 상호작용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즉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던 그들의 상황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Clandinin과 Connelly(2000)에서는 개인적 상황을 감정, 희망, 바람, 미적 반응,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기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적 상황은 개개인의 맥락을 형성하는 외부적 상황들, 환경, 주변 요소들과 영향력들을 의미한다.

2.2 자료분석 및 글쓰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료분석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자료를 전체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분석한다는 것이다(Ezzy, 2002). 연구자는 자료분석을 위해 연구문제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정투쟁에서 인정윤리의 세 가지 유형을

떠올리면서 면담자료 전사본과 연구저널을 반복해서 읽어나갔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중요 경험들을 아우르는 영역을 찾고 영역에 따른 하위 주제를 정했다. 본 연구는 인정투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인정투쟁의 큰 틀인 사랑, 권리, 연대의 3개 영역을 큰 영역으로 정하고 영역에 따른 하위 주제를 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풍부한 인정투쟁 경험 중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주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내어 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험은 인정과 관련된 것들을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본 연구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때 분석은 염지숙(2011)의 제안대로, 단어나 주제어에 초점을 두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맥락과 상황, 일어난 일, 인물 등을 삶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내러티브적으로 보고자 했다. 더불어 5명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속에서의 인정투쟁 경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내러티브 패턴과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자료분석의 틀은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공간 개념을 토대로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공간은 시간성,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간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연구자는 먼저 시간성에 중심을 두고 IV장에서 그들의 생애 맥락 속에서 삶을 결혼 이전, 그리고 결혼이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즉 그들의 중국에서의 인정획득의 삶이 국제결혼으로 인해 인정투쟁의 형태로 증폭되어 나타나는 모습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V장에서는 이들이 결혼이주 후 한국사회에서 인정투쟁의 양상 중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상호작용의 대상을 중심으로 사랑, 권리, 연대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공간속에서 구성하였다. 이러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 속에서 인정이론에서 도출해낸 큰 영역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전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사랑의 차원에서는 가족관계, 지역주민 사회, 직장 세 분류로 나누고, 권리차원은 정치, 경제, 문화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연대차원인 세계질서 영역은 생활공동체 연대와 초국적 네트워크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눈 분석의 범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II-4>과 같다.

<표 II-4> 분석의 범주

구분		하위구성 요소	
사랑	가정	지역	직장
권리	정치	경제	문화
연대	생활공동체	초국적 네트워크	

이렇게 범주를 나눈 뒤 이야기 구성은 연구자가 수집한 여러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체험으로부터 핵심적인 것을 추려내어 독자의 이해와 상상력에 호소할 수 있도록 서로 단절되어 있는 연구 자료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면서 하나 혹은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이야기로 재구성해내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글쓰기 자체가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연구텍스트의 실제적인 형식에 차이를 가져다준다. 내러티브에서의 글쓰기는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염지숙, 2000). 내러티브 탐구자는 초기부터 글쓰기 유형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어떤 유형으로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대략적인 그림만을 그려보고 글쓰기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를 주거나 또는 확장시킬 수도 있다(염지숙, 2000).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연구에서 글쓰기는 학문적이면서도 시간성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텍스트는 사실상 복잡적이고 유동적인 토대 위에 지어진 그리고 모호한 모양으로 형성된 ‘웅장한 고안물(grand contraption)’이다. 내러티브 탐구의 텍스

트는 어떤 부분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이 주를 이루고, 다른 부분은 문학적 내러티브 구조⁵⁾들이 뒤섞여져 만들어내는 구성물이나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논쟁의 주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부분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풍부한 내러티브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배경에서 나온 인정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시간성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구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였으며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결과는 그 안에 담겨진 새로운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형상화하고 있는 삶의 개연성(plasibility)을 독자들에게 대신 검증해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발휘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 결과의 문학적 활용은 일반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의 대응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결과는 특정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견주어서 상상하고 되돌아 볼 수 있게 하고, 의미로 다가가 위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로 하여금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점도 내러티브 연구방법의 의의이다.

5)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문학에서의 내러티브 구조의 예로 다음의 세 학자의 견해를 든다.
첫째, Bruner(1990)의 논리 과학적인 실증주의와 내러티브적인 삶의 방식.
둘째, Chatman(1990)의 세가지 텍스트 유형(내러티브, 기술, 논쟁).
셋째, Wolcott(1994)의 질적 자료의 변형 방식(기술, 분석, 해석).

3.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은 연구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자료 수집과 분석단계는 연구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Creswell, 2007). Hammersley(1988)는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설명은 근거가 있으며 진실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연구자가 연구현장에 존재하였기에 왜곡됨 없이 가장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같은 처지의 결혼이주여성이었고 익숙한 사이였기에 별도로 라포 형성이 필요 없었고 연구문제인 결혼 후 생활 속에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부터 서로 고민을 털어놓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진실된 이야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의 용어와 기준을 다른 연구 형태들의 용어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좋은 내러티브’는 설명적(explanatory)이고 읽는 이를 이야기에 초대(invitational quality)할 수 있어야 하며 이야기의 신빙성(authenticity)과 적절성(adequacy) 그리고 그럴듯함(plausi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연구자는 삼차원적 탐구 공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wakefulness)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5명의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들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가 된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자는 학위과정 중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였고, 방학마다 학교에서 열리는 질적연구방법론 캠프에 모두 6회 참가하여 질적연구방법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또 학위과정 중에 질적 연구방법으로 소논문을 6편 작성하여 국

내공인 학술지(등재후보이상)에 게재함을 통하여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다져나갔다.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다. IRB는 2016년 10월 05일 심의신청을 하였고, 2016년 11월 25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승인 번호는 161005-2A이다. 심의과정에서 1차 신청한 연구목적 필요성 부분에서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징 소개 표에서 체류 비자문제 난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라는 지시사항을 받았고 지시사항대로 연구참여자 개인별 특성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체류비자 유형 부분은 삭제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할 때 연구승인을 받은 연구참여 동의서를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였고,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밝히고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 참여 의사가 없거나 중단 의사가 있으면 즉시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중단 시에도 연구참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밝혔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사례로 소정의 상품권을 회당 지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구참여 확인을 위하여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각각 한 부씩 보관하였다. 2차 면담 후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3차 인터뷰 시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였고 공개 허락한 부분만 연구에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자료분석에 있어서 연구자는 연구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연구참여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주관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을 진행할 때는 연구자의 자세로 감정적인 서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료분석의 의미도출단계에서 지도교수와 주기적으로 검토 받고 수정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질적연구 콜로키엄 수업과 선후배와의 질적 연구방법 세미나에서 매주 발표를 통하여 논문

집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학술대회 발표, 그리고 학술지 게재를 위한 심사과정을 통해 다각적, 객관적 검증을 받았다.



IV.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안에는 그 사람의 전반적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연구가 갖는 연구 주제는 연구참여자의 인생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전 생애를 관통한 인정획득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들의 이주 전 중국에서의 삶 그리고 한국 이주 경험 그리고 결혼 이후까지의 생애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면서 그들의 인정획득을 위한 노력이 이주 후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변화를 연구자의 말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성장 과정과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이야기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연구참여자 별로 기술하였다.

1. 연구참여자 A: ‘배려와 인내’

연구참여자 A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1년 된 30대 중반의 야무진 성격의 결혼이주여성이다. 그의 생애 주기별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생애 주기별 특징

구분	생애 특징	
결혼 이전	어린시절	시골마을, 새아버지, 3남매 중 둘째딸
	학창시절	시골 조선족 초등학교, 도시 기숙형 중학교
	사회경험	청도 한국기업, 악세사리 회사 취직, 대리 승진, 스카웃
	연애기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불법체류로 인한 빠른 결혼
결혼 이후	결혼 초기	시부모와의 동거, 소외감, 시어머니 맞춰주기
	자녀 양육기	시부모와의 사소한 다툼들, 학교 엄마들
	취직 그리고 학업경험	타임 아르바이트, 어느덧 친해진 식당 언니들
	가정의 위기	남편의 무리한 투자, 가족의 협력

1.1 결혼 이전기

A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⁶⁾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조선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삼남매 둘째딸로 철이 빨리 든 편이라고 한다. 시골 마을에서 자유분방하게 자랐기에 봄이면 친구들과 앞산

6)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은 중국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선족 자치향인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에서 산딸기를 따 먹고, 겨울이면 썰매 타고 팽이치고 놀았던 기억을 어릴 시절 즐거웠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새아버지로 연구참여자가 5살 때 아이 셋 딸린 엄마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 자신의 세 아이를 눈칫밥 먹이기 싫어서 새아버지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키고 어머니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워주었다. 연구참여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따르는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아버지한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새아버지는 친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 한번 대지 않고 친자식처럼 3남매를 대해주셨다.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새아버지인 줄도 모를 정도로 아버지는 연구참여자에게는 좋은 분이였다.

연구참여자는 목단강 시골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는 도시에 있는 기숙사형 중학교를 다녔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기에 어려서부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형편 상 삼남매를 계속 공부시키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연구참여자는 남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자 더 이상의 공부를 포기하고 취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연구참여자의 언니는 직업전문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연구참여자는 삼남매 중 둘째라 가정형편을 알고 남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였다. 그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 어리지만 일찍 철이 든 그는 양보와 배려를 할 줄 아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중학교 졸업 후 연구참여자는 일자리를 찾아 중국 산둥성 청도시로 갔다. 당시 중국 청도에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청도에서 한국 약세사리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회사생활은 연구참여자의 말 그대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다. 그 노력의 대가로 어린 나이에 회사에 갔지만 3년 만에 평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였다. 손재주가

있는 연구참여자는 샘플 개발실에서 일하면서 직접 악세사리 디자인도 했다.

낮선 타지에서 살아가기 위해 연구참여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또한, 그 노력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는 노력을 통한 인정획득의 성취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한국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으로 출장기회가 생겼고 한국에 오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그는 중국에서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월급이 그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큰 동기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남편은 연구참여자보다 8살 연상이었다.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첫인상이 너무 착해 보였다. 남편은 매일 같이 회사일이 끝나면 연구참여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집까지 배려해주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연구참여자 직장까지는 고속버스로 2시간가량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매일 한결같이 연구참여자를 만나러 식당으로 찾아왔다. 남편의 정성에 감동한 연구참여자는 교제한지 4개월 만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결심한다. 남편도 나이적은 나이가 아니고, 연구참여자는 당시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마음이 정해지자 결혼을 서둘렀다.

1.2 결혼 이후기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시댁의 반대는 별로 없었다. 35살 넘은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아들이 결혼문제로 걱정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 심지어 연구참여자가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승낙을 하였고,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별금도 시댁에서 대신 대주었다. 시댁의 거부감 없는 며느리
맛이의 모습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신혼 초부터 시댁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다.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는 시댁이 집도 크고 방도 있는데 굳이
나가서 살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시부모님과 정도 불
일 겸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어찌면 연구참여자는 외로운
외국 생활에서 부모의 따스함을 시부모님한테서 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시부모님과의 동거, 그는 적극적으로 시부모
님과 맞추어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시작한 시부모님과의 동거는 10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사소한
부딪침은 있어도 서로 배려하고 참아가면서 오순도순 화목한 모습이었
다. 시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의 노력은 배려와 인내였다. 연구참
여자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출산하였다. 손주의 탄생은
집안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시부모님의 인정획득에도 큰
몹을 하였다. 손주를 애지중지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참여
자는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더 든든해짐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좀
크자 연구참여자는 손주를 아끼고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
에, 가정에서 두 사람이 애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식당에서 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시부모님한테 손 내밀지 않고, 용돈벌이도 하
면서 자녀 교육비도 보태려는 욕심에서였다.

연구참여자 A의 결혼생활에서 위기는 남편이 무리하게 벌린 사업이었
다. 남편은 부인 몰래 친구와 동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지었다. 카드사 압류가 들어와서야 사건을 알게 된 연구참여자는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집안의 적금을 싹 다
털어서 함께 경제적 위기를 넘겼다. 어려울 때 그녀는 시부모님께도 말
씀드려서 시부모님의 도움도 받았다.

가족의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연구참여자는 시부모님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시부모님과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졌다. 아들의 잘못으로

위기를 겪었기에 며느리 입장에서 연구참여자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 시어머님 앞에서 더 당당해졌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아들은 외동아들이라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여느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 수업도 듣고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녀육아 정보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선배 언니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같은 반 어머니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었다. 동네에서 비추어지는 그녀의 삶은 여느 한국 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이었다.

연구참여자 A는 결혼 후 2년 뒤 바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불법 체류 시 체류 불안함을 겪어 보았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선택하였다. 또한 국적취득을 통해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께 자신은 한국인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 국적취득은 그에게 한국인 정체성 형성에 큰 계기가 되었고, 한국이라는 사회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국적취득 후 그는 바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한다. 이주민으로서의 불안한 위치들이 오히려 그가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들이 되었다. 가정에서의 인정을 넘어서 사회적 권리 확장의 모습들을 통해 그가 국적취득이라는 형태를 통해 한국인의 부인 그리고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의 어머니로서 한국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모습의 인정투쟁의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정,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권리주장을 하기 위한 자기가치의 실현이다.

2. 연구참여자 B: ‘순종과 헌신’

연구참여자 B는 37세로 연구참여자 A와 마찬가지로 흑룡강성 목단강시 시골 마을 출신이다. 그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중국에서 10년동안 생활하였고 한국으로 이주한지 6년이 되어간다. 그의 생애 주기별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Ⅳ-2>과 같다.

<표Ⅳ-2> 생애 주기별 특징

구분	생애 특징	
유, 초년기	가난했던 어린 시절, 삼남매 중 맏이, 몸이 늘 안 좋았던 아버지, 억척스러운 어머니	
결혼 이전	학창시절	시골 조선족 초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계서 일본어학당, 어머니의 한국행
	사회경험	산둥성 한국기업 자재관리, 고단했던 회사생활, 광둥성 동관에서 한국회사 취업
	연애기	회사에서 만난 남편, 남편과의 교체, 적극 결혼을 주선 해주신 시어머니, 무서운 시할머니
결혼 이후	결혼초기	시아버지의 사업 돕기, 중국에서 아파트 구입
	자녀양육	임신투혼, 아들출산
	구직 및 학업경험	임시노무직,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대학진학
	위기기	한국으로 이주, 불안한 남편의 직장, 참고 기다려주기

2.1 결혼 이전기

연구참여자 B는 연구참여자 A와 마찬가지로 흑룡강성 목단강시 시골 마을 출신이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연구참여자는 3남매 중 장녀로 성장하였다.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아버지와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연구참여자는 맏딸이어서 일찍 철이든 편이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마치고 중학교는 도시에 있는 기숙형 학교에서 다녔다. 아버지는 동네호인이셨으며 겨울에는 산으로 사냥하러 다니고, 여름에는 낚시를 즐기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맏딸로서 연구참여자는 막내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적 기억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시골에서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아버지는 대를 이어줄 아들의 탄생을 너무 반기셨다. 억척스러운 어머니 덕분에 가난한 살림에도 삼남매는 굶지는 않았지만 늘어만 가는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은 편이어서 어머니가 집안 경제를 떠맡아 하셨다. 연구참여자 기억 속 어머니는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였다. 봄에는 자기 밭 모내기를 서둘러 끝내시고 일손이 부족한 집 모내기를 도와주고 일당을 받아오신다. 또 여름에는 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면서 자녀들 학비를 마련하셨다.

연구참여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어머니는 돈을 벌려고 당시 동네 사람들처럼 한국으로 일하러 나오셨다. 어머니는 한국생활 1년 동안 억척스럽게 일하였고, 한푼두푼 알뜰하게 모아 전부 집으로 송금하였다. 그때 어머니가 한국에서 1년간 번 돈으로 연구참여자 가족은 시골 흙집에서 벽돌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억척스럽게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연구참여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본어 학당에 들어가 일본어 공부를 하였다. 그 시절 일본 어자격증을 받으면 연해지역으로 진출하여 일본기업에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그녀가 부모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남동생을 위한 자기희생이었다. 장남인 남동생을 귀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맏딸인 자신이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부욕심을 버리고 취직을 하여 돈을 버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당시 중국 후룡강 계서에서 운영하는 일본어 학당에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웠다. 일본기업들이 중국 연해지역에 공장을 많이 세

우면서 월급도 중국의 공장보다 훨씬 많이 지급했기에 연구참여자에게는 가난했던 시골을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탈출구였다.

연구참여자는 일본어학당에서 1년 6개월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삼촌 소개로 중국 산둥성 청도에 갔다. 하지만 그는 청도에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에 취직을 한다. 당시 그는 청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외삼촌댁에 함께 머무르면서 한국회사에서 자재관리를 하였다. 어린나이에 취직은 하였지만, 회사생활은 만만하지가 않았다. 아침 8시 출근, 연이은 야근, 새벽 2, 3시까지 일하다 지친 몸을 끌고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연구참여자는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식당을 하는 숙모를 도와 장을 보고 야채를 다듬으면서 식당일을 거들었다. 첫 취직 경험, 그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서 신임을 얻게 된다. 또한, 집을 떠나 삼촌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불안감도 그가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집을 떠나 도시에서의 기숙사 생활, 그리고 계서 일본어학당에서의 생활들, 중국 청도라는 낯선 고장에서의 직장 생활들은 그가 나이는 어리지만 강한 자립심을 형성할 수 있는 경력이기도 하다. 낯선 객지에서 친척집에 기거하면서 연구참여자는 치열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1년간 청도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가 다니던 회사가 한국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연구참여자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는 고향에서 한 달간 머물렀지만, 가난한 시골에는 딱히 취직자리가 없었다. 친정부모집에 머물렀지만 집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다. 다행히 외삼촌 지인의 소개로 연구참여자는 다시 직장을 찾아 중국 심천으로 가게 된다. 어린 나이였지만 취직하려는 일념으로 기차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장거리 기차를 일주일 동안 타고 심천에 이른다. 북방에서 자란 그녀가 중국 최남단 심천을 찾아가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성

격이 온순하긴 해도 당찬 면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는 심천에서 한 달간 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직장을 구했다. 그는 처음에는 일본회사에 취직이 되었지만 그쪽 음식이 체질에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국회사 면접을 보기로 결심한다. 어려서부터 중국시골 조선족 마을에서 자랐기에 된장, 김치 등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체질이라 한국음식이 더 몸에 맞았다. 그때 면접에 합격하여 다니게 된 회사가 바로 지금의 시아버지 회사였다. 연구참여자는 청도에 있던 한국회사에서 자재관리를 맡았던 경력으로 새로 잡은 직장에서도 자재부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의 온순하고 성실한 성품이 공장 직원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상사들의 신임을 얻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회사사장의 아들(현재 남편)이 중국공장에 도와주러 오게 된다. 연구참여자는 과장님의 소개로 그에게 회사 일이 끝난 후 중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와 남편은 낮이면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밤이면 또 만나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을 눈치 채신 시어머니는 적극 두사람의 결혼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두 사람의 결혼에는 친절하고 현명하신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한국사람과 재중동포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였고, 다양한 편견들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 하지만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이신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가 아들과의 중국어 수업이 끝나면 늘 따뜻한 차를 주면서 함께 담소를 나누시고 아껴주었다. 며느리감이 마음에 든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의 친정 부모님을 비행기로 심천으로 모셔 와서 심천에서 상견례를 하고, 약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한다.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 부모님께 비싼 호텔에서 숙소도 마련해 드리고,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왕복비행기 요금도 기꺼이 내주셨다. 그렇게 성사된 국제결혼은 결혼식을 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와 남편은 중국 연구참여자 고향에서 친지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하고, 한국에서도 한국친지들을 모시고 두 번의 결혼식을 올렸

다. 결혼 시 연구참여자 나이는 21살이었다. 남편은 연구참여자보다 8살 연상인 29살이다.

남편의 착한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들은 연구참여자가 한국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떨쳐내고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즉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는 한국인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2.2 결혼 이후기

결혼 후 연구참여자는 시댁과 불과 10분 거리에 집을 세 맡아 살게 되었다. 심천에 지인이 없던 연구참여자는 시댁을 매주 다니면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결혼 초, 시댁에는 75세 홀 시할머니가 계셨는데 1년에 몇 개월씩 중국에 오셔서 함께 지내셨다. 연구참여자의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다. 75세 고령이셨던 시할머니는 며느리까지 둔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일삼고, 화가 나시면 욕도 서슴치 않았고, 집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심지어 쫓아낸 며느리가 집에 못 들어오게 집 문까지 걸어 잠그시기도 하셨다. 시할머니 밑에서 험한 시집살이를 겪어서인지 시어머니는 “내 며느리는 그런 시집살이는 시키지 말아야지.” 하시면서 연구참여자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세세히 살림을 가르쳤다. 연구참여자는 시골에서 늘 바쁘게 일만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 후 기숙사생활을 하였기에 부모님과 오랜기간 떨어져 살았다. 객지에서 외로움을 그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따뜻한 가족사랑으로 달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회사도 다니고 시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리고, 남편 사업도 돕고, 또 본인이 한국슈퍼도 직접 운영한다. 그는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시부모님한테 손 한번 내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월급과 사업수익으로 중국 심천 신도시에 아파트까지 장만한다. 그는 중국에서 자신의 언어적 장점을 이용하여 시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남편의 사업도 보조하면

서 시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결혼 후 몇 년 뒤, 연구참여자의 시아버지가 중국회사를 확장하면서 믿을만한 사람한테 자재 구매를 맡겨야 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연구참여자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흔쾌히 도와드렸다. 그의 도움으로 시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현명하고 친절하신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냉정한 사업가형 시아버지는 중국 출신 며느리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연구참여자가 시아버지의 인정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장손의 출산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둘째 아들을 낳고 시아버지의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느끼게 된다. 장손의 출생으로 달라진 시아버지의 태도는 주변사람들에게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연구참여자에게는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노력 그리고 아들의 출산으로 시아버지의 신뢰와 믿음을 얻게 된다.

중국에서 사는 동안 소심한 성격의 남편은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중국 사정에 눈이 어두웠기에 연구참여자가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연구참여자는 남편과 결혼 후 중국에서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생활한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구참여자와 남편 그리고 시댁은 중국에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행히 사업이 번창할 때 샀던 부동산들이 값이 많이 올라서 그 부동산들을 처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시댁이 중국에서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매각 시 어려운 일들은 또 고스란히 연구참여자가 몫이 되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는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기에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시댁에 도움 되는 며느리로 인정을 받으며 결혼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서의 삶은 연구참여자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10년 가까이 되는 중국생활은 남편이나 연구참여자 모두 한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남편은 한국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였

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최근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였다. 연구참여자도 한국에서 학력, 경력 부족으로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 등을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태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생활을 위하여 적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였다. 그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알게 된 계기는 친구 소개였다. 한국에 먼저 온 연구참여자의 고향 친구는 연구참여자를 도와 전세도 구해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함께 다니면서 그의 적응을 도와준다.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자격증 공부도 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취업을 위하여 컴퓨터 자격증도 취득했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교육들을 통해서 취득한 자격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거리가 멀었고, 취업의 문도 쉽게 열리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다른 일을 하고자 고심을 한다. 그는 학력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지금은 검정고시학원을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여 중국어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주로 인한 다양한 결핍들은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노력하게 만들었다. 연구 진행 당시 연구참여자의 큰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다. 한국에 올 때 연구참여자의 큰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큰딸은 중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녔기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초기에 많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참여자는 큰딸을 다독여 가면서 한국 초등학교 적응을 도와주었다. 대안학교도 있었고 다문화 학교도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는 딸이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성장하기를 바랐기에 사춘기 딸을 한국 일반 학교에 입학시켰다. 모녀는 적응의 어려움과 아픔들 함께 겪고 있었기에 함께 나누고 서로서로 다독여가며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고등학생이 된 큰딸은 크게 말썽을 부리지 않고 반듯하게 잘 성장하였다. 중국에서의 오랜 생활로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로

는 중국어학과로 정하고 있다. 딸은 초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학교 다문화 프로그램에 어머니의 권유로 참가하였으나 곧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취급 받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며 다문화활동 참여를 거부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여전히 다문화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고, 다양한 부모교육, 체험활동,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아니라 자신도 무엇인가 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연구참여자의 인정획득을 위한 대상이 단순히 가정을 넘어 사회적인 행동으로 승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아직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완화된 외국인 정책으로 인해 외국 국적이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 않았고, 또 앞으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발전하고 싶은 소망들이 중국국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의 화려하고 성공했던 경험들이 그가 선불리 중국국적을 포기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적취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연구참여자는 언젠가는 바꿀 것 같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적 취득 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대답을 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정착하고 싶은 그의 소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현재 같은 고향친구와 함께 방송통신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진학하였다. 꿈은 한국에서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정 상담사가 되는 것이다. 대학교를 통해 자신의 학력을 신장하고 자격증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환경에 맞는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상 시민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주를 꿈꾸며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은 그의 소망을 엿볼 수 있었다.

3. 연구참여자 C: ‘도전과 나눔’

연구참여자 C는 한국에 거주한 지 15년이 된 올해 37살의 결혼이주여성이다. 그의 생애 주기별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생애 주기별 특징

구분	생애 특징	
유, 초년기	말괄량이 소녀, 가난한 시골	
결혼 이전	학창시절	지켜야 했던 민족의 뿌리, 도시에서 중학교 생활, 중학교 자퇴, 계서어학당에서 일본어 공부
	사회경험	동관에서 일본회사 취직, 건강의 악화, 고향에서의 투병생활, 어머니가 계시는 한국행
	연애기	친구 남편 소개로 만난 남편,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불법체류.
결혼 이후	결혼초기	시어머니와의 갈등, 아파트 구매, 친정의 도움
	자녀양육	세 아이의 어머니, 학교에서 만난 열성적인 엄마
	구직 및 학업경험	화장품회사 영업사원, 부업,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대학진학
	위기기	화물트럭 구매 시 경제적 어려움, 여전한 시어머니와의 갈등

3.1 결혼 이전기

연구참여자 C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 모두 재지계 가난한 시골 농부 출신이었다. 다행히 두분이 억척스럽게 농사일을 하셔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어려서부터 말괄량이에 자유분방한 기질이라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강에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반항적이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많이 혼나고 맞기도 했다. 그런 누나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남동생은 온순한 편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골 마을은 작지 않았다. 중국의 한족 조선족마을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한족 가구가 1,500가구 살았고, 조선족 가구가 500가구정도 모여 살았다. 산재 지역 조선족마을로는 큰 편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를 시골에 있는 조선족학교에서 다녔다. 그는 옆 동네 한족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초등학교를 한족학교로 진학하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가 민족의 뿌리를 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선족 초등학교에 진학을 한다. 초등학교 졸업 후 다른 시골친구들처럼 중학교는 목단강시에 있는 기숙형 중학교에 진학한다. 부모님의 구속에서 벗어나 6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중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은 즐거운 추억이었다.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지닌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싶다는 일념에 중학교를 자퇴하고 당시 흑룡강성에서 유행했던 계서에 있는 일본어 학당에 일본어를 배우러 간다. 어린 나이에 그의 사회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연구참여자는 술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사회생활도 배웠다.

2년 뒤 일본어학당을 졸업한 연구참여자는 사촌오빠가 일하는 중국 광둥성 동관으로 간다. 중국 최북단 흑룡강성에서 최남단 광둥성까지는 기차로 일주일가량 걸리는 거리이다. 연구참여자는 동관에서 일본회사에 취직한다. 나이도 어리고 언어능력이 뛰어난 연구참여자는 일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일본인 남자친구도 사귀었다. 하지만 그는 북방출신이라 남방의 열대성 기후가 맞지 않아 건강이 몹시 악화가 되었다. 어느날 아침 폐결핵으로 갑자기 피를 토하게 된 연구참여자는 그날로 고향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몇 달간 혹독한 병원생활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연구참여자는 다시 한국행을 결정한다. 중국의 남방

지역이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음을 의식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던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행을 결심한다. 2002년에 한국에 오게 된 연구참여자는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집 근처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한다. 중국에서는 일본회사에서 사무직 근무를 하던 연구참여자가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준 공장에서의 근무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골에서 잔뼈가 굵았던 터라 일숨씨가 빠르고 야무졌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회사 상무님은 그를 사장님에게 추천한다. 사장님 면접을 거쳐서 그는 중국에 납품하는 회사에 취직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일본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되살려 사무실에서 번역도 하고 공장일이 바쁘면 현장에서 일도 도와주었다. 그러던 연구참여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 그는 회사 사장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숨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면서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해주길 권했다. 연구참여자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결혼하고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남편은 한국에 있던 친구와의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고향 친구 남편의 친구였던 남편은 첫눈에 연구참여자에게 반했다. 8살 연상의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연구참여자와의 결혼에 성공한다. 남편을 만났을 때 연구참여자는 이미 한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에 있었다. 둘은 결혼식 없이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자녀를 둘씩이나 낳고 나서야 연구참여자는 국민의 배우자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결혼식은 시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을 꼭 봐야 한다는 고집 아래 신분이 합법적으로 회복된 후 형식적으로 조출하게 했다.

3.2 결혼 이후기

연구참여자는 슬하에 1남 2녀를 양육하고 있다. 남편 가족으로는 시골에 계시는 홀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명 있다. 시누이와의 관계는 좋은 편

이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하였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니는 아직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시고 며느리를 많이 무시하고 화도 잘 내는 성격이었다. 연구참여자도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닌지라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많이 싸웠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80세가 넘으신 고령인지라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세세히 해드리는 편이다. 연구참여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댁보다는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연구참여자의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 계시고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두 분 모두 일을 하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 딸이 집을 사거나 대형화물차를 살 때 보태주시곤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반은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장만하였다고 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시댁에 의지하지 않기에 시어머니와 당당하게 할 말을 다하면서 살 수 있었다. 또한, 시어머니의 해가 갈수록 더해가는 구박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 그리고 친정의 노고들을 시어머니가 알아주기를 바랐으나 시어머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였다. 다행히 늘 연구참여자의 편에 서주는 든든한 남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누이들이 있어서 연구참여자는 매번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셋째 아이를 낳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와 만났다. 세 자녀는 지금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부지런한 그녀는 매일 화물차 운전을 하는 남편을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과 점심도시락 두 개를 썬다. 매일아침 그는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짹짹 틈을 내어 부업을 한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줄줄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다. 일년내내 잠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만 모든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석하는 편이고 딸 둘은 공주처럼 예쁘게 꾸며서 학교 보내는 것이 취미이다. 어머니의 외국인 신분으로 아이들이

행여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일부러 옷에 더 신경 쓰고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혀서 보내는 편이다. 유치원 때부터 주변 어머니들이나 선생님의 “어머니, 어쩜 아이들을 이렇게 이쁘게 입히시나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 하며 자랑했다. 열성적이고 나누어주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학교활동도 빠짐없이 참석한다. 학부모들보다 모임에 자주 나가며 친한 한국 엄마들도 몇 명 있다. 지금 제일 가깝게 지내는 동네엄마는 그래도 중국에서 살다 온 한국 어머니이다. 그는 연구참여자의 출신배경을 알고 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연구참여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다가왔다고 한다. 물론 편견어린 눈으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출신배경을 밝힌 후 갑자기 거리를 두는 동네 엄마들도 많았다. 그럴때마다 많이 속상하다 보니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숨기게 된다.

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자격증도 획득하고,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아 고등학교 졸업증도 받았다. 한편으로 또 집에서 살림에 보태려고 부업도 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의 꿈은 이중언어 강사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외국인 봉사단에 가입하여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국적은 중국 국적이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귀화신청을 하려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서를 냈으나 오랜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국적신청이 불허되었다. 현재 그의 한국 체류 비자는 영주권이다. 연구참여자는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를 발급받을 때 자신이 한국 국적 없음으로 인하여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주민등록등본에 남편 이름 밑에 아이 이름 셋만 나와 있어서 서류를 어디 내밀기가 부끄럽다고 한다.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기관 담당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번마다 해

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국적을 취득하면 그의 첫 번째 소원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이라고 한다. 즉 자녀들을 위하여 온전한 한국사회 가정구성원이 되고 싶은 것이다.



4. 연구참여자D: ‘강인함과 열정’

연구참여자 D는 한국에 거주한지 18년 된 올해 35살의 결혼이주여성이다. 그의 생애 주기별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IV-4>과 같다.

<표 IV-4> 생애 주기별 특징

구분	생애 특징	
유, 초년기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	
결혼 이전	학창시절	대성중학교, 운동주 시비, 한국인 관광객들, 모나미 볼펜, 재무고등학교
	사회경험	식당에서 알바, 한국으로 산업연수
	연애기	직장에서 만난 남편, 같이 어울리며 정들, 놓치면 후회
결혼 이후	결혼초기	신혼 초 시어머니와의 갈등,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시댁
	자녀양육	자녀 출산, 산후조리 없이 홀로 키운 아이들, 녹색어머니회 회장
	구직 및 학업경험	직장생활, 중국음식점 사장
	위기기	홀로 차린 중국음식점

4.1 결혼 이전기

연구참여자 D는 중국 길림성 연변⁷⁾ 남평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다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연변 화룡시로 이사를 한다. 부모님은 평범한 농부였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연구참여자는 부모님을 따라 용정시로 이사 오게

7) 연변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 길림성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거구이기도 하다.

된다. 중학교 시절 용정중학교에 다닌 연구참여자는 그곳에서 한국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국을 알게 된다. 그가 다닌 용정중학교는 운동주사인 시비가 있는 옛 대성중학교인지라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많은 한국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하였다. 그는 아직도 그시절 한국인들이 건네주던 모나미 볼펜을 기억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졸업 후 연길에 있는 재무고등학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다. 학창시절 연구참여자는 성격이 밝고 친구관계가 좋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연구참여자는 친척집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친구 따라 한국기업이 많은 중국 청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청도로 보내기보다 차라리 한국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기에 한국으로 산업연수 기회를 보내준다. 이렇듯 한국은 외국이지만 더 멀리에 있는 중국 타지역에 비해 좀 더 좋은 환경, 언어적으로도 친숙한 곳으로 당시 중국조선족들에게는 각인되었다. 산업연수로 온 한국회사는 인천 남구에 있는 합판 회사였다.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해보는 합판 꺾는 일은 연구참여자에게는 힘들었다. 하루종일 합판을 꺾다 보면 밤이 되면 손이 붓고 아파서 잠에 깨어 아픈 손을 부여잡고 엉엉 소리 내 울었던 적도 많았다.

그때 함께 한국에 온 산업연수생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 젊은이들이라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애기’ 들이 왔다고 이빠도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셨다. 비록 같은 민족 언어였지만 사투리의 영향, 그리고 오랜 세월 단절되었던 국가간 교류로 언어의 사용이 많이 달랐기에 연구참여자는 초기에는 언어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구참여자는 말을 하면 한국인들이 억양이나 생소한 단어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뭐? 뭐?” 하면서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언어적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는 마음을 다잡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주위의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여서 표현들을 익히고자 노력했고,

말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억양과 단어들을 고쳐나갔다. 어린 나이, 여성이라는 장점,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중언어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체화된 뛰어난 언어감각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몇 개월 정도 지나자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비록 회사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일 욕심이 많고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연구참여자는 일솜씨를 인정받고, 다시 기계를 다루는 부서로 옮기에 된다.

그가 다니던 회사 같은 부서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밝은 성격의 소유자인 연구참여자는 직장동료들과 회사일 끝나면 함께 어울려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 연구참여자는 회사에서 만난 9살 연상의 오빠와 친하게 지냈다. 2년간의 연수 기간이 끝나고 연구참여자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남편은 연구참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연구참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

4.2 결혼 이후기

2년간의 연수생활을 통하여 한국의 언어 문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자신감을 획득한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망설임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을 중국에서 친지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하고 남편은 한국으로 먼저 돌아온다. 그들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 절차를 거쳐 몇 개월뒤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연구참여자의 결혼으로 친정부모님 한국 초청이 용이해졌고, 현재 한국에는 친정어머니와 탈북배경 새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부부가 가까이 살고 있다. 남동생은 중국 심천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신혼 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입주하기까지 10개월 가량을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다. 연구참여자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기본만 지키는 그런 사이였다. 신혼 초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소원해졌다. 연구참여자는 신혼 초에 아르바이트하러 다니면서 일주일 월급으로 20만 원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5만 원을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렸다. 좋은 마음으로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작 5만원이냐고 나무라면서 연구참여자에게 화를 내고 드린 돈도 받지 않았다. 결혼초기 연구참여자의 남편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번 돈으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용돈을 드렸으나 뜻밖의 구박을 받고 많이 속상했다. 어린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는 못했지만 속상해서 밤새 울었다. 이 일을 계기로 연구참여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냉담해졌다.

시댁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은 시댁식구의 외국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었다. 시어머니는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친정에 빼돌릴까 걱정이 되어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아주버님 이름으로 가압류를 걸어두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많이 속상했다. 그는 돈을 벌어서 새 아파트 ‘내 집’을 꼭 살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시댁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한국은 사람 사이가 냉정하고 이기적이야.” 였다. 연구참여자는 친정집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에 중국에서 살 때는 늘 가족들이 많이 모여 시끌벅적 화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친척관계에 대한 기억들이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한국의 가족 관계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게 하였다. 시누이도 “나 살기도 바쁜데. 니네는 니네끼리 잘 살으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는 표현을 하였기에 시댁과의 관계에서 1년에 명절, 생일 등 공식적인 만남 외에는 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별다른 친밀감은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 월급에서 5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들고, 30만 원은 시어머니 용돈으로 드리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또한, 첫 아이 출산 전까지 줄곧 가구회사에서 일하였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중국에 홀로 계시는 외할머니를 모셔 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자 연구참여자는 바로 직장생활을 다시 하였다. 연구참여 몇개월전 연구참여자는 작은 중국음식점을 차렸다. 집 근처에 중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중국음식점도 많이 생긴 것을 보고 음식점을 차릴 결심을 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돈을 벌고 싶었다. 아이들도 성장으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새집도 사고 싶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작게 시작한 음식점에서 연구참여자는 장보기, 음식 만들기, 홀서빙, 설것이까지 모든 일을 직접 다 하고 있었다.

그는 직장을 다닐때에도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 동안 해마다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여 교통봉사활동을 하였다. 지난해에는 가게도 차리고 녹색어머니회 전교회장까지 맡아서 하느라 정말 ‘바빠서 죽을 뻔’ 했다. 책임감이 강한 연구참여자는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매일 아침 녹색어머니회 봉사 때문에 집 앞 횡단보도에 나가 감독을 하거나, 직접 교통봉사를 해야 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모든 일을 책임감 있게 하기’가 그가 한국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정획득의 모습이였다. 직장, 가사, 자녀양육에 있어서까지 연구참여자는 슈퍼우먼처럼 지칠 줄 모르고 많은 일들을 거침없이 감당하고 있었다.

결혼 후 2년 뒤, 연구참여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산업연수생 동기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산업 연수비자로 한국에 왔으나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면서 부득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가까운 복잡한 혼인 신고 절차를 통해 결혼비자를 받고서야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불편함들이 있었기에 그는 국적취득을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를 안정적으로 하게 된다. 국적을 취득하고 그는 바로 선거권을 행사했다. ‘남들이 해서 그냥 따라서 투표 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성격과 부지런한 성품이 사회적 관심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한국에서의 인정획득의 삶은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5. 연구참여자 E: ‘솔직함과 당당함’

연구참여자 E는 한국에 거주한 지 18년이 된 올해 37살의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다. 그의 생애 주기별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생애 주기별 특징

구분	생애 특징	
유, 초년기	도시에서 자란 어린 시절, 나를 아들처럼 키우신 아버지	
결혼 이전	학창시절	밝고 해맑은 아이, 언니 친구는 내 친구
	사회경험	식당에서 알바, 한국으로 산업연수
	연애기	직장에서 만난 남편, 나를 위해 적금을 든 남편, 나를 위해 담배를 끊은 남편, 혼전 임신
결혼 이후	결혼초기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힘든 시택 제사문화
	자녀양육	연년생 자녀 출산, 친정 부모님이 도움, 육아, 가정에서 주부로 어머니로 살기
	구직 및 학업경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취업교육참여 임시직 취직, 정규직 전환
	위기기	남편의 사고, 묵묵히 이겨내기

5.1. 결혼 이전기

연구참여자 E의 고향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이다. 부모님은 모두 직장을 다니셨다. 아버지는 철근공장에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연구참여자 E는 집안에서 둘째 딸이었다. 야무진 성격의 연구참여자 E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많이 따랐다. 아버지는 비록 딸이었지만 둘

째 딸을 아들처럼 가르치고 자신이 일하는 철근공장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가구를 고칠 때면 조수처럼 일을 거들게 하면서 목공일도 배우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운전을 가르쳐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창시절의 그는 조금은 느린 성격의 밝은 아이였다. 둘째 딸로 태어났기에 연년생 언니와 함께 학교를 다니었고, 자신의 친구보다도 언니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려 놀았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동네 언니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편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연구참여자는 마땅한 구직자리가 없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했다. 정년퇴직하고 연길시에 있는 한국 해양학교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시던 어머니는 한국에서 산업연수생 모집하는 정보를 알고 작은딸에게 권유를 한다. 어린 나이의 연구참여자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산업연수의 길에 오른다. 그때 연구참여자의 나이 21살이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아이돌 가수 HOT, SES, 핑클을 좋아하면서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언어적으로 타국에 비해 우월성이 있었기에 외국이라고 하지만 겁 없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다.

중국 연길시에서 태어나 연길에서 학교생활만 해오던 연구참여자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먼 이국 타향에 오게 되었다. 처음 온 한국은 9월이었지만 추웠다. 또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집 떠난 외로움이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더 추위를 타게 하였다. 한국에서의 연수생활은 그런 대로 지낼 만했다. 산업연수생으로 같이 온 친구(연구참여자 D)는 작업반에 들어가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연구참여자는 검사반에 들어가서 일도 쉽고, 잔업도 많아 월급 외에도 수입이 괜찮았다. 직장에서 별다른 차별이나 이런 것은 못 느꼈다. 어린 나이에 일하는 것만으로 직장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단지 중국에 대한 무지와 무시하는 질문들이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하였다. “중국에도 이런 거 있어?”, “티비 있

어?”, “이런 거 먹어봤어?” 2000년까지는 한국사람들이 중국에 대하여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의 말들이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했다.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는 기분이 나빴고 솔직히 표현했다. 어리지만 당찬 모습들은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직장에서 참 좋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혼자 외국에 외롭게 있는 연구참여자를 명절 때마다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고, 옷도 사주면서 딸처럼 아껴준 분들이 많았다.

남편과의 만남은 직장에서였다. 남편은 같은 직장 기계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검사반에서 기계가 고장 나면 주위 아주머니들이 일부러 어리고 예쁜 연구참여자를 기계반으로 보내어 기계를 고쳐달라고 사람을 불러오게 심부름을 보냈다. 그럴 때마다 말없이 와서 도와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다. 그렇게 얼굴을 익힌 남편은 연구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9살 나이 차이를 불구하고 남편의 성실함과 순수함이 연구참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남편은 연구참여자와의 첫 데이트 후 담배를 끊었고, 연구참여자와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바로 월 100만원짜리 적금을 붓는 등 믿음 가는 행동들로 연구참여자의 신뢰를 얻게 된다. 그렇게 1년간의 만남을 거쳐 둘은 결혼하기에 이른다.

5.2. 결혼 이후기

두 사람의 결혼식은 중국에서 먼저 거행하였다. 중국에서의 결혼식은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중국으로 와서 함께 참석하였다. 중국출신 며느리 맞이가 불안했던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은 친히 중국까지 와서 둘의 결혼식에 참석한다. 그들은 직접 중국의 모습을 보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많은 편견을 바꾸게 되었고, 그를 진정한 가정의 며느리로 인정하게 된다.

결혼 후 남편은 2년간 연구참여자와 교제하면서 100만 원씩 부었던 적

금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고 둘은 신혼살림을 그 집에서 차린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 그리고 출산, 연구참여자는 연년생으로 딸, 아들을 낳았다. 손주가 귀한 시대에서 아들을 낳은 연구참여자는 시대에서 복덩어리 며느리로 불리게 된다. 연구참여자가 E역시 아들의 출산으로 시부모님 사랑을 한몸을 받게 된다. 아들 출산 이후 연구참여자는 시어머니 앞에서 더 당당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년생 두 자녀의 산후 조리는 모두 퇴직하신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셨다. 때문에 이국 타향에서 연년생 자녀를 키우는 연구참여자는 어린 자녀 키우는 데는 별 어려움을 못 느끼고 편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친정은 큰 자원으로서 외로운 한국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연구참여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에 대한 편견들에 대하여 몹시 불편해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편견에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에 대한 매매혼의 낙인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여자’, ‘돈 주면 친정에 빼들린다.’, ‘국적 주면 도망간다.’ 등 이런 편견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주변의 안 좋은 시선이나 편견에 대하여 그는 더 잘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똑 부러지게 결혼생활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남편 월급으로 사치 부리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다.

시댁은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남편은 장남은 아니지만, 시댁이 가까이에 있기에 1년에 12~13씩 제사를 지내러 매번 시댁으로 가야 했다. 남편은 형제가 7남매인 대가족이었다. 제사나 명절 때 모이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그 많은 식구가 먹을 음식, 제사 음식 준비하는 일이 몹시도 버거웠지만 열심히 감당하였다.

연년생의 딸과 아들은 지금은 성장하여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직장을 다닐 생각 없이 남편 월급으로만 알뜰하게 살림을 하였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취업을 하기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한 기회에 아는 동네엄마들 단체 특방에서 집 근처 화장품회사에서 성격이 꼼꼼하고, 일습씨가 좋은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하였다. 몇 달간 계약직으로 일하던 그는 꼼꼼하고 빠른 일습씨로 상사의 인정을 받아 어엿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기회를 기다렸던 그였기에 눈앞에 온 기회를 적시에 잡을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경력 공백의 서투름 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3년간 다닌 회사를 그는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고용해주는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취직은 그에게 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주었고, 가사노동에서 어느정도 탈출할수 있게 하였다.

현재 두 자녀는 중학교 재학 중이다. 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반장도 역임할 만큼 똑똑하고 활발한 사춘기 소녀이고, 아들은 동네에서 엄친아로 불린다. 아들 초등학교 때 들었던 운동부 동아리 학부모 모임에 연구참여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였고, 해마다 부부 자녀 동반 해외여행도 다닐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 학부모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자신의 출신배경을 알리지 않고 좋은 관계로 발전한 후에 믿음을 전제로 친한 언니들한테만 자신의 출신국을 알려주는 조심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형성한 지역사회 학부모 모임은 그가 자녀 양육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관계망으로 발전하였다. 두 자녀는 댄스를 좋아하여 방학에 전문 댄스학원에 다니며 스트레스를 푼다. 연구참여자도 자녀들의 취향을 존중하여 적극 후원을 해주었다. 그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의 중국 출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엄마의 출신국을 밝혔다고 알려주었다.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2년 뒤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국적 취득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도 했고, 한국

에서 살아야 했고, 한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온전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였기에 별다른 주저 없이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 취득 후 연구참여자는 바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내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이주민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만들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를 통해 온전한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2년 전 연구자가 자녀 교육 관련 인터뷰를 했을 시에만 해도 ‘나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에 한국인이다’ 라는 강한 정체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친한 언니들과 나누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지나보니 별거 아니었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잦은 접촉과 한국과 중국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으로 인하여 직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출신 배경이 유익하게 작용함을 느끼면서 출신 배경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어엿한 정규직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다니는 회사는 화장품 개발회사로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았다. 연구참여자는 맡은 일을 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새로운 노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6. 소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 중에서

본 장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들의 이주 전 중국에서의 삶 그리고 한국 이주 경험 그리고 결혼 후 생애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였다. 우리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을 통해 출신 사회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인 행위 주체이자 삶의 개척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자로 한국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가져온 국가적 경제 불균등 현상과 여성의 이주를 추동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이주 그리고 도전적인 성격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주 후,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을 지닌 매력적인 나라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젊은이들이 대량으로 외국기업이 있는 연해지구로 직장을 찾아 떠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외국이지만 친근한 나라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보다 월등히 높았던 한국의 월급은 그들에게 중국의 타지역 이주보다 한국행을 쉽게 결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한국행이 공통적으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구직난으로 인한 다양한 진출 경로의 하나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거리적으로도 한국은 중국

의 다른 지역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 그리고 언어적 동질성 문화적 동질성 역시 한국행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이주를 통하여 그들은 한국인 남성과의 직장 또는 지인을 통한 만남이 가능해졌으며, 국경을 초월한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연애결혼에 다다르게 된다. 그들의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공통되게 ‘착하다’ 또는 ‘성실하다’ 였다. 즉 그들이 국경을 초월한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젊음으로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남편과의 결혼에서 남자의 재력이나 능력보다 자신을 따뜻이 감싸고 지켜줄 수 있고 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인품에 대한 믿음이 우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 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중계업소를 통한 ‘매매혼’의 불쌍한 희생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중계업소를 통한 결혼은 전체 결혼이주여성들의 1/4 정도를 차지할 뿐이었다(여성가족부, 2016). 하지만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초부터 “못 사는 나라에서 시집은 불쌍한 여자”, “국적주면 도망간다”, “돈 주면 친절에 보낸다” 등 주류사회의 다양한 왜곡과 오해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한국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부푼 기대와 달리 한국사회에서 왜곡된 인정질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상화된 무시의 언어들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기에 이른다. 그들의 생애 경험을 통해 바라본 인정획득의 노력들은 결혼 이후기에 인정의 부재 그리고 이주로 인한 긴장감 속에서 증폭되어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정투쟁의 방법은 치열한 노력을 통한 적극적인 동화의 형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되게 아들을 출산하였고 아들의 탄생은 그들의 시대에서의 인정을 받는데 큰 변화를 가져다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소외된 타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평범한 주부로 동네 엄마로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각색해 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A, C, D, E는 조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스스로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스스로 한국에 적응을 마친 경우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사랑에 기반한 결혼을 하기에 이른다. 그들은 중국에서부터 도전적인 성격, 특유의 부지런함들이 결혼 이후 이주민으로서 한국인 남편과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원으로 작동한다. 그들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양성평등의 영향력 속에서 강한 경제활동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고, 자녀양육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학력 경력 부족으로 취업이 쉽지 않지만 다각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취업난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화시대 여성의 이주물결을 따라 한국으로 오게 하였고, 이러한 경로들은 한국인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적극적 행위 주체로 강한 자아효능감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용하고 하고 있었다. 그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것은 대략 2010년 경부터였다. 그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취업과 연결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취업 경험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 타임 아르바이트 등 직업에 머무른다. 이에 대한 그들의 인정투쟁의 모습은 학력 신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드러난다.

연구참여자 B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중국에서 10년간 생활을 하였다. 그는 중국에 있을 때는 자신의 언어적 능력을 이용하여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한국에 와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한국에 입국한 후 바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다니면서 큰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적응을 도와주고 자신의 적응을 돕는 발판으로 삼는다.

Merriam과 Heuer(1996)는 성인 학습자는 부정적이고 복잡한 생애 전이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형성해 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바 있다. 즉 성인이 생애 전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수용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생애 경험을 다루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성인들은 생애상의 특정 경험이나 사건에 대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의미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의미 체계와 현재의 경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게 되어 의미 이해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다. 심할 경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인은 그 경험이나 사건에 전인간적-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전념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와 외부지원이 필요하게 된다(배유규, 2006 재인용). 이 외부지원조건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 문화적 적응을 뛰어넘어 직업, 상담,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감당하면서도 취업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시도들은 그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력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그들의 인정투쟁의 형식이다. 또한 그들의 이러한 인정투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학력을 인정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싶은 욕망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정 획득의 삶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삶은 이주민으로서 주류사회가 자신들한테 보내는 불신과 불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닌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사회적 지위 상승을 꿈꾸는 삶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인정획득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물리적 싸움의 의미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위와, 치열한

노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그들의 인정 획득의 삶의 무게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세계화 시대 적극적인 이민 주체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한국인 남편과 연애결혼이 용이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인정획득의 모습은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상황에 맞춘 부단한 노력으로 드러났고, 지역사회에서 한국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성인교육에서 개인은 교육의 행위자이자 주체이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켜 자기의 삶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박성희, 2003). 이는 개인의 삶은 사회·문화·정치적·경제적으로 사회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현대사회의 개인의 문제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통해 축적되어 중국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삶의 능동적 주체이기 에,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교육은 이제 형식적인 제도적 교육보다도 실제 생활 속에서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삶의 양상에서 개인을 되돌아 보는 생애사 연구 방식은 개인 스스로의 적응과 변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강민수, 문용린, 2007).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정립하고 앞으로 살아 인생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V.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

5명의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인정투쟁 경험은 같은 출신 배경, 동시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나 각각의 이야기는 특별하였다. 하지만 인정획득의 모습은 공통으로 살아남기를 위한 치열한 노력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속 인정투쟁 이야기를 사랑, 권리, 연대 큰 범주로 구분하고 사랑의 영역에서는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지역사회, 직장에서 대인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 그리고 권리 주장의 영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 세부분을 통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대를 통한 인정획득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주민 생활공동체인 인적네트워크와 초국적 네트워크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즉 그들의 다양한 인정투쟁의 모습을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영역별로 구분하여 의미를 분석하고 유목화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가설과 의문을 가지고 새로 듣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를 붙이고 이를 ‘다시쓰기’ 하였다. 그리고 인정투쟁의 모습들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세부구성요소와 주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인정투쟁 경험의 구성요소와 주제

구성요소	하위구성 요소	주제
사랑	가정에서	연애결혼으로 인한 자신감 시택에서 인정받기
	지역사회	부정적인 시선들 속에서 위축되는 자아 감추는 타자성을 통한 만남
	직장에서	다름을 닮음으로 변화시키기

		언어적 자원을 활용
권리	정치	투표권 행사로 주장하는 한국인의 권리
		국적은 없어도 한국사회 일원
	경제	경제적 지위 상승을 꿈꾸기
		실감하는 차별의 경계들
	문화	다른 듯 같은 문화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인 동화
연대	생활공동체 연대	같은 출신 다른 모습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연대
	초국적 네트워크	글로벌 정체성
		인적자원의 활용

1. 사랑의 차원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의 인정투쟁 경험을 사랑의 차원인 친밀성 영역의 경험으로 보고 각각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Honneth는 상호 주관적 인정의 형태를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따라 사랑, 권리, 연대를 구별하면서 그 중에서 ‘사랑’을 상호 인정 관계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현 주체들은 서로를 구체적인 필요 본능 속에서 확증하게 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정은 정서적인 일치와 격려의 성격을 갖는다. 사랑이라는 인정관계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특정한 가치

존중의 감정을 보이는 구체적인 타인의 신체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 타자 속에 존재 함’이다. 사랑은 정서적인 원초적 관계들로 구성된다. 가족 관계 중 정서적인 원초적 관계는 자립성과 구속성 상이의 균형과 관련된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애정의 확실성을 통해, 또는 자신에 대한 편안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하나 됨을 일종의 상호 탈경계화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립적인 주체가 된다. 즉 개인은 정서적 자기믿음(Selbstvertraun)을 기초로 상호 탈경계화가 형성된 자립적인 주체가 된다(Honnith, 2011:169-187).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각각 비슷하지만 다양한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랑이라는 인정의 형태를 가족, 가족을 넘어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1.1 가정에서

가) ‘연애결혼으로 인한 자신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남편과 연애결혼을 하였다.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결혼생활이었기에 그들은 일차적으로 남편의 인정을 받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즉 친밀성 영역에서 가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통한 결혼을 한 것이다. 국내 다문화 담론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매매혼이라는 보편적인 낙인 이미지와는 상반된 모습들로 나타난다. 때문에 연애 결혼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줄곧 주변과 한국 사회 속의 매매혼의 낙인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남편과의 결혼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남편과의 나이 차이이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결혼당시 20대 초반인 반면에 남편들은 30대를 넘어서 당시에는 노총각이었기에 결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다 좋대요(웃음). 노총각이니 다 좋았겠지 뭐. 나이가 많았죠(남편) 삼십대니까 34살인가 그때. 35살인가. 결혼 못 할까 시댁에서는 걱정하던 참에 결혼한다니까. 그래서 별로 반대를 안 했어요. 그 성격에 못 갔어요. 나 아니면. 너무 꼼꼼해. (연구참여자 A, 20170106)

우리 신랑이 약간 숫기가 없고 약간 밝아 보이진 않았어. 옛날부터. 이래저래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일 다니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런 사이에. 어머니가 많이 역할을 했어. 서로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빨리 저기(결혼) 하라고. 남편 나이도 있고. 내가 봐선 우리 어머니 현명하신거 같애. 그리구 이 남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도 잘 모르니까 나쁘진 않은거 같고 사람이 착하긴 되게 착해.(연구참여자 B, 20170106)

처음 나를 봤을 때 마음에 든다고 얘기 했었나봐. 얘기를 했었는데. 몇 번 만나고 계속 친구랑 올라와 있고 어찌고 하다보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진거야. 인연이 이어지더라고. 나중에 자기는 다 좋다고 감수할 수 있다고. 나이차이가 8살 차이. 나이차도 많지. 솔직히 볼테가 어땠어? 인물, 돈, 가정 다 없어. 홀시어머니에다 시누들에다가 조건이 하나도 좋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대(나의 모든 것, 과거 포함). 알았다고. 진짜 좋아했나보지. 그때는 이뻐지. 지금은 확 갔지. (신랑은 뭐가 좋았어?) 그냥 착한거? 이 정도면 내 새끼는 굶겨 죽이지 않겠다. 그때 내가 불법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신랑을 내가 이만큼 일으켜 세운 거야. 안 그러면 어디서 밑바닥 인생일지 몰라. 만났을 때 남편 전세 겨우 4,300짜리 있던데.(연구참여자 C, 20170112)

그때는 나이가 많다는 걸 못 느꼈지 지금도 못 느껴. 그냥 하는 짓이 애 같으니까. 애 셋 키우네 이러면서 키우고 있지. 신랑은 뭐 잘해 준 것도 없었어. 그때는 저기 했는데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그래 결혼해라 하길래 해야 되겠다 했지. 마지막에 집에 간다고 하니까 중국가야 된다고 하니까 잡았어. 보내면 도저히 장가를 못갈 거 같아서 나중에 후회할 거 같으니까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여기서 결혼수속하고 그리고 나서 추석 켜가지고 추석 때 왔었어요. 중국.(연구참여자 D, 20170113)

중요한건 우리 신랑이 나와 을왕리 갔다 오고 다음날 100만원짜리 적금을 들었어. 담배도 끊었고, 그게 회사에 소문이 퍼진거야. 갔다 왔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날에 우리 신랑이 가서 50만원 50만원 짜리 적금을 두 개 들었어. 담배도 끊고, 사람들이 나한테 담배도 끊으라고 했더니 끊었다 그러면서 놀렸어 막. 그게 더 믿음이 갔던 거 같애. 나이도 있겠다. 그때 우리 신랑이 33살이었지. 나이차가 9살. 나이차가 많다는 생각 안 들 정도로 철이 없었어. 그리고 좀 동안이었을 수도 있어 (남편). 그냥 느껴지지 않을 정도. 못 느꼈어. (연구참여자 E, 20170110)

연구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다음 두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했다는 사실, 둘째, 자신을 “나 아니면 장가 못 갈” 남편을 노총각 신세를 면하게 한 그런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적극 드러냈다. 즉 남편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토대로 결혼했기에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었다. Honneth(1992)는 ‘정서적 배려’ 나 ‘사랑’ 과 같은 애정의 형식을 통해 서로를 그 욕구와 바람이 타인에게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한 개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신감’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남편에게 있어서 자신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의 토대들이 자신감으로 작동하여 이국타향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지지대로 작용하였다. 또한, 그들은 모두 ‘우리 남편 내가 이만큼 키웠어’ 라는 자부심을 안고 있었다. 그들이 남편과의 만남을 물어봤을 때 연애결혼이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도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매매혼 담론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들은 결혼한 순간부터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주변인들에게 ‘매매혼’ 의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에 이러한 인정의 왜곡에 대한 반발심이 컸다. 즉, 사랑에 기초한 혼인이 그들이 왜곡된 인정질서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나) ‘시대에서 인정받기’

결혼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홀로 시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시댁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했고, 인정받고 싶은 노력들은 상황에 따라 다각적으로 드러난다. 남편과의 연애결혼으로 상호 인정관계 속에서 형성된 인정관계와 달리 시집살이의 모습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

연구참여자 A는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와 시부모의 사이는 한마디로 ‘서로 배려하기’ 이다.

우리 시부모님이. 그런 거는 편하고 좀 서로가 배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 수 있는거 같아요. 시집살이라고 보면 처음에는 적응기간에는 혼자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속상할 때는 조금 아무래도 결혼하고 같이 있으면 좀 소외된 느낌도 있고 저의 아버님은 성격이 불같으니까 두 분이 어른들이 싸우거나 하면 놀래고 무섭고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시부모 하고 갈등을 안 느끼려고 사소한 거 주방에 뭐 소금이라던가 양념들도 놓는 이런 거 어머니 하시는 대로 고대로 두고, 서로 터치를 안하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내가 늦잠 자도 터치를 안 하고 그런거를 배려 해줘요. (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에게 시댁과의 관계는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특히 외국에서 왔다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려고 연구참여자는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인 동화의 형태도 드러나고 있었다.

시부모님 비위 맞추고 기분 안 상하게 하고 이런 노력은 필수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와가지고 뒤쳐져서 그렇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죠. 일 하는 것도 그런 거 있어요. 부모님한테 손 안내밀고 내가 벌어가지고 내 용돈하고 아이 키우고. 내가 벌어가지고 친정에 챙기는 것도 아니고 벌어가지고 친정 부모님한테 한 푼도 드린 적 없거든요. 내 아이하고 내 가족을 위

해서 썼지. 친정 부모님은 도움을 주면 주었지, 아니 더 주지요. 명절이나 생일이나 이럴 때 잘 챙겨주고 손주도 잘 챙겨주시고. 우리가 도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남들은 멀리서 오면 친정에 보내는 줄 아는데 저희는 도로 받는 편이에요. 남들은 다 멀리서오면 친정에 준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친정에서 도움을 받지, 주지 않아요. 주변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친정에 빼돌린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지요... 애 옷, 간식 용돈 등등.. 철철이 옷사다 주지. 우리 중국 부모님들은 헌신적이에요. 자녀들한테 꽤 안 끼치고 보태주려고 하고. 오히려 한국 부모님들은 받으려고만 하는 거 같아요. 시부모는 자꾸 효도하라고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 A의 친정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다. 두 분 모두 힘들게 돈을 벌어서 외손주 용돈도 주고 연구참여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는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들에 대해 ‘친정에 돈 빼돌린다’는 편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중국형 부모님들은 한국에 와서 힘든 일을 하면서라도 자식들에게 보탬을 주려고 하지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친정에 대한 주류사회의 왜곡된 편견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 시아버지의 외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무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불편하다고 솔직한 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결혼하라고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어머니는 내색을 안 하시는데 아버님이 조금 표를 내시긴 해요. 외국에 대한 그런 것들에. 자꾸 외국사람 어찌고저찌고 식사하실 때마다 하셔서 “그렇게 싫으면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말한 적 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듣는 외국사람 기분 나쁘다고. 그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듣는 외국사람 기분 나쁘죠. 베트남이던 중국이던 필리핀이던 떠나서 결혼을 승낙했으면 그걸로 땡이지 그거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못 먹고 못 살어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팔려서 온 것도 아니고 돈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혼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내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만했는데.(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 A의 시아버지는 신혼 초에 가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무시의 발언을 연구참여자 앞에서 불쑥불쑥하시곤 한다. 연구참여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성격이었다. 또한, 그의 이런 발언들을 통하여 시부모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인정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이 이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한 긍정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었다. 연구참여자의 A는 남편의 아내로, 시부모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손주의 어머니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부모님의 불편한 언행에 대하여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습으로 시댁과의 인정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외국출신 배경은 그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불편한 발언들을 통하여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A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처로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주체의 끊임없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B의 시댁과의 사는 모습은 이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연구참여자 B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먼저 받았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경우이기도 하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있어서 한국 생활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집에서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아온 연구참여자에게는 가족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다.

어머님 너무 좋으셔. 나를 차별하지도 않고 물론 중국 며느리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도 보면 내가 다문화 여성이지만 내가 다른 북한 이주 여성이나, 내가 중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보다 좀 후

진 나라에서 오면 보는 시선이 틀린 것처럼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애. 근데 어머니는 며느리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내색을 안 하셨어... 항상 누구한테나 똑같이 친절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대우를 잘 하시는 거 같애. 그리고 시할머니도 계셨거든. 할머니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오셨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와보고 싶으니까 사업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갔을 때는 1년에 한번 와서 보름씩 계시고 그러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내가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뭐 어머니가 빨리 서두신 거 같애.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서둘러서 1년도 안 돼서 10개월인가 빨리 약혼하자고. 우리 엄마 오라고 하신 거야. 그때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어. 그래서 엄마가 여름에 오셨어. 오셔서 며칠 계시서 내가 그때 기숙사에 있으니까 호텔에 3일인가 계시고 약혼하고 약혼경비 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지. 잘하세요. 어머니가 내가 사실은 그때 월급 타봤자 얼마 안되지. 그래도 기차타고 오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일주일 걸림). 비행기 표가 내가 알기로는 엄청 비쌌어. 월급이 1000원인데 4000원인가 했어. 이런 거 왕복 다 해주고 비행기 표. 호텔도 이렇게 계실 때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호텔로 그냥 괜찮은 거로 얻어서 한 3일인가 계셨어. 식사는 아침에 하시고 점심은 어머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참 현명하신 거 같애. 지혜로우신 거 같애. (연구참여자 B, 20170111)

연구참여자의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연구참여자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풀었기에 결혼 후에도 좋은 고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이주민으로서 차별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시어머니의 따뜻한 며느리 맞이 모습은 그에게 가장 큰 지지로 다가선다. 가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 B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도 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손님들 많이 오면 어머니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나랑 같이 먹어. 지금도 손님이 오면 테이블이 작거나 해서 자리가 없으면 어머님은 꼭 기다렸다가 나랑 같이 먹어.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따뜻한 밥해서 주고 그렇게 하거든...

친정엄마는 같이 어려서 있는데 내가 5학년 6학년 돼서 엄마 하는 거만 보고 그랬지.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했고 옛날에는 대화를 많

이 안 했잖아. 옛날에는 얼굴 볼 틈이 없이 바빴어. 엄마들이. 여름방학 때 옥수수 장사하고 그러면 도와서 옥수수 까고 앉아 있었지. 방학에는 놀러가고 그런 거도 없었고 우리끼리 놀아야 되고 그랬는데. 결혼하니 까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시어머니 모시는 거도 보고(연구참여자 B, 20170106).

연구참여자는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신 시어머니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겪는 시할머니로부터의 시집살이의 또 다른 단면을 보면서 시집살이는 인내의 연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시할머니가 억척스러워가지고 옛날 할머니여서 우리 어머니 엄청 시집살이 많이 시키는 거 같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힘들었기에 너까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 시집살이 하는거 나도 봤어. 우리 시할머니가 얼마나 사나우신지 중국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랑 싸우셔. 우리 어머니가 도저히 참.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자식도 다 크고 손주도 있고 손주 며느리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증손주도 있는데 가끔 막 할머니가 막 너무 억지 부리는 거야. ‘이년이 ,저년이’ 하고 욕하고. 진짜 나도 못 참겠는 그 정도로. 나도 보고 있는데 상관 안해. 그리 막 화내면 우리 어머니가 나가시면 못 들어오게 해. 문 걸어놓고.

...

할머니가 75센가 그때. 그러다가 89센가 돌아가셨지. 그렇게 펴붓고 1년에 한번씩 꼭 중국에 오셨다가 며느리 한 두번씩 쫓아내고 어떤 때는 오셔서 몇 개월 3, 4개월씩 막 계시고 몇 번씩 싸우고 우리 어머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 욕 한번 안해. 아직도 흉도 안 보고.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말씀 하신게 ‘화풀이 못하니까 내가 제일 편하고 나를 의지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내가 봐도 고생이 많았어. (연구참여자 B, 20170106)

어린 나이에 바라본 시어머니는 존경할만한 분이였다. 그분의 지혜로움, 그분의 인내, 그분의 현명함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는 새로운 시집살

이 인생을 배우게 된다. 이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있어 시부모란 한국문화나 가치관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이며, 며느리들도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정순돌 외, 2010)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의 시집살이 모습도 시어머니의 순종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물론 식생활이랑. 거의 내가 맞춰줬지. 나도 배운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우리 어머니가 많이 봐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채워주시고. 그러다보니까 나도 보이는게 있어서 어머니처럼 해야 되겠다. 친정엄마보다는 삶에 대한 열심히 역척스럽지 않지. 사소한 정은 우리 어머니한테 더 있어. 내가 거의 십몇 년을 중국에서 같이 생활, 같이는 안 살았지만 주말마다 거기 있고 주말마다 시댁 가서 하루 이틀 자고. 중간에 가고 애기 키우니까 직장생활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다보면 같이 사는 거나 똑 같은거 같애. 할머니 오셨다면 거기 가서 하루 자고 오고. 내가 배우는 거는 진짜 시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내가 일방적으로 노력을 했지.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지만.(연구참여자 B, 20170111)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함은 치열한 노력으로 드러났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냉랭했던 시아버지의 마음을 녹여 인정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남편이 좋아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연구참여자 B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 아버님은 사업하시느라고 뭐 진짜 5년 6년 나를 별로 인정을 안했어. 결혼 시킨다는거는 인정해주는 거라는데 내가 와 닿는 건 없었어. 뭐 식사할 때도 ‘먹어’ 이런 말도 시원찮게 별루 잘 안 하시는 거 같애. (시아버지한테는 언제쯤 인정받았어?) 둘째 아들 둘째 낳고. 허허허. 첫째는 엄청 와 닿았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봐. 니가 둘째 아들 낳으니까 확실히 틀리다구 대우도. 허허허허 나도 거기에 공감해. 우리 아버님도 호락호락 바로 인정해주고 바로 안 했어.(연구참여자 B, 20170106)

연구참여자 B는 시아버지의 인정은 둘째 아들을 낳고부터였다고 한다. 물론 아들을 낳기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시아버님과 남편 사이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연구참여자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핑계 없이 시어버님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준 것도 큰 몫을 하였다.

내가 큰애를 임신해서 몇 년동안 우리 신랑이 아버님이랑 잘 안 맞아서 한국 왔다 갔다 하고. 큰애가 4살때 내가 둘째를 임신을 했잖아. 고때 우리 아버님이 회사 나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럴께요 했어. 우리 신랑이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뭐 아버지 성격을 아니까. 애도 있고 임신도 했고 하는데 일이 쉽지 않다 말렸는데. 욕심이 있어서 좀 그런 욕심은 있어서 아버님도 별로 나도 별로 그런거니까. 하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웠어. 남편하고. 하지 말라고. 애는 유치원 보내고. 아침에 막 준비해서 애 유치원 보내고, 임신하고 같이 사업을 도왔지, 아버님.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 그 임신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구매를 시켰어. 자재를 시키다가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배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화물차 따라 쫓아다니고 철물공장이라 거칠지. 거기는 철물공장이라 들어가는 제품이 큰 거 작은 거 무거운 거 많으니까 차 타고 가서 현금 구매도 하고, 내가 다 확인하고 했지. 월급만 줬어. 그때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월급 3000원 줬나. 5000원 줬나. 처음에는. 단계를 밟으라는 건지. 그래도 그 돈으로 내 용돈 한다고. 배 똥똥해서 이렇게 하고(손으로 만삭인 배 모양을 함) 애기 낳을 때까지 거의 10개월까지 일했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바보였나 봐. 그렇게 일했어.(연구참여자 B, 20170106)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참여자 B는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당시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어린 큰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시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 그의 이러한 노력들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세웠다.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어린 나이이지만 부모님한테 손 내밀지 않고 남편과 둘의 힘으로 중국에서 아파트도 분양받았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집을 샀어. 그전에 월세 있다가 1,300원짜리 3층에 있었어. 월세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시누도 집사고 (시)어머니도 집 사니까 집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댁에서 안 사줬어. 누가 보면 다 해준 줄 아는데 아니야. 다 우리 손으로 했어. 그냥 다 시작했어. 내가 거의 임신하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고 알아봤는데 신도시 개발하는데 거기 좀 비싸도 사자고 했어. 같이 가서 결정을 해서 집을 샀어. 돈이 없잖아. 처음에 선불 내야하는데 우리 신랑이 한국에 모여둔 돈이 있었어. 그때 환율이 좋아서 3000만원을 해가지고 5년 할부 한달 13000원씩 그걸 그래도 우리 어머니 길게 가지 말라. 짧게 해라. 이자도 많이 내고 딱 보태주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어. (연구참여자 B, 20170106)

연구참여자의 시댁에서는 집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다. 모두 연구참여자 B와 남편이 스스로 대출을 갚아가면서 구매했다. 아파트가 완공되자 집 인테리어는 또 고스란히 연구참여자 B의 몫이었다. 당시 남편은 중국 사정도 잘 모르고, 중국어도 서툴러서 결국 모든 일은 임신한 연구참여자 B의 몫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아이를 돌보며, 임신한 몸으로 시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가며 아파트 인테리어까지 직접 하기에 이른다.

중국은 인테리어 다 자재 일일이 구매해서 해야잖아. 못 하나도 다 사와야 해. 그것도 내가 했어. 임신해서. 시누이가 도와주긴 했지만 중국에 다 자재를 사서 사람 불러서 일일이 시켜야 하잖아. 신랑은 아무것도 안했어. 진짜 우리 신랑이. 어려서 엄마가 하는 거 봐가지고 이 사람이 못함 내가 해야 하나 하고 했지. 신랑이 말도 씩 잘 안 통한다는 핑계로 내가 사람 불러서 그거 하고, 배도 나왔는데 회사도 다니고 내가 화물차 끌고 다닌 생각해보면 참 그때는 무슨 용기로. 지금 생각하면 아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아침에 큰딸 보내놓고 그래 놓고 회사 가서 또 일 다니다가 시간이 애매하면 유치원에서 데려와 회사 기숙사에서 밥 먹이고 저녁에 집에 가서 씻기고 재우고. 누구 보면 내가 막 부모님이 엄청 주신 줄 아는데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신도시에 있는데 그 집값이 올라서 잘됐어. 물론 한 달에 중국 돈 만원씩(한화 180만원) 얼마씩 갚는다는 게 정말 쉽진 않

았지. 우리가 애도 키우고 생활도 해야 되잖아. (연구참여자 B, 20170106)

연구참여자 B의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은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보람도 있는 생활이었다. 시부모부터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피나는 노력을 통한 인정의 토대들이 있었기에 시댁에서는 그에게 편견이나 무시의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 B의 위기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중국 사업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점점 어려워지는 사업 때문에 결국 그들은 중국에서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게 된다. 이때 중국에서의 재산 정리도 연구참여자가 대부분 맡아서 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연구참여자는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힌다. 남편의 한국 생활 부적응에 따른 부단한 이직, 그리고 본인의 취업난이었다. 한국에서 아무런 학력과 경험이 없는 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격증도 여럿 따고 노력을 하였지만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공장일이나 식당 일등 일회성 아르바이트 뿐 이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는 화장품 부품공장에서 1년간 일을 했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획득하고 현재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노력을 통한 성취경험을 취득했었기에 한국에서 그의 인정투쟁의 모습도 역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지금 우리 셋째 시누 아들 데리고 시어머니네 집에 와 있어. 이혼소송중이거든. 둘 다 남편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정말 잘생겼어. 결혼할 때 육삼빌딩에서 결혼식 올렸어. 그래도 잘 못살고 결국 이혼하잖아. 이혼소송하는데 2년씩이나 걸려. 둘 다 똑똑하니까 한 치도 양보 안하고 있지. 서로 변호사 위임해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그러잖아. 다 필요 없다고. 돈 있고 똑똑하고 다 필요 없다고.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나나 우리 신랑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것도 없지만 평범하게 참고 그러면서 살잖아. (연구참여자 B, 20170307)

연구참여자는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반듯하게 가정을 잘 지켜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또한 이주로 닦친 새로운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다독여 가며 자기 개발도 부지런히 해가며 적응의 어려움을 적극적인 형태로 견디며 살아가는 노력의 모습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와 반면에 연구참여자 C의 시집살이는 시어머니의 무시와 인정의 부재로 상처투성이었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구박은 아직까지도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결혼전 불법체류자였던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알고 시어머니의 무시는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내 문제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거지. 뭐 감안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상황에서 뭐가 힘드냐고. 나는 불법인 상황에서 버텨.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안 맞아서 많이 싸웠지. 우리 시어머니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당연히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이런 생각을 하지. 싸우면 남의 바닥까지 들어 내는거야. 내가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으면 결혼했겠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거라고. 내가 그 문제들 아니었으면 시집 안 간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그 허물하나 때문에 시집 간거지. 그거 아니면 내가 시집 안 가지. 남편 뭐 있냐. 돈 조금 그것밖에 없어. 내가 원래 눈이 좀 높았어. 국제적으로 놀아서. 너무 잘난척하다가 내 발목 내가 잡은거지. 몰라 내 인생이니까 내 팔자라 생각하고 쫓아가야지... 위기는 우리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올 때마다 진짜 처음엔 힘들었어. 말을 막 너무 퍼붓는거야. 나랑 성격은 비슷해. 내뺄는 스타일인데 나는 나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뺄거든. 나이 들어서 조절이 안돼. 끝까지 다 퍼붓는거야. 자기 하고 싶은 만큼. 뭐든지 마음에 안 드는거야. 머느리가.(연구참여자 C, 20170112)

이러한 불인정은 신혼 초부터 많은 마찰을 빚었고 남편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연구참여자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어 내고 있었다. 또한, 친정의 물질적인 후원도 빼먹을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경제적 후원은 친정에서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전형적인 중국형 부모였고 딸 가정
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곤 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그랬어. 외국 여자라니까 말은 통하나? 그러드
래. 말 통한다고. 보통 시골쪽은 외국 친정에 퍼주잖아. 시어머니 입장
에서 싫어하잖아.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친정이 우리집보다 더
잘 산다고’ 신랑이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냐?’면서 얘기를 했어. 집 살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보태줬잖아. 우리 집 살 때 우리 엄마아빠가 보
태줬어. 반은 우리 엄마 아빠 집이야. 아직까진 경제위기는 없었던 거
같애. 어려우면 또 엄마 아빠 돈 몇 백 갔다 쓰면 또 조금씩 갖다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차(대형 화물트럭) 살 때 2012년엔가 그때 샀거든. 새
로 샀잖아.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원래 차를 팔 때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거야. 그차를 한 4000만원에 팔 수 있대. 나중에 2600밖에 못 받았
어. 1400이 비잖아. 대출을 적게 받았어. 고때 6개월 정도는 이게 되게
힘들더라구. 밑바닥을 치는거야. 잔액이 남아나질 않는거야. 그때 젤 힘
들었던거 같애. 모자라면 엄마아빠한테서 빌려 쓰고 갚았어. 6개월 뒤
니까 돌아오더라. 통장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 애들도 있고 한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나마 친정이 있으니까 손을 벌리지. 언니,
우리 집 사는 데 우리 어머니 십원 한 장 안 보태줬어. 그냥 내 허물
가지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지. (연구참여자 C, 20170117)

이처럼 연구참여자는 시댁의 왜곡된 인정에 대하여 도움 주는 친정이
라는 이미지로 대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
댁의 시누이들의 인정과 지지도 그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

내가 그때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안 살고 싶었거든. 이혼한다고 난리
쳤거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시누들 동원해서 나를 설득시켰
어. 아니었으면 정말 안 살았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 아들이 나 만나서 이만큼 살고 있는거지. (연구참여자
B, 20170307)

연구참여자 B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지만, 시누이들한테서는 인정을 받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시어머니가 가정불화의 장본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절 때 제사 때마다 구박을 견디면서 장을 직접 봐서 시골로 내려가서 명절음식상,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할 도리는 하는 며느리였다. 연구참여자 B는 철마다 김장철이면 시골로 내려가 도와드리고 집으로 와서 또 별도로 자기 집 김장을 담는다.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연구참여자 B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그는 지금도 음식을 하면 이집 저집 나누어 주는 인품 좋은 동네엄마였다. 그의 이런 인품이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시어머니를 챙기게 만들었다.

언니 정말 나 구박 받을 때는 다신 얼굴 안보고 싶지. 그래도 어떡하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정말 정 끊고 안 보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 나이 들어서 우리 신랑도 너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상관안해. 이럴 수도 있잖아. 남편한테는 그래도 부모잖아. 정은 없어도 할 도리는 해야지. (연구참여자 B, 20170307)

연구참여자 B의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자주 딸집에 오고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기도 하셨다. 나의 부모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남편의 부모님이라는 책임감으로 연구참여자에게 다가왔기에 그는 시어머니의 불인정 속에서도 며느리로서의 할 도리는 하면서 살고 있었다. 비록 시어머니의 인정은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효도하는 모습으로 좋은 며느리로 인정을 받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서였다.

연구참여자 D와 시댁과의 사이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어머니와 신혼 초에 있었던 안 좋았던 추억을 연구참여자 자신은 현재 시댁과의 냉랭한 관계의 귀책사유로 삼고 있었다.

처음에 좀 시어머니가 나한테 밍게 굴어가지고. 나 회사 다녔거든. 한 일주일 다녔는데 가구회사 월급이 일주일 일하고 월급을 줬는데 20만 원을 댔나. 일당이 13,000원인가 했어. 그랬는데 처음에 결혼해서 같

이 살았었거든. 우리 집 입주하기 전에 형님은 밑에 살았어. 우리 입주가 안 돼 가지고 아파트 완공이 안 돼 가지고 한 10개월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랑 같이. 여자 셋이 뭐하겠어. 시어머니, 형님, 나. 이렇게. 그 래가지고 드렸는데 웃겨가지고. 나보고 돈 안줘도 되니 돈 빨리 모아서 빚 갚으라고. 솔직히 20만 원 받아서 5만 원 드리면 많이 드린거 아니야?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5만 원 줬다고 적다고 받네 안 받네 하고 생쇼를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부터 원래 솔직히 잘해주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잘해 드릴텐데. 그래서 알미워서 더 안하게 돼... 솔직히 5만 원이 모자라서 안 살거도 아니고. 그때 생쇼했지. 그땐 안 싸우고 참았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더니. 우리 신랑이 그런거 못 봐주는거 알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하지 말래. 그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있으니 신랑이 알았지. 억울해서 열 받아서 울었지.(연구참여자 D, 20170113)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었으나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자 마음 문을 닫게 된다. 다행히 남편의 든든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는 밋지만 연구참여자는 참고 마음을 다잡게 된다. 며느리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만, 시어머니의 단힌 마음은 연구참여자의 적극적인 시도를 접게 만들었다. 연구참여자와 시댁과의 관계는 1년에 가족 행사시에만 만나는 소극적인 관계였다. 독립성이 강한 연구참여자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철부지가 아니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용돈을 스스로 벌었고, 결혼 후 다음 해부터 직접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살림도 똑 부러지게 했다. 산후조리도 별도로 시댁이나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감당을 했다고 한다.

신랑은 6남매 막내야. 저 집은 자식들을 이빠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빠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 각자 놀아. 가족이 의미 없어. 가족이라는 느낌이 없어. 연변 쪽은 가족이면 되게 틀리잖아. 한국은 사람사이가 냉정하고 이기적이야. 만나지도 잘 안고. 우리 시누가 그러잖아. 야 우리 살기도 바쁜데 니네는 니네끼리 알아서 잘 살으라고. 내 삶이 바빠 죽겠는데 너네까지 신경써야 돼? 무소식이 희소식이래. 우리도 집이

보면 시댁에서 김장도 첫해만 갔다 먹었어. 지금까지 내가 해먹잖아. 내가 가서 해드리지. 안 갖고 오지. 난 입맛이 안 맞아. 내꺼 따로 하지.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해먹으니까 나한테 아무 소리 못해. 올해 20 포기 했지. 여기서(식당) 다 손질해서 집에 갖고 가서 절여가지고, 신랑은 김치에 대해 내가 한게 더 맛있대. 시댁가면 안먹어. 짜서. 나 되게 빨리해. 일을.(연구참여자 D, 20170113)

시댁의 인정의 부재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D는 홀로서기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는 시댁에 의지하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담담하게 시댁의 불인정에 대처하고 있었다. 시댁의 불인정은 이밖에도 그와 신랑이 분양받은 신혼 초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설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외국에서 온 며느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아주버님은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자기명의로 가압류를 걸어놓았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빼 돌리까 염려해서 보증을 걸어놓은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D는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한다.

우리도 그래 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집 우리 아주버님 이름으로 가압류 걸어놨잖아. 집 어떻게 해먹을까봐. 내가 대출이라도 받을까봐. 나를 못 믿은거지. 신랑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어차피 지네 이름으로 돼 있는 거고 공동명의로 아니고. 내가 살고 있다 뿐이지 난 내 집 아니라고 난 나중에 돈 벌어서 내 집 살 거라고. (질문: 아직도 가압류 걸려있어?) 안 풀어 안 풀어. 몰라. 언제 푸는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풀어지겠지. 새로 집사면 안 걸겠지. 새로 집사면 아마 안 걸겠지. 팔 때는 그냥 풀어주면 상관없는 데 대출받거나 이런데 규제가 있지. 같이 가야 되지. 내가 몰래가서 대출받거나 할까봐. (연구참여자 D, 20170113)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가압류에 대해 불만은 많았지만 시댁의 처사에 대하여 ‘내 집’을 반드시 내 힘으로 장만하려는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끊이지 않고 해왔으며, 지금은 작

은 중국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빨리 돈을 벌어서 가압류가 없는 진정한 ‘내 집’ 마련이 시댁을 향한 인정투쟁의 모습인 것이다.

연구참여자 E도 시댁의 인정을 받으면서 결혼한 경우이다.

그는 혼인 전 한국에서 시댁의 허락을 받았고 중국에서 결혼식에 다른 국제결혼가정과 달리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중국까지 와서 중국결혼식에 참석해준 것을 연구참여자는 시댁에서 자신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감사해 하고 있었다.

보통 국제결혼을 하면 우리는 다른 집과는 다르게 다른 집은 신랑 혼자서만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는 더구나 모르겠어. 우리 아주버님이 사상이 깨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하고 아주버님이 같이 가셨거든. 가서 딱 보니까 어머님하고 아주버님이 아 아니구나 옛날 하도 들은 게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나라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내가 2년 연수가 끝나서 들어갔을 때는 신랑이 같이 들어가서 결혼 허락 받고 신랑은 오고 결혼식 때 어머님하고 아주버님이 같이 왔지. 가기 전 만해도 주변에서 ‘못사는 동네 못사는 나라’고 ‘돈을 주면 다 친정에 보낸다.’ ‘국적주면 도망간다.’ 그런식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거든. 정말 모르겠어.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외갓집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다들 공직자였고. 가서도 만나 보니까 우리 아주버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게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한시름 놓은 거겠지. (연구참여자 E, 20170110)

연구참여자 E는 중국에서 중산층 이상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당시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못사는 나라, 못사는 동네라는 편견에 불만이 많았다. 그는 자신감 있게 남편과 시댁 식구를 친정으로 초대하여 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시댁으로부터의 인정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빠른 임신 역시 시댁의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만기 돼서 집에 갈 때 임신한 것도 몰랐어. 가서 친척들 인사하고 3일 거기서 같이 놀고 신랑 비행기 딱 태워 보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누워서 자다가 울더라.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으려니까 육하고 올라와서 임심 테스트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가고 시댁에 전화하고 시댁에서 좋아하지 복덩이라고.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주버님하고 어머님도 왔던 거 같애. 결혼식 때. 애까지 복덩어리요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E, 20170110)

연구참여자가 느낀 또 다른 시댁의 인정은 빠른 임신이었다. 체류 기간 만기가 되어 먼저 중국에 오게 된 연구참여자는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늦은 나이에 장기간 아들을 둔 시댁의 불안을 잠재우고 외국 며느리에 대한 불안도 잠재우며 신뢰를 주게 된다. 이러한 인정의 토대가 있었고, 시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연구참여자는 새댁이었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 할 말은 하는 쪽 부러진 며느리로 거듭난다. 그는 한국 시댁문화에 적극 동화가 되었지만 불합리함에는 강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인정의 토대들이 있었기에 철없어 보이지만 합리적인 어린 며느리의 주장대로 시댁의 제삿날 문화가 바뀐다. 연구참여자는 시댁과 가까이 살고 있었고 시댁은 1년에도 10번도 넘는 제사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집이 가까이 살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열심히 일했다. 그의 이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은 시댁에서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만들었다.

힘들었지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지. 가서 깜짝 놀래서 내가 뒤집어 냈지. 제사 지내러 갔는데 막 음식 실컷 하고 있는데 밥 달래. 아니 왜 밥을 먹냐고?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그냥 시켜 먹자고 그래서 시켜먹었어. 하도 철없는 애가 시켜먹자 하니 아주버님이 ‘그럼 시켜 먹자’. 4월에 애 낳고 갓난 애기 업고 그 추석에 갔지. 열심히 음식하는데 배고프다고 밥 언제 먹냐고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밥은 언제 하나?” 이러는거야. 여자들만 일하지. 우리는 모이면 신랑 형제가 7남매 거든. 남자형제 4형제 정도만 모이지. 다 모이면 열 몇 명이 되거든. 남자 셋 빼고 다 여자야. 우리 신랑은 명절에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처

음에는 첫애만 있으니까 애 들쳐 업고 갔지. 그 이후로 우리 집은 명절 음식 한창 할 때는 시켜먹었어. 그래서 우리 집 명절 때는 밥 시켜먹는 문화를 만들었어. 간단하게 먹으면 되잖아. 장 봐오면 먹을 게 많잖아. 전 부치면 전 먹고 떡도 먹고 왜 굳이 상 차려서 먹어야 하냐고. 배고프다 그러면 짜장면 먹을 사람은 시켜먹고. (연구참여자 E, 20170110)

자신의 목소리가 시댁에 의해서 인정받는 경험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준다. 외로운 외국생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시댁의 인정과 지지는 연구참여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인 지지대로 작용을 한다. 연구참여자는 시댁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있었다.

우리는 아주버님이 그러거든. 때 시격에(점심시간) 어머니 밥도 안 준다고 그거를 형님한테 가서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우리가 더 불편하지. 그러면 일부러 가서 “우리 들으라고 그러시나보죠?” 그러면 “아! 제수씨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이뻐했던 거 같애. 너무 철 없었나? 허허. 그래서 내가 엇그저께 먼저 11월 18일 날이 우리 결혼 15주년이잖아, 그날 갑자기 아주버님 생각이 나더라구. 또 어머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장편의 문자를 보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이 왔어. 그냥 생각나서 고맙다고. 내가 인제 “15년 전 그날 멀리까지 오셔서 잘 살라고 하셨던 그 말 덕분에 잘 살고 있는거 같다고 감사하고.” 뭐 이러면서 썼어. 나는 정말 잘 살았으니까. 그동안. 아버님은 결혼 할 때부터 안 계셨어. 돌아가셨거든. 아버님이 없어서 아주버님이 장남 노릇을 했던거 같애. 나도 그만큼 믿었던 거 같고. (연구참여자 E, 20170114)

남편의 사랑, 시댁의 인정과 지지들이 연구참여자가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어려움에도 인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연구참여자는 가족의 위기로 몇 년 전에 남편이 당한 사고를 꼽는다.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대형 사고를 당하여 전신 껍스를 하고 1년간 병원에 누워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잘 견디어 냈다. 지금 남

편은 많이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인간의 삶의 과정에는 항상 위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위기는 개인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영향을 받으며 직업적 성공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 영향을 통해 극복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시 개인적 자원의 확대에 영향을 주게 된다(이효선, 2005). 결혼생활에는 다양한 변수 그리고 위기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 쌍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 특히 시댁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는 “난 정말 잘 살아왔으니까”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드러내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1.2 지역사회

가) ‘부정적인 시선들 속에서 위축되는 자아’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에서는 남편으로부터 확인된 자신감이 그들이 시댁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인정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들었지만 지역주민과의 만남에서는 위축된 정체성으로 조심성 있게 접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엄마들과의 소통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을 감지하면서 위축감을 느꼈다.

제가 한 번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학부모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아개발 그런데 갔는데 어떤 분은 나를 처음에는 몰랐나봐요. 중국에서 왔는지 나중에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 분이 제가 중국에서 왔단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네 사니까 길을 가다 만났는데 옛날에는 친절하게 하던분이 잘 쳐다보지도 않고 봐도 못 본척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반면에 그래도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어떻게 다음번에는 말할 지 말지? 그러게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또한, 못 받아들이는 분 사람도 있으니까 말해서 괜히 처음부터 이상한 눈길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아직한 제가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20170111)

연구참여자 B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학교 어머니들과의 만남에서 먼저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는 일에 조심성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힘으로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편견을 바꾸기 힘들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이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한 모성 보호 본능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즉 사회에 만연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에 대하여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신의 출신 배경으로 인하여 자녀한테 나쁜 영향을 주게 될까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

작은애는 저학년 1학년부터 친구 엄마들 만나게 되고 모임을 가게 되면 저분이 혹시 저 다문화인지 알려나 보는 시선이 어떤지 조금 두려움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구 그 집 애들도 저의 자녀한테 어떤 시선을 불건지 그런게 좀 뭐 내가 괜찮음 괜찮겠지 하지만 애한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모를 만나도 제가 중국에서 왔어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구나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두려움 때문인거죠. (어떤 일을 겪은 것은 아닌데 왜 두려울까요?) 그러게요 여기 지금 보면 다문화라는 자체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게 보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살인사건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 봐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 봐도 그렇구. 생긴 거 틀리게 생겼다면 웬지 보는 시선이 여기 한국보다 못살아서 그렇다 그런게 좀...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두려움도 있지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 인식이 그런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B, 20170111)

위축된 자신감,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두려운 마음에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의 타자성을 숨기는 것으로 학부모와의 만남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모임에서 중국 관련된 말을 자제하고, 최대한 한국 엄마다운 모습으로 학부모들과 교제하고 있었다. 그의 이런 조심성은 자녀교육에서 중국어 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아이만 남들과 다르게 중국어를 하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아들에게는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라리 중국에 보내서 중국어를 배우게 하겠다고 한다. 중국의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중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은 이중언어를 중국에서 살면서 배웠기에 자녀도 원하면 중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하고 있었다.

나) ‘감추어진 타자성을 통한 만남’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주민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의식하여 선뜻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뿐 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처음에 저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더 두려워 하더라고요.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왜 얘기 안해요? 물어보면 얘기하고 물어 안보면 얘기 안 하고 속일 필요가 뭐 있겠어요. 속일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을 들어도 억양이라는 게 아무리 저거 해도 다 있으니까 알만큼 안다고. 그리고 내가 아는 언니들은 내가 그렇다고 안 친하거나 그러지 않거든. 더 나를 많이 챙기고 더 잘해줘요. 보면, 일하다 만난 언니도 있고 다른데서 만난 언니들도 있는데 한다리 건너서 친해진 언니들도 있는 데 더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래요. 내 저번에 그래 그 사람이 내보고 이북에서 왔냐고 했길래 내 언니한테 언니 내 이북

에서 온 거 같애? 언니 내 고향 알잖아? 안 대. 내 어디서 왔는지 안 대. 그래도 똑같이 대해주니까. 다 중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변에 거의 다 한국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애 매일같이 가는 문방구 언니도 안 물어보는데 그니까 나도 오픈 안 했는데 맨날 언니 안녕! 하고 외상 해놓고. 1반에도 언니도 저보다 나이 많은데 안 물어보네요. 안 물어보니까 얘기 안했을 뿐이고. (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 A는 굳이 드러내지 않는 타자성으로 인격적으로 먼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서로 상호 인정이나 신뢰 관계가 쌓이면 연구참여자 A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출신지를 밝힌다. 친해진 다음 주변의 반응은 “니가?” 그리고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사람 같다” 는 말로 연구참여자의 타자성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물어보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신분에 대한 강조를 통해 상처 입은 정체성에 대한 조심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전략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감추어진 타자성으로 주변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고, 신뢰가 쌓이면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인정을 획득한다. 그만큼 정체성의 문제는 조심스럽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또한 주체가 근거하고 있는 물적 지리적 장소와 상징적 정치적 위치성에 따라 변화하는 그들의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중국동포 출신에 대하여 나는 부끄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않으면 일부러 먼저 밝히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말한다. 그만큼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출신 배경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팽배한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들로 인해 위축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편견, 무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게는 자녀들의 학부모임을 의식하고 있었기에 자녀한테 돌아올 안 좋은 시선이나 편견으로 인한 낙인들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런부분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다.

학부모는 저의 애들 반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애들하고. 만나면 안 물어보데요. 그냥 말을 굳이 안하고 물어보면 얘기해야죠. 왔어요 하지며. 숨길 일은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아는 분은 알겠죠. 어투 같은 것에 느껴지니까. 제가 말투가 이상한가. 조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더라구요. 안 물어보면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자녀들의 학부모들과 평범한 학부모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일부러 밝히지는 않지만 알게 되어도 괜찮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드러내지 않는 타자성으로 평범한 한국형 학부모 관계유지를 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억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티가 나서 다른 사람이 알아차려서 물어보면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속에 숨긴 대인관계에서의 조심성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가끔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괜찮을 거라는 안도의 생각을 하기도 한다.

모임 가서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씩 잘 지내고 애들끼리. 1학년 때 뿐이라고는 하지만 엄마들도 잘 지내고 몇몇이 나이 비슷한 엄마들과 잘 지내고. 저는 2차 같이 가자 해도 거의 안가는 편이지요. 집에 어른이 있으니까. 다들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 엄마들한테 사진 좀 부탁해요 단체 특에 올려놓으면 또 해주고.

신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고. 물어보는 데 왜 얘기 안해요? 뭐 어때서. 요새 뭐 나만 왔나? 딴 데서도 많이 왔는데. 우리 학교에는 일본여자도 있어요. 애 셋, 다 아들이예요. 큰애는 커요. 5, 6학년 되고 2, 3학년 되고 꼬맹이도 있고. 봐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애가 컸어도 애한테 일본말이 편하잖아요. 일본말도 했다가 한국말도 했다가. 그 엄마도 다른 엄마들하고 잘 어울려요. 잘 나름대로 잘 지내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인정의 토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호의적일 수 있을것일 수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외국에 대한 인식 특히 가까운 이웃인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중국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의 토대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사료된다.

연구참여자 E도 처음에는 학부모들과의 만남에서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히지 않고 만났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두려움들이 살아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정말 지금은 살면서 그런 거 모르겠어. 딱히 뭐 내가 저기라고 속여야 하는 일도 없고, 속일 일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옛날에 두려웠던 적은 있었지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나는 괜찮은데 애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살아보니까 얘기해도 별거 아니더라. 주변에 말할 때만 그렇지 똑같애. 일부러 속이지 않아. 하지만 일부러 먼저 내색하지도 않고. 지금은 학교에 공문으로 다문화 활동이 오는데 애들한테 얘기하면 참여하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공문이 뜨면 선생님들이 확 날려버리는 데 우리 **이(큰딸) 당당하게 다해 찾아서 해. 우리 심지어 ** (큰딸)이가 작년 1학년 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애가 반장이었잖아 1학년때 그래서 교무실 무지 잘 다녔어. 갔는데 선생님이 공문을 보고 계시더라 거기에 다문화가 눈에 띈거야. 자기 뭔가 하고 봤대. 봤더니 뷰티 아카데미 생활과학고에서 방학특강이 있는데 다문화학생 한 명과 일반가정 학생 친구와 같이 신청하면 둘을 해주는거야. 그게 뭐가 있냐면 뷰티가 있고 제과제빵이 있는거야. ****고등학교에 뷰티아카데미가 있는거야. 그래서 가겠대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이거 한 장만 뽑아달라고. 선생님이 이거 다문화아이들이 하는거라고 했더니 ** (큰딸)이가 자기라고 나 다문화(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짚으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음). 한다고 뽑아달라고 해서 한 명 친구를 데리고, 그 언니도 알고 하니까 등록하고 같이 다녔어. (연구참여자 E, 20170114)

연구참여자 E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자녀들과 동네 학부모들에게 밝히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게 된다. 그는 자녀

들에게 어머니의 출신 배경을 밝히면서 우리는 다문화가족임을 알려주고 “너희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자녀들의 선택에 맡겼다. 그의 자녀들도 상황에 맞게 다문화 신분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이용균(2007)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의존적이고 가족 외부에서는 이주민, 특히 동일 출신국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망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참여자들은 이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교제 초기에는 감추어진 타자성을 통해 자녀 학부모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었고, 직장을 통하여서도 자신들의 한국인들과의 관계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이런 관계망들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 정보습득, 적응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다.

1.3 직장에서

가) 다름을 답음으로 변화시키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길게 또는 짧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다. 그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하여 대부분 처음부터 밝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자녀의 학부모와의 만남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만남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오랜 생활이 그들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만들었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사람이에요. 한국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괜찮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잘 어울려서 직장에서는 내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다 얘기해요. 그분들 생활 형편이 우리랑 비슷하니까 잘 어울려 주고 잘 해주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 20170109)

하지만 이러한 솔직함은 가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A는 동료가 아닌 식당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속상한 경험을 하였다.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어? 국산 아니네?” 진짜 기분 나쁘게 물건도 아니고, 진짜 그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낸 적 있거든요. 직접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진짜 손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퍼붓고 싶었어요. “내가 국산 아니면 아줌마는 국산이냐고? 국산이라서 토종이라서 좋겠냐고?” 말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올라왔지만, 손님이니까 참고 그런 말을 안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니까 같이 온 주변 사람들이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 A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님과의 만남에서 정체성의 훼손을 경험한다. 아직도 그에게 있어서 출신에 대한 비하 발언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손님의 말에 심히 불쾌함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그의 긍정적인 대처에 주변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돌아왔다. 그의 인정투쟁은 상호 인정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한 사회의 일상화된 무시와 구조화된 차별로 인해 촉발되는 개인의 인정투쟁이 타인에 대한 보복이나 침해가 아니라 훼손된 상호 인정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언어적 자원 활용

연구참여자 D는 직장생활할 때 대인관계에서는 중국 출신 배경을 바탕으로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어 통역이나 중국인 직원 관리 등

중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중국출신 정체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출신배경에 대해 자신감을 획득한다.

일은 잘했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임신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본드냄새는 들췄치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입덧 심해갖고. 그래서 사무실에 앉혀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재고조사만 하래. 그래서 앉아서 십자수 뜨고 놀았지 뭐. 사무실 일 같이 보면서 했어. 그러다가 경리가 관뒀가지고. 경리는 할 것도 없어. 출퇴근 체크만 하고 출근체크 출퇴근 잔업 표시하고 그런 거만 하고 거래명세서 한번 끊어주고 그러면 끝나지. 그때 한달에 한 120 받았어. 꽤 많이 받았어요. 8시 반 출근에 나는 좀 일찍 가면서 나는 잔업 다 달어 먹었어. 120됐어. 아줌마들보다 나는 10만원 더 탔거든요. 중국 애들 있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그래서 통역비 10만원 더 받았어. 그래서 120받았어. (직장상사들은 네가 하는거에 대해 마음에 들어 했어?) 응.(연구참여자 D, 20170113)

연구참여자 D의 이중언어 장점은 그로 하여금 직장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직원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존재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적게나마 경제적 보상도 받게 된다.

연구참여자 E도 직장에서 중국어 관련된 사무를 보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는 당시 불법체류 상황에서 사무직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려고 했으나 사장의 신임을 깊게 받고 있었던지라 사장님의 보호 밑에서 사무직에서 일을 계속하게 된다. 그는 빠른 일처리 능력,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언어능력들로 회사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이런 사연인데 불법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빚 갚아야 될 거 같다고. 식당 같은데 몰래몰래 숨어서 해야 될 거 같다고 했더니. (상무님) 기다려 봐 하고 사장한테 얘기하고 바로 150 올려줬어(월급). 120 정도는 차비로 그때 상무님 차로 다녔으니까. 나 일 잘했어. 빠릿빠릿해서.

바쁘면 일도 해주고 번역도 하고 다 했지. 근데 회사가 편하게 해줬어. 거기서 내가 인복이 있구나 생각했어. 일은 편했어.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 전화해. “상무님 저 안 나가는데요”. 집에서 사무 보는거야. 컴퓨터로 내가 번역하고 메일로 쏴주면 번역해서 보내주고. 애 낳고 다른 애를 소개해줬어. 편하잖아. 근데 개는 그쪽이 적성이 안 맞나 못하더라고 일을. 상무님이 마음에 안 든거야. 애가 너무 말귀를 못 알아 듣는데. 일 시키는 입장에서는 답답한거야. 우리는 눈썰미가 빨라야 돼. 결국, 고물상 수출 이런 업이야. 전선도 수출하고 알미늄도 수출하고, 회사 이름도 멋있어. (연구참여자 E, 20170112)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어 능력이 직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정체성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직장에서는 자신의 출신배경으로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중언어능력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무역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각하고, 자신들의 경력 부족의 단점을 메울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함을 알고, 당당히 자신의 출신배경을 밝히고 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지역주민사회에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숨기는 타자성 즉 다른 출신배경에 대한 위축된 모습과는 다르게 드러난다. 즉 직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통해 불합리함이나 편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에게 취업은 사회적응을 위한 영향 요인(양옥경 외, 2009; 최혜지, 2009)인 동시에 적응에 대한 결과적 산물(설동훈·윤홍식, 2008; 정기선, 2008)이며 또한 사회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이 그들이 자신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사회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었다.

2. 권리의 차원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을 권리의 차원을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영역에서 가정 내에서의 성 평등 권리와 사회적 권리 확장의 움직임으로 나누어서 연구하고자 한다. 권리에서 인정 형태는 타자의 특수성과 평등의 상호존중으로 나타난다(이현재, 2008: 47).

2.1 정치적 영역

가) 투표권 행사로 주장하는 한국인으로서의 권리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연구참여자들도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냐의 경계에서 완전한 차별 없는 한국인이 되길 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자신은 국적을 취득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한만큼 한국사회의 ‘구별 짓기’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한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호칭의 다양함에도 불만이 많다. 그는 국적을 취득했다면 완전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옛날에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재중동포를 센터에서 많이 쓰던데. 조선족이고 뿌리는 일단 저기니까 한국계잖아. 그러고 일본에 있는 사람은 제일교포, 교포라고 쓰고. 그러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재미교포잖아. 일본 사람도 제일교포. 근데 중국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불렀잖아. 지금은 명칭을 보면 재중동포라고 부르더라고. 다들 맘대로 부르고 있어. 그러고 사실 지금 보면 ‘다문화, 다문화’ 쓰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 지지도 않을까도 싶어. 꼭 그렇게 붙여서 부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문화가 돼 가는 거는 사실이니까. 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모르겠어. 국적까지 이미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금을 긋는 것처럼. 등분을 떼

면은 ‘국적취득에 의한’ 꼬리표가 달려져 있어. 계속 있어. 나는 등본을 떠면 거기에 ‘국적취득에 의한’ 이런 글씨가 나와. 그리고 우리는 한자가 기록이 안 되잖아. 지금은 한자가 등록이 안되고 한글로 ***로 되어 있고 뒤에 ‘국적취득에 의한’ 이라고 써있어. (연구참여자 D, 20170114)

사회적 권리는 개인이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권리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투표권 행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5명 중에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1명은 국적 취득이 불허되어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1명은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었으며,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중국국적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국내에서 권리의 부재에 대한 인정투쟁은 없었다.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적을 취득한 세 명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거는 국적 받고 바로 했어요.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했어요. 좋은 사람 뽑아서 우리 사는 세상 좀 더 좋아지면 좋잖아요. 남편이랑 따로 가죠. 출퇴근 시간이 다르니까. 저는 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언니들이랑 맨날 뉴스 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중국에서는 관심도 없었는데. 한국은 뉴스에서 맨날 틀어주니까 보게 되죠. 그래서 언니들이랑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A, 20170313)

음... 선거는 국적 나오고 나서 바로 참여했고,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대통령 뽑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웃음). (연구참여자 E, 20170313)

국적취득을 한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사회를 향한 인정투쟁의 형식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주민 출신이지만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이 그들의 책임의식을 더욱 일깨웠다고 볼 수 있다. 불안 속 긴장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만들었다. 사회 구성원은 국가가 시민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의 삶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형성되며, 개인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기존중, 자기 가치부여,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Honneth, 1992). 선거권에 대한 행사는 그들이 한국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국적은 없어도 한국사회 일원

개인적 사유 때문에 국적취득이 불허된 연구참여자 C는 자녀들 때문에 국적취득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거부로 인해 국적취득이 승인이 불허되어 그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아니 내가 나 좋자고 국적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커가고 그래서 더 좋게 살게 하고 싶어서 국적을 달라는 데 왜 안주냐고. 전에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때 그것 땀에 벌금도 냈고 그랬으면 됐지. 그리고 뭐 사람 죽이거나 그런 큰 잘못 한 것도 아닌데. 애 셋씩이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10년 넘게 잘 살았으면 대한민국에도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국적도 없이 불안하게 살아야 하냐고. (연구참여자 C, 20170117)

연구참여자 C는 다음에 또 국적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사회적 권리획득을 위한 투쟁은 아직은 단순한 재도전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Mead에 의하면 “공동체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개인의 자기정체성은 바로 그것이 타인을 인정하는 것일 때 인정된다.” (Mead, 1963:194) 즉 일반화된 타자의 에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자기이해는 상호인정의 과정에 의한 것임을 뜻한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화의 과정에

서 사회가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경험하게 된다. 각 개인은 이러한 권리를 통해 자신의 요구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합법적으로 존중되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존중’ (Selbstachtung)에 이르게 된다. 아직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C는 정체성의 과도기 경험을 하고 있었다.

중국 사람은 지금은 아닌 거 같애. 조선족도 조금 아닌 거 같애. 왜냐면 어설픈 거 같은데. 이게 어설픈 거 같애. 나는 다문화 같다고 생각은 안 돼. 나는 우리 정도는 다문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같애. 말도 잘하고 습관도 많이 비슷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 사실 말하면 동포긴 동포인데 결혼이주여성 왜 그런 거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우리 완전히 중국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한국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생각이나 말투나 습관이나 거의 한구사람 근접... 100%은 아니지만 80, 90%인거 같애. (연구참여자 C, 20170111)

연구참여자 C는 같지만 다른 듯한 한국인과 중국동포의 경계를 실감하면서 자녀 세대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길 희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험을 탄생시킨다. 그는 건강한 정체성에 기초한 주류사회를 향한 인정투쟁의 상호작용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국적을 받으면 가장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싶어 했다. 엄마가 외국국적이어서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아 아이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 가면 늘 아버지이름 밑에 아이들 세명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서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했다.

언니 나는 국적 가지면 쟈 먼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땔 거야.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없잖아. 애 아빠가 밑에 애들 셋만 주렁주렁 있어. 나는 쟈 먼저 주민등록증을 떼고 싶어.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해보고 싶고. 좋은 사람 뽑아야지. 나라 꼴이 돌아가는 게 이상하잖아. (연구참여자 C, 20170313)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에서의 정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 주류사회에 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국적취득을 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향유에 대한 요구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귀화신청을 못 했거나 아직 안 한 연구참여자도 영주권을 통해 자신들의 체류 안정을 꾀하고 언젠가 한국 사회 주류사회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아가 자신들의 자녀세대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완벽한 한국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느끼는 서러움을 자녀세대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의 소박한 마음가짐이었다. 사회구성원이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인정을 통해 개인을 하나의 특수한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은 자기긍정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Honneth, 1992: 127~128). 사회적 인정의 철회는 개인의 정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위협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신체적 불가침성을 무시하는 학대나 폭력 등의 경험, 개인의 사회적 불가침성의 권리를 훼손당하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 나아가 어떤 사회적 가치의 위계질서가 특정한 생활방식과 신념을 열등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동의를 부재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갈등요소로 작용하게 된다(이희영, 2010).

반면에 연구참여자 B는 자발적으로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중국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알기에 중국인으로서 장점을 살려서 한국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그가 중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업 경력들도 그가 완전한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 아닌 유동적인 신분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 경제적 영역

가) 경제적 지위 상승을 꿈꾸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생활 형편은 아니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연구참여자 A 외에는 다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고정된 수입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하게 구직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어 했지만, 자녀 양육 때문에 정규적인 직장생활은 힘들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D는 두 자녀가 다 중학생이어서 육아 부담에서 벗어났기에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아직 직업경력이 없기에 그는 연봉 2500만 원의 정규직에 만족하고 있었다.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번듯한 회사를 다닐 수 있음에 행운이라고 말하였다.

전에는 일해야겠다는 생각 없었어. 남편도 애들 클 때까지는 애들 봐야지 머 맨날 그 소리 했으니까. 신랑 버는 거로 먹구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진 안으니까. 다니겠단 생각은 전혀 안 했지. 근데 지금 다녀보니까 좋네. 내가 한 10년부터 다닐 걸 그랬나. 여긴 정년이 없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시래. 우리 연초에 저기 할 때도 사장이 우리는 정년을 나는 안 세우겠다. 그랬거든. 왜냐면 그만두겠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해도 된대. (연구참여자 D, 20170110)

결혼 이후 집에서 살림만 착실하게 해오던 연구참여자 D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니면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좋은 경험으로 작용한다.

연구참여자 A도 적은 임금으로 출퇴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들이 고학년으로 성장하자 최근에 가게를 차렸다. 기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잠깐씩

직장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C는 화장품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업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증진시키는 행동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그들은 한국 사회에 맞추어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나섰다. 또 학력도 신장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B와 C는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연구참여자 A도 아이가 좀 더 크면 자신도 검정고시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설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Blood 와 Wolfe(1960)의 자원이론에 의하면 부부관계에서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가정 내 지위와 권력이 증가한다. 자원 중에서도 직업 및 소득 등의 경제적 자원은 특히 중요한데,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제적 활동의 저변에는 가정에서 경제적 자원을 증가하여 권리확장에 대한 인정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성장배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혜경 외(2006)에 의하면 조선족 여성들은 중국에서 양성 평등한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일찍부터 취업해 사회생활을 한 경험을 통해,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는 여성이 먼저 상업에 뛰어든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친척 방문으로 시작된 한국 이주가 조선족들에게 돈벌이의 기회로 활용되면서 여성이 강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노동이주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강력한 취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녀양육으로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면서 부업을 하거나, 화장품 영업 등 아르바이트 성 직업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가 성장한 이후의 자기발전을 위하여 자녀양육 기간에도 틈틈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역량을 다져나가고 있기도 했다.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해당 이민 국가의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Borjas, 1994; Frank, 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개인적 측면에서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과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 필수적인 요소이다(이태정 외 2013).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지위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자기존중감도 높아지고 있었다.

나) 실감하는 차별의 경계들

연구참여자들은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부분, 특히 구직경험에서 특히 더 많이 드러나고 있었다.

차별이 있어. 국적을 가져도, 은행가서 대출받으려고 해도 내 친구가 은행가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등본에 귀화자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초본 더 떼어 오라고 그래. 우리는 아무래도 신용이 없으니까, 서류가 더 깐깐해.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어. **가 국적 있잖아. 어떤 회사 서류 넣었는데 마지막에 귀화자라서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안 받아주더라. 그래서 국적 가져도 똑같애. 우린 어차피 차별이 있어. 죽어도 좋은텐 못 들어가. (연구참여자 D, 20170313)

은행 대출 서류에서 귀화자임을 확인하면 대출 서류도 더 어려워지고 취직에도 등본상에 적혀있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한국인처럼 동등한 대우는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 국적취득까지 했지만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상처로 드러난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한국사람들은 우리를 한국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 주잖아. 무슨 일만 터지면 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가끔 조선족들 사고쳤을 때 싸잡아서 욕하고. (연구참여자 A, 20170109)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회사 면접 갔다가 조선족이라고 안 써줄 때. 그럴 때 정말 화나지. (연구참여자 D)

취업과정에서 경험하는 보이지는 않는 차별의 경계들을 연구참여자들은 느끼고 있었고, 자신들의 취업의 문이 비정규직인 생산, 노무직 쪽으로만 열려 있음을 속상해 하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식당이나 공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부담과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비전문직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학령기 자녀 양육 때문에 전문직 취업은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가정생활 외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모국에서의 능력을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직업 영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은 대학교 진학을 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평등한 직업을 누리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B의 꿈은 한국 사회의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현실의 벽과 부딪치면서 그들의 적극적인 구직 시도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 권리에서 차별을 느끼지만, 차별에 대한 연대를 통한 단합된 움직임이나 정당한 권리 주장을 통한 인정투쟁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역량강화의 형태로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즉 거주지의 장기화가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에서 서비스업이나 단순노무직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전문직종의 직업을 선호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족 앞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러한 욕구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기회를 선용하여 자기개발하고
학력신장을 하는 등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었다.

2.3 문화적 영역

가) 다른 듯 같은 문화

문화는 변함없이 고정된 유물이나 변하지 않는 행위 또는 무의미한 가치들과는 다르다. 문화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며 언제나 변화한다. 각기 다른 사회 내에서도 문화는 언제나 정치적·사회적 혹은 그 외의 주변 환경에 유동적으로 변화해왔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Nieto, 2016 김영순 외 옮김).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살아온 100여년의 세월동안 조상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조선족들의 의식성향은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소수 민족집단으로서의 응집력이 매우 강하다’ (이효선, 김영모, 1992; 신승철 외, 1994; 국성하, 199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중국에서 조선족 집거지역에서 살았고, 중국조선족 초·중등학교를 다녔다. 때문에 그들은 한국어에 능숙했고 한민족으로서의 많은 문화전통을 부모세대로부터 대물림하면서 살아왔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은 적응 초기에는 많은 이질감을 느끼면서 외국인이라고 느꼈지만,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짓기에는 한국사람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게 된다.

우리는 그나마 조선족이어서 언어가 통해서 괜찮지만,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데(다문화가족 센터). 언어를 일단 배워야 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사는게 먼저라서 말 못해도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그래도 언어는 코스로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게 하는 게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한거 같애. (연구참여자 B, 201701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에 다녀봤어요. 우리는 별로 지원 받은 거도 없고 제가 언어가 안 통해서 글을 배우러 갔으면 필요한 데 저는 거의 안 갔어요. 애들 프로그램 시간상도 그렇고 일을 하니까. 제가 말을 못 했으면 아마 많이 갔을 텐데. 글을 모르는 거 아니고 말을 하고 하니까 거의 집에서 그렇게만 살았어요. 혜택 못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A, 20170106)

중국동포들이 중국에서 쓰는 언어와 한국어는 억양이나 단어 사용에서 많이 다르지만 20대에 한국남편과 결혼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몇 개월간의 적응 기간이 지나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적 소통능력이 그들이 한국인 남성과 연애결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보니까 처음에 막 아무래도 말투가 서투니까 연변말을 해야 돼? 한국말을 해야 돼? 한국말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막 찾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세 번 물어 보는거야. 맞아 그게 켈 스트레스였어. 점점 기죽고 그래 그러면 알아듣게 말해주지 머 하면서 그때부터 신경을 써서 얘기하다보니까 딱 한 달이니까 잡히더라고. 한 달이니까 바로 잡히더라고. 처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연구참여자 D, 20170113)

초기 적응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어려움은 언어만이 아니었다. 중국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많은 유교적 전통이 사라진 시대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시댁 문화에서 가장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 제사였다. 연구참여자 D는 시집살이하면 제사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따로 사니까 시댁이랑 딱히 시집살이하고 살림 이런 건 터치 받는 거 없는 데 명절 때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럴 때 1년에 거의 명절까지 다 끼면 12번, 13번. 지금 명절 설 지나고 나면 5월달 **(큰딸) 이 생일 전까진 없어. 그 뒤로 제사가 줄줄이 있어. 뭐 시어머니가 홀 시어머니니까 아버님 모시고 우리 어머님이 모시는 게 많으니까. 외할 아버지 외할머니도 모시고 그러니까. 어머님 쪽에 제사도 두 번 세 번 있지. 거기에 시댁 제사 있지, 아버님 제사 있지, 거기에 바로 위에 형 제사도 있지. 많네. 그럴 때 그게 시집살이인거지. 안 해봤지 중국에서 제사 지낸다는 거 자체가 무서웠지. 죽은 사람 저긴데. 무서웠어. 난 처음에 진짜 제사지내러 오라 해서. 그 왜 티비에서 보면 뭘 생각했냐면 죽음. 굶하는 사람들 와서 무섭게 상상 한거지. 무슨 제사를 모시러 오래. 이려고. 갔더니 음식 해서 상 차리고 이런 건데 그게 만약에 주변에서 진짜 혼자 하는 언니들도 보면 나 아니면 없으니까 혼자 하는 사람은 맘 편히 혼자 알아서 하고 혼자 알아서 내 맘대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어머니 계시지, 아주버님 계시지, 형님 계시지, 누나까지 계시지, 쉽지가 않지. 다 갖춰야 되니까. (연구참여자 E, 20170114)

쉽지 않았던 시댁의 제사 문화, 연구참여자는 시댁 형님을 도와가면서 10여 년째 연간 열 번도 넘는 제사를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

한국문화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점차 정체성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즉 자아정체성을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 이라고 정의한 Ericson의 이론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정체성도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현실 속의 한국 문화 속에서 내적 충동과 욕구, 외부 자극, 그리고 도덕적 가치들을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통합함으로써 형성시켜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중국의 것도 아니고, 아직은 한국도 아닌, 하지만 한국 지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들 세대는 진정한 100% 한국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대물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 사람은 지금은 아닌 거 같애. 조선족도 조금 아닌 거 같애. 왜냐면 어설픈 거 같은데, 이게 어설픈 거 같애. 나는 다문화 같다고 생각은 안 돼. 나는 우리 정도는 다문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같애. 말도 잘하고 습관도 많이 비슷하고 조금 차이이지. 사실 말하면 동포긴 동포인데 결혼이주여성 왜 그런거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우리 완전히 중국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한국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생각이나 말투나 습관이나 거의 한국사람 근접 100은 아니지만 8, 90인거 같애. 우리가 한국사람 같은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애매하게 10~20%가 안 채워지는 거 같애. 근데 그게 단계인거 같애. 우리가 고결 10~20%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 자식들은 거의 100% 한국사람인거 같애. (연구 참여자 B, 20170111)

한국가정에서 한국문화 속에서 한국인과의 동질성으로 급속하게 한국문화 속에 흡수되고 있었기에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타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면서 내가 과연 다문화인가 라는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할아버지 시대부터 지켜왔던 전통적 민족문화 관습들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한국과 다른 문화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듯 같은 한국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이용하여 서서히 한국 지향적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포스트모던한 주체는 고정되거나 영구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며, 주체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정체성을 취하며 통일될 수 없는 모순된 정체성이다(이경숙, 2006).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아직은 주류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상처들, 무시의 경험들 그리고 남아있는 중국에 대한 향수들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경계의 위치에서 ‘2% 부족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머무르게 하기도 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수자의 시선이 이들을 우리 사회의 성원이나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없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같이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타자의 위치에서 서성이게 만들고 있다(오현선, 2007:256).

나)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인 동화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노력의 형태는 적극적인 동화형태로 드러났다. 그들은 다른 듯 같은 문화의 동질성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모든 문화, 언어 말투까지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위하여 한국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학력 인증을 받고자 검정고시를 치르며 한국 대학교에 진학한다.

일반적으로 정체성 정치에서 소수자의 전략과 관련하여 Dean(1996)은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동화단계, 적응단계, 책임단계로 구분한다. 동화단계는 근대적 주체를 기준으로 주변적 주체가 중심주체로 동화되는 단계이며, 이러한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소수자 운동의 전략이 구사된다. 이는 주류, 다수 집단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다수자에 맞추어 자신을 조련시켜 나간다. 적응단계는 주변적 주체가 중심적 주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동화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차이를 강조하는 전략을 펴는 단계이다. 마지막 책임단계에서 주체는 더 이상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하지 않고 구조와 관계의 산물임을 인식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자아는 타자들과 다중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이때의 행위 전략으로서 주체는 상호인정과 책임을 통해, 자율성과 연대를 강화시켜 나간다고 한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이지만 그들은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자신들이 펼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동화의 방법을 택한다. 적극적인 동화로 인해 그들은 투쟁이 아닌 복종 혹은 적응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일반화된 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즉 ‘한국사람 보다 더 한국사람’ 다운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이 선불리 한국인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드러내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그들은 사회에 만연한 결혼이주여성과 중국 조선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하기에 주류사회로의 적극적인 편입은 스스로 타자성을 완벽하게 지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

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 모습과 확연히 구분되는 적응양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한국형 양성평등 의식에 순응하는 모습 속에서도 알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남녀평등과 한국에서 남녀평등 경험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중국에서 남녀가 훨씬 더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현재 처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등하지만 참고 살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김장하는데 여기다 내가 20포기 사다 놓고 걸얏 다 띠고 여기서 시래기 다 만들어 놓고 그것도 혼자서 했지. 신랑은 도와주긴 뭘... 일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배추를 쌓아놔어. 집에 갖고 가서 절여야 되니까. 여기서 야채 다 다듬고 씻어놓고 쪽파 다 까서 다 씻어놓고. 여기서 식당일 해가면서 다 했단 말이야. 다했는데 어쩐지 알아요? 저녁에 와서 차에다 배추 좀 실어다 주라고 내 집에서 밤에 절여서, 오전에 김장하고 가게 나온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야 아씨 이거 언제 다 올려가냐고?” 이러는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해보라고. 내가 여기 지금 하루 종일 몇십 번을 들었다 봤다 했는데? 그 한 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고. 지금 몇 번만 들고 올라가면 되지.” 다 띠고 다 다듬고 다 다듬어 놓고 다 했거든. “뭐라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나이 먹으니까 싫은 말 바로 해. “다시 얘기해 다시 해.” 화냈지. 김장은 내가 다했지. 딸이 옆에서 배추 통 갖다 주고 이런 거만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오후 4시 넘었어. 다음날 원래 12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혼자 하니까 안 줄더라고 아팠지. 그러고 다시 가게 나와가지고 육수 끓여놔야 되니까. 육수 끓여놓고 장사 좀 하다가. 장사는 하루도 안 쉬어. (연구참여자 E, 20170118)

연구참여자 E는 하루도 쉴 틈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가족이 먹을 김장을 억척스럽게 혼자 감당한다. 9살 연상인 남편은 아직 아이처럼 철없기만 하다. 연구자가 인터뷰 간 날 연구참여자는 식당일을 하면서 남편 저녁식사 걱정에 아이들한테 동네 음식점에서 육개장을 포장하여 아

빠가 퇴근해 집에 오면 드리라고 전화를 하고 있었다. 철없는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는 끊임 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A는 가정에서 비록 남편과의 관계가 중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모습이지만 남편의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중국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많이 도와줘요. 가사 일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불만은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솔직히 내 남편을 떠나서 남자들이 보면 거의 진짜 안 해도 솔직히 큰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잖아요. 일요일에는 쉬어 줘야잖아요. 맞벌이 부부는 솔직히 다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사는 주부가 많잖아요. 주부가 많은데 가사 일을. 애 키우고 바쁜거 알지만. 남편은 일하니까. 또 배려를 해줘야 되고. 우리도 그래요. 결혼해서부터 치우지를 않아요. 막 쌓아놓는 스타일 있잖아요. 짜증나요. 몇 번 짜증나서 주말마다 내가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재활용하고 그런거 다 들고 나오면서 “어머니 아들 보세요. 이리 많이 쌓아놨어요. 내려가면서 보이니까. 쓰레기통 뒤두고 이리 쌓아놨어요. 내 못 살겠어요. 왜 빈 박스를 이리 쌓아놨는지.” (연구참여자 A, 20170109)

연구참여자 A는 중국에서도 어머니가 농사일, 그리고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이러한 불평등은 부부갈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푸념으로 넘기게 된다. 그는 점심시간에 잠깐 식당에서 용돈벌이로 일을 하지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에서는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 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일과 가정 양립의 모습들을 체득하면서 성장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가족을 위하여 자기희생적으로 순응하여 착한 부인의 모습으로 인정획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연구참여자 B의 모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도 가

정에서의 남녀역할이 현재 중국의 가정과는 많이 달라서 실망했지만, 순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었다.

차이가 많은 거 같애. 중국과 한국은. 가정에서 남녀평등. 근데 나는 순응을 해. 어떤 사람은 남자가 이런 거도 안하면 어떻하냐고 하는데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안 하기도 하지만, 내가 일할 때도 같이 하는 건 없었어. 우리 신랑이. 집안일 안 도와줬어. 쓰레기 한 번도 버려준 적도 없고. 집안일을 다해야 됐고. 불평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워낙 집 문화가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렇다고 그건 내가 너무 힘들면 투덜대고 하겠지만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한 두번 투정하는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나만 그래야지. 우리 애들은 지혜롭게 살겠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까지는 아직 고지식하게 사는 거 같애. 그런 사람이 많고. 그리고 부모 본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부터 안 그런데. 히히히. 우리 아들은 자기야 빠를 형이래. 형 같대. 철이 없는 형 같대. (연구참여자 B, 20170111)

연구참여자 B는 중국에서 성장 과정에서 체험한 부모의 가치관이나 양육태도를 의식, 무의식적으로 습득하여 한국가정에서의 가부장적 문화에 순응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 세대가 가진 가부장적 사고방식, 일방적 소통, 여성 차별 등의 가정환경과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주와 동시에 한국의 남성중심적인 젠더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그들의 적응에 대한 갈급함이 불합리함도 견뎌야 하는 시련으로 여기고 감내하고 살아내는 능력으로 변환한다.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신들의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을 이용한 동화형태의 적응이었다. 이는 다른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형태와 다른부분이기도 하다.

반면에 연구참여자 D는 가정주부로 있을 때는 홀로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했지만, 최근에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남편과 가사노동에서 협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그가 직장 다니기 전까지는 집에 세제가 어디에 있는지, 휴지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집안일에는 무관심이었다.

저번에 갔다 와서 그러는 거야. “너 보드타고 또 힘들다고 설거지 안 할 꺼지?”. “응, 어떻게 알았어? 흐흐흐” 신랑도 회사 다니면서는 저녁에 출근(야근)하기 전에 밥을 해놓고 가. 애들도 와서 밥만 있으면 뭐든 먹으니까. 이제 밥도 해. 내가 출근하면서 바뀌었어, 이제 슬슬 설거지도 주고, 분리수거도 신랑이 하고. 전에는 집에 있으면서 내가 다 했었지. 우리 신랑 집에 뭐가 어디있는지도 몰랐어. (연구참여자 E, 20170114)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한국의 사회적 인식 속에서 연구참여자 E는 그 부분도 한국 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불만이 없었다. 그는 중국현실과는 다르지만, 남편이 직장을 다닌다는 것 때문에 육아와 모든 가사 일을 감당하였었다. 그는 이런 부분까지 한국 사회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취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자 남편한테 당당하게 가사분담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시댁과의 인정획득을 위한 당당히 요구하기 모습과 흡사하다. 그는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자신의 권리주장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가고 협상하고 조정해가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이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권리는 이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가들이 대변하는 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단체나 일부 사회운동가들이 이들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들이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나 보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소수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장미경, 2005:178). 본 연구에서도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직은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인정투쟁의 형식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유연성으로 자신들의 삶을 각색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관계의 희생자로 억압의 대상으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써 그들의 이주민으로서의 치열하고도 고단한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Honneth(1992)는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인정요구가 단지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특수한 생활방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같은 민족이기에 한국에 와서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문화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기에 특수한 자기만의 문화적 방식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3. 연대의 차원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연대 차원의 인정투쟁 모습을 결혼이주여성과의 네트워크와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생활공동체 연대

가) 같은 출신, 다른 모습

국내 중국동포 70만 시대 연구참여자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주변의 다양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고향에서 온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 등등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모국인’으로 형성된 관계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 또한 친구, 가족 등을 통한 연쇄이주의 형태를 통해 초국적 가족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소그룹위주 대그룹 통합의 형태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중국출신 중국동포지만 흑룡강지역, 그리고 연변지역은 따로 또 함께 형식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지역감정으로 같은 고향 친구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언니 우리는 연변 출신하고 잘 안놀아. 애들이 너무 약어. 정이 없어.
언니는 안 그런데(연구자). (연구참여자 C, 20170112)

반면에 중국 연변출신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도 타 지역 출신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특정한 지역감정의 골들이 한국에 이주를 하였을 시에도 잔재로 남아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기 애들은 너무 성격이 드세. 캄패 같애. 욕도 너무 잘하고. (연구 참여자 D, 20170114)

같은 출신국, 동일한 민족이지만 서로에 대한 불만과 편견들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다. 만남을 통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중국음식도 함께 만들어 나누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이국타향에서 상실감을 보상받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고향출신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편견의 문제에 대해 솔직히 토론하고 자신들의 한국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솔직한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연대를 형성하고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다.

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을 통하여 타국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이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다.

언니 그 언니 정말 대단해(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그 언니 정말 마인드 짱이야. 말은 잘 못하지만 어디서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쉬지 않아. 그 언니는. 그리고 나눠주고. 그 언니 말 하는거 보면 늘 그렇게 긍정적이야. 그리고 할 말은 해. 그 언니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 중에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하는 여자가 있었어. 맨날 그 언니 무시하고. 그래서 그 언니 주임을 찾아가서 얘기했대. 주임도 그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그 아줌마 짜른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대. (연구참여자 E, 20170118)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한국인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무시와 편견에 대해 솔직히 토론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통해 대처방안을 배워가고 있었다. 즉 상호의존적 존재로서 상호인정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런 모임을 통해 상처 입은 정체성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할 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또한, 소외되는 느낌도 있다고 한다. 즉 우리가 다문화인가라는 물음에 당면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부분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한국 문화적응 프로그램이었기에 언어적 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타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우월한 위치에 서 있게 된다. 이 또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기 힘든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같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차별과 경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계에서 있는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의식한다. 그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연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호인정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지 연대를 통한 사회적 권리 주장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인정투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Honneth의 연대작용을 통한 이주민 사회의 평등한 권리 주장을 위한 사회적 투쟁으로까지 승화되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의 한계점으로 드러난다. 즉 그들은 한국사회 깊숙이 진입해 있었고, 남편, 자녀 모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족보호 본능에서 불평등에 대한 순응의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와 C는 결혼이주여성 봉사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받은 만큼 우리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한 단체 사람들에게 상호인정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주기도 한다.

경찰서 봉사를 나가게 됐어. 어찌 보면 형식적이야. 거기 보니까 이 우리과가 외사계야.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런 쪽이야. 근데 그 외사계 그때 우리 운전면허 딸 때 여기서 지원해 준거더라구. 나 처음에 몰랐어. 그거 계장이야. 외사과 계장이야. 그분이랑. 친해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원봉사 이거를 아 맞다. 글로 올렸을거야. 나도 신청했지. 나도 받은 만큼 나름 조금씩 돌려줘야 될거 아니야. 지금 한 2년 됐어. 외국인 치안 봉사단이라고 해서 옷도 있어. 조끼 있어. 외국인 치안봉사단. 동네 한바퀴 돌고 장애인 센터도 한번 갔다 오고 연말에 밥 먹었어. 나 (술 마시고)취해 가지고. 성격이 좋잖아. 어디 가던지 며. 허허허 진짜 가끔이야. 괜찮아. 보통 저녁때 해. 동네 한바퀴 30분 돌고 사진 찍고 형식이야 어차피 위에 서류 올려야 되니까 봉사가고 나름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런 거지.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도 나름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거지.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만큼 노력해서 보답해 줄려고 계장님이 문자 오거든 “시간되시냐고?” “오 무조건 콜”이라고. “어우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그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막 “마인드 짱”이래. 나름 재밌어. 계장님이 되게 동네 아저씨 같애. (연구 참여자 C, 20170112)

연구참여자는 봉사활동이 아직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그런 부분이 많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사람들에게 이주민들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일단은 봉사활동을 조직한 기관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또한, 자신들의 단체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전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었다. 즉 주류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인 봉사활동의 형태로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그들이 서로에 대한 연대감과 집단적 정체성을 경험하고 세계차원의 집단적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느끼는 국제사회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확인함으로써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의 씨앗을 엿볼 수도 있었다.

3.2 초국적 네트워크

가) 글로벌 정체성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경로는 다양하였다. 그들은 연애 결혼이었지만 그들을 통한 가족 친구들의 연쇄 이주로 인해 초국적 가족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SNS를 통하여 자국의 친구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학교 동문 중 10명 정도는 유학, 노무, 결혼 등 다양한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도 조선족 집거지보다는 연해지역 경제발달 도시에도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었다. 중국조선족 사회의 붕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그들은 이런 연결망을 통하여 ‘세계로 나가는 조선족’이라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정체성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다.

제 학교 동창들 보면 뭐 일본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만 열몇 명이 있어요.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목사하는 친구도 있고, 일본에서 박사하는 친구도 있고, 중국에서도 대도시에서 잘 나가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참 우리 조선족들 안 가는 곳이 없는거 같애. 다 잘 나가. 중국에서도 외국에서도, 한국에 사는 우리가 켈 못 사는거 같애요. 중국 광주에서 미국이랑 옷 장사하는 애가 있어요. 개는 한 달에 100만원씩 번대. 중국 돈으루. (연구참여자 E, 20170118)

이러한 SNS라는 미디어를 통한 초국적 공간을 통한 연대는 그들에게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시켜주고 이주에 대한 당위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 가거나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의해 하향평가 된 중국동포출신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며 더 열심

히 살아서 당당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수많은 중국동포들은 중국 전역에 포진하여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즉 ‘중국 조선족’의 해체는 중국에서 다른 소수민족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교육열과 교육효과의 결과물인 동시에 이는 또 ‘세계로 나가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이 더 서럽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한다.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이주 이민의 현상들이 한국사회에 의해서 폄하 된 자신들의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같은 민족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한국에서 중국동포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있게 한다. 즉 중국동포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낙인의 불합리함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우리는 한국사람보다 장점이 있잖아요.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사정도 더 잘 알고. 지금 중국과 한국 경제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많은 중국동포들이 면세점이나 가이드 등을 하여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가이드. 이게 다 우리가 중간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건 한국 사회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쁘다 그러지 좀 말고. 우리가 있어서 경제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올라가고(연구참여자 B, 20170111)

주류사회가 유포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문화적 낙인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주류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소통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단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간은 그들이 연대를 통해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 인적자원의 활용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가깝게는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대 한국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한 몫을 하였다. 유연해진 출입국 심사로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홀로 외롭게 외국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그들은 국내에서 친인척, 친구 등 인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사회자본의 형태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그들의 친절은 이제는 머나먼 그리운 친절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절이 되었다. 또한, 중국에 있는 친척 친구들과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국’과 ‘정주국’ 사이를 가로지르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김영순 외, 2014). 실제로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였던 연구참여자 C는 중국의 친인척 관계를 활용하여 화장품을 중국으로 판매하여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그들이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중국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즉 국적취득으로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려고 시도하였지만, 한국사람과의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를 감지하면서 유연한 정체성으로 변화되어 주변 상황에 맞게 적합한 대처방식을 구사하고 있었다.

한국거주 중국동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을 고객으로 자신의 특성을 살린 중국음식점 가게를 차린 연구참여자 E도 그런 경우이다. 그는

처음에는 주변 엄마들에게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배경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가 중국음식점을 차리게 된 배경은 사촌이 시화에 차린 ‘마라탕(麻辣汤)⁸⁾’ 중국음식점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돈 벌고 싶은 욕심에 차린 것이다.

언니 중국에서 마라탕 먹었어? 그니까 난 연변에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먹으니깐. 우리 사촌이 하는데 개네가 송도에 집 분양받았어. 시화에다 차렸는데 하루 매출이 막 300만씩 된대. 시화니까 조선족이 엄청 많잖아. 남 하니까 따라 했지. 아는 사촌동생이 하는데 육수는 거기서 받아오고 ...

처음에 한 3일은 사람이 많으니까. 시화에 사니까 개네도 6,000원이야. 우리 집 샵샵 되게 잘 나가. 육수가 맛있다고 이인분이 2만원임 싸잖아. 2인분 시켜놓고 딱 이거든. (연구참여자 D, 20170113)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고객으로 한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흥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한 연구참여자도 자신도 직접 식당을 차려 운영하기로 결심한다. 비록 자신이 중국에 있을 때는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이지만 사촌친척의 성공 경험을 배워서 자신도 중국음식점을 차리었다. 그의 음식점의 주된 고객은 한국 거주 중국동포들이었다. 그가 음식점을 차린 골목에는 이 음식점 외에도 중국음식점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중국특색의 한자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힌 붉은색 간판을 걸고 있어 독특한 이국적 풍경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국동포들은 한국이라는 곳 구석구석에 자신의 특색을 살린 다문화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중국의 연변거리와 흡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다양성으로 한국이란 사회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다문화적 삶의 결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초국적 이주는 혈연, 지연 등으로 이민자들, 역 이민자들, 취업이민자

8) 마라탕: 중국어로 麻辣湯이라고 하며 중국동북지역 음식.

들, 그리고 모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 관계망을 통해 확산된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연구참여자들은 더 이상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하지 않고 구조와 관계의 산물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타자들과 다중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중적인 관계망 속에서 그들은 상호인정과 책임을 통해, 자율성과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은 중요한 사회 자본으로 여성이주자 들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신건강, 사회적응 및 이주국에서의 성공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aplan, Robbins & Martin, 1984). 연구를 통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길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소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즉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 살게 된다. 에릭슨은 각 개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발달과업과 투쟁 하고 인생의 환란에 직면하여 새롭고 더 나은 자아를 획득하려 하고 그런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은 끝이 없으며 전체 생활주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charles S. Carver, Michael F. Scheier, 2013). 인간 존재의 발달은 언제나 부드럽게 상승하는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아우성으로 이루어진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의 지점은 성장의 지점이 된다(김미영, 2015).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그리고 이주를 통한 생애적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기존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남편과의 인정관계 속에서 결혼하였지만 시댁, 그리고 지역사회, 직장 등 곳에서 다양한 인정 획득을 위하여 유연한 정체성을 활용하여 대상별 상황별 각기 다른 대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 맞는 대처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먼저 사랑의 차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연애 결혼을 하였기에 남편의 애정에 대한 자신감을 ‘나 아니면 장가도 못 갈 남편’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시댁에서 인정획득의 모습은 시부모님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10여 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현명한 시어머니의 인정을 먼저 받으면서 결혼을 했기에 시어머니를 롤모델로 삼아 닮아 가는 모습으로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헤쳐나가고 있었으며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아버님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으로 인정을 획득한다. 연구참여자 C는 아직도 시어머니로부터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가정의 위기가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될 정도로 인정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며느리로서의 본분은 다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홀로서기의 모습으로 시댁의 불신에 대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결혼 전부터 시댁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시댁에서의 모습은 할 말을 하고 당당히 불합리함을 바꾸어 나가는 혁신적인 며느리 모습으로 인정 획득을 얻고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에게 시댁은 첫 번째 인정 획득을 위한 인정투쟁의 장이며, 따라서 그들은 시댁의 인정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시댁과의 인정투쟁의 모습은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처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총체적으로 보여지는 공통된 모습은 자기희생적인 노력이었다. 이는 소수자 출신 며느리로서 가정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산물인 것이다. 즉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순응하기, 더 노력하기의 모습으로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학부모와 이웃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출신 배경이 자녀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드러나지 않는 타자성으로 인격적인 인정 획득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감출 수 있는 타자성으로 인하여 그들은 오히려 한국인과의 거리감을 좁혀 나가며 쉽게 한국사회 속에 융합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넓혀나감으로 적응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다. 반대로 직장에서는 자신들의 출신 배경을 밝히고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인정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유연한 정체성을 보이면서 지역, 그리고 직장에서 한국인들과의 관계망을 확장시켜나가고 있었다. 즉 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수사회와 부딪치면서 협상을 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인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즉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를 구성하는 역량체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원리적 부분에서 가정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에서는 한국형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일 가정 양립의 경우에도 집에서 가사일 일을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었다. 참정권에 있어서 연구참여자 중 국적 취득을 한 3명은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 투표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주민으로서의 긴장감들이 그들의 정치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킨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소득수준이 대부분 중산층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다문화가정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을 가짐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보탬을 주고 싶어 했고, 한국 사회에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조금은 더 우월한 위치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었다. 그들 중 2명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또 한 명은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 자녀가 어린 한명만 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녀가 좀 크면 자신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경험 속에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보이지 않게 그어지는 차별의 경계들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는 동등하고 보편적인 법적 대우, 타자와의 동등한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10년 넘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한국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계의 긴장감을 살고 있었고 한국인 지향적인 동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2% 부족한 한국인이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은 100% 한국인으로 거듭나길 희망하기도 했다. 그들이 한국인에 가까운 정체성들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자신들의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인정요구로까지 승화되기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면서, 기타 이주민에 비교했을 때 자신만의 특별함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들은 한국인과 비슷한 문화적 습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신들의 특수한 생활방식 보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들이 연대를 통한 인정획득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차별, 편견, 왜곡된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한 철저한 자기관리로 표출되고 있었다.

연대의 차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친인척 친구 등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고, 같은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 결혼이주여성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국 조선족들과 세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세계 속의 조선족’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나와 대상의 관계 맺음’에 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활동은 그것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즉 멸시와 차별의 경험 대신 인정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용균(2007)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의존적이고 가족 외부에서는 이주민, 특히 동일 출신국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망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에서 한국인과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낯선 땅에서 보이는 적응의 태도와 주변인들과의 소통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겪어내고 있는 삶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의미로 다가가 위로가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의 생애 경험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획득, 사회적으로는 이주민들의 건강한 인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호작용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의 작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어린 작은 날개 짓으로 다가가 작게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한국사회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게 만드는 사회적 변화의 ‘나비효과’⁹⁾를 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9)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네이버 지식백과

Ⅵ. 결 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 인정투쟁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정책 제정에서 출신 배경별 차별화된 전략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목표설정에서 단계별, 대상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과 인정이론에 대한 논의와 Honneth의 인정투쟁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담론들을 고찰하고, 사회적 지지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왜곡된 인정과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의 실제 경험은 어떠한가를 그들의 목소리로 이끌어 내고, 그들의 관점에서 주류사회를 향한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 경험을 분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주면서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행위와 태도의 속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경험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섭외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이 시작된 2017년 1월 당시 한국에서 거주한 지 5년 이상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심층면담에 의하여 수집하였다. 현장자료는 분석을 위하여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이외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들과 SNS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현장자료에 포함시켰다.

수집된 자료는 내러티브 탐구 자료분석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인, 전체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인 인정투쟁이라는 큰 영역 속에서 시간성과 상호작용의 맥락을 구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였으며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세계화 시대 국제적인 이주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오게 되고 남편과는 연애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에 팔려온 ‘매매혼’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평가의 잣대와 주변의 편견 속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생활 속에서 인정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체성의 회복을 경험한다.

이에 IV장에서는 그들의 생애 경험을 통한 인정투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인정투쟁의 모습과 경험의 의미를 V장에서 해석하였다. 그들은 중국동포 출신으로 세계화시대 흐름에 편승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를 하고 결혼이라는 통로로 한국 사회 깊숙이 진입을 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들 속에서, 그들은 인적 자원, 사회적 지지체계와 자신들만의 유연한 정체성을 무기삼아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환경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인정획득 노력을 통하여 주체성이 오히려 비상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들의 인정투쟁 경험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Honneth의 인정투쟁 영역을 참

고로 하여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투쟁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정투쟁 경험을 사랑의 차원에서 관계적 측면에서 가정, 지역주민, 직장 세 부분에서 그들의 행위 양상을 보았고, 권리의 차원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세 가지 부분에서 인정투쟁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차원에서는 생활공동체 연대와 세계질서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사랑의 차원인 친밀성 영역에서 가족관계,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에서 그들의 인정투쟁 모습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기반한 연애 결혼으로 인한 인정획득이 자신감의 기반이 된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대부분 30대 나이의 남편들과 결혼했으며, ‘나 아니면 남편은 장가도 못 갔어’ 라고 할 정도로 남편에 eog여 우위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댁의 인정획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시댁에서 본인의 위치가 더 든든해짐을 느낀다고 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시어머니를 롤모델로 삼아 닮아 가거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도 힘들어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는 모습, 또는 홀로서기로 시댁의 인정 부재에 대처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웃 또는 학부모와의 만남에서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 스스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자녀에게 오는 편견의 시선들을 의식하고 굳이 먼저 밝히지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반면에 직장에서는 자신의 이중언어 장점으로 인정을 획득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자신의 타자성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다름을 닮음으로 변화시키면서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권리의 차원 정치, 경제, 문화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치영역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민으로서 불안함과 긴장감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먼저, 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들은 국적 취득 후 바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의 한국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언젠가 국민처럼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국적취득이 불허되어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중국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한국 국민으로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국적취득에 의한 귀화’라는 꼬리표가 주민등록 상에 계속 따라다니고, 100% 한국인이 되고 싶지만 아직도 ‘같지만 다른 듯’ 함을 느낀다. 이처럼 그들은 한국인과 중국동포의 경계를 실감하면서 자녀 세대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길 희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어 건강한 정체성에 기초한 주류사회를 향한 인정투쟁의 상호작용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에서 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직장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육에서는 양성평등이 한국보다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들은 한국에서의 가부장적 문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육아와 가사를 모두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성장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자란 영향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여성 정체성을 내면화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 중 3명이 아직은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부업, 일시적인 단순 노무직 등을 하면서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경제적 지위 상승을 통하여 가정에서 권력구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며, 좀더 당당해지기 위한 인정투쟁의 모습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은 내국인 노동자-외국 국적 동포-외국인 노동자-비합법 체류자로 한국 사회의

위계화된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속해 있다(이병렬, 김희자, 2011:353).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력 신장을 위하여 검정고시를 보거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문화적 영역에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나라 출신과 다른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의 영향으로 통합보다는 동화를 그들에게 적절한 적응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조선족사회와 한국의 ‘다른 듯 같은 문화’의 경계에서 적극적 동화방식으로 인정획득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대의 차원에서 그들은 생활공동체 연대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세계질서 영역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초국적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SNS를 이용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중국 한족, 그리고 타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도 봉사활동,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에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 많은 친인척,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자국 특히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 시켜나가고 있었다. SNS를 통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중국조선족 출신 친구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학교 동문회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그들은 초국적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다중적인 관계망 속에서 상호인정을 통해 중국동포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있었다.

Ericson(1990: 22)은 우리가 문화와 사회적 정체성을 유동적인 개체로 고려한다면 교육방식의 기본 역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교육을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둔 자유를 위한 교육학이라고 정의한다면, 문화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문화 교육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야하는 것은 공감을 통해 그들의 진짜 삶의 과정에 다가가기 위함이다. 서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조절의 시간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데는 서로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는 관계 맺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필수 조건이다. 대상의 자기 서사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적절한 교육 그리고 상담 치료 등 방법이 가능하다.



2. 논의 및 제언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보여주는 인정투쟁 경험은 적극적인 삶의 주체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고, 시댁 그리고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 유연한 정체성으로 대처하면서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었다. Ahmed(2000)는 세계화 시대에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정체성은 타자와의 마주침에 의해 결정되며, 정체성의 차이는 몸의 차이가 아니라 몸이 위치하는 장소와 주체에게 부여된 상대적 역할의 차이로 이해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위치의 정치학은 주체가 근거하고 있는 물적, 지리적 장소와 상징적, 정치적 위치성(positionality)에 따라 변화하는 정체성에 주목해야 함을 제시한다(Ahmed, 2000). 그들의 적응 형태는 언어 문화적 동질성을 자원으로 활용한 적극적인 동화의 형태로 주류사회로 진입하고 싶은 욕구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행위 주체성과 다면적 삶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발견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며 점점 더 사랑에 기반을 둔 결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결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유일무이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이주 후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 대처 할수 있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이주하고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결혼 후 ‘매매혼’으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과도하게 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국내 미디어와 연구들의 폐단이었다. 실제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은 20.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이라면 돈에 의해 팔려온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결혼이

주여성들이 느끼는 왜곡된 인정의 모습이다. 이는 상처받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국제결혼을 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상징처럼 사회적으로 각인되어, 이들이 ‘타자’로서의 사회적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수정, 김은이,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인정질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ERD)는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 위원회는 교육, 문화, 정보 분야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할 것과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대인관계 등에서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차윤경, 2009).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언론적 보호 및 미디어에 의해 행해지는 이주민과 다른 나라의 재현에 대해 성찰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타민족과 타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문화 상대론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문화와 인종의 가치체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임성택, 주동범, 2000: 33-60).

둘째, 인정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과의 관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정을 경험한 상황에서만 배려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시대의 인정 부재는 가정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시대의 긍정적인 인정은 연구참여자들이 다양한 결혼생활 속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인내와 노력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대와 지역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물에서도 나타났듯, 시부모는 주로 외국인 며느리에게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이는 가족 관계로 보고되고 있으며 시부모는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부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박경동, 2008). 그리고 이주 여성들은 시부모로부터의 불신과 심각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으로 인해 시부모와 갈등을 느끼고 있다(홍달아기, 채옥희, 2006; 한건수, 2006).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시부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긍정적인 고부관계의 모습에서 상호존중, 상호 인정의 토대가 고부간에 서로간의 친밀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감추어진 타자성을 지닌채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 맺기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들의 출신 배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배타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다름을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신효진, 손신, 2016). 이러한 시선이 그들의 현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아직도 국내 만연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위기, 삶의 불안감 속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교육이 단순히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단계별, 유형별 정체성 교육, 심리치료 상담프로그램, 세계시민성 교육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성인이 되어 한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프레이리는 ‘페다고지’를 통해 피억압자가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신의 해방을 위한 성찰과 투쟁에 참여해야 할 필연성을 강조하였다(김병하, 2005). 여기에서 그들은 주류사회를 향해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으로 행동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한국사회에서 위치변화를 위한 주류사회를 향한

권리주장의 움직임의 장들이 만들어 져야 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사회 변화를 위하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내국민을 위한 광범위한 편견과 차별 방지 교육, 인간존엄과 권리 존중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차별이나 편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즉 아래로부터 다문화정책의 시행을 위한 이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성인 교육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와 성찰능력을 함양시킨다면 불합리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자기관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차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실시한지도 10년이 되었지만, 국민들의 차별, 배제는 여전히 사회통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학력을 신장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기회의 균등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바람직한 한국의 미래상이며, 새로운 인정질서의 형성인 것이다. 이러한 건강한 인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이주민 사회 다양한 인정투쟁의 모습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및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인정투쟁은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변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소리내기와 차별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인권 교육,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에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과 중국의 양성평등의 차이를 느끼면서도 한국의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중국 친정에서부터 대물림 되어온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 여성의 가족 가치관을 습득하여 가족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만족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가족의 성취 및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적응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Levinson, 1996). 하지만 이러한 강요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그들의 신체적 힘듦과 정신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유교 질서는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억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칫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의 행복의 질을 떨어뜨림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교육 그리고 시댁을 포함한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문화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들은 관계망이 초기에는 협소하였지만 자녀의 성장,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등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었고, 국내 국외 등 다양한 관계 망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에서는 자녀를 통한 학부모, 이웃과 한국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타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SNS를 통한 초국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사회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고, 이주사회의 생활양식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는다. 글로벌 시대 그들의 이러한 관계망은 그들이 세계적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연락망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타자가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고, 과업을 분담해 주며, 나아가 현금, 물질, 도구, 기술 및 심리적 지도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애착이다(Kaplan, 1974). 사회적 지지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 또는 자원’ 또는 ‘남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보

호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상호간의 의무 망 속에 존재하는 긍정적 지각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물질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지로서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만 그들이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이러한 정서적 후원을 통해 심리적 적응과 좌절 등의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한 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큰 틀 또는 중국결혼이주여성의 틀 속에서 연구되어온 여타의 연구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별, 민족별 다양한 삶의 모습지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논의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경험을 다루는 연구이며, 인간의 경험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이나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연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중국결혼이주여성들의 삶까지 모두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혼인 중계업소를 통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경험이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차후에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들이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미연, 장인자. (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엄마 되기” : 경험을 중심으로 본 정체성의 문화정치. *현대사회와 문화*, 28(단일호), 73-103.
- 강민수, 문용린. (2007).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고찰. *인간발달연구*, 14(1), 1-19.
- 강영미. (2015).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자기 복원생애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115-136.
- 강현석, 유동희, 이지원, 이대일. (2005). 내러티브 활용을 통한 교과교육론 구성 방향의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2(3), 215-241.
- 강혜정, 이규용.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2), 49-73.
- 공수연, 양성은. (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3-150.
- 구은정. (2010).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대구 YMCA 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성하. (1996). 중국조선족의 한국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경. (2006).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영호. (2014). 다문화 가족지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1), 83-108.
- 김나영, 이경옥. (2016).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사회 내 인정의

- 부재와 인정투쟁에 대한 고찰: 호네프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연구, 9(1), 119-152.
- 김동엽. (2010).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2), 31-72.
- 김미영. (2015).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인간 고찰. 사회복지경영연구, 2(2), 27-42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병하. (2005). 장애인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40(1), 1-22.
- 김석란. (2007). 재한일본인아내의 국적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35, 339-351.
- 김선희.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기 건강관리 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2), 325-343.
- 김성례. (2002). 특집: 구술사와 기억;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31-64.
- 김수정, 김은이. (2008).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43, 385-426.
- 김영란. (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31-67.
- 김영로. (2016). 서울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의 이주와 역량강화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 오영훈, 정지현, 김창아, 최영은, 정소민, 최승은, 조영철(2016). 처음만나는 다문화교육. 북코리아
- 김영순, 임지혜, 정경희, 박봉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10(3), 36-96.
- 김영옥. (2010). 안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
- 김원섭. (2008). 논단: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민족연구, 36

(단일호), 112-135.

- 김은실, 김정선. (2007). 지구/지역 시대 개인들의 행위 전략으로서 국제결혼: 새로운 아시아/지역으로서의 충남 J 마을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편),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선. (2010).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귀속 (belonging) 의 정치학. 재외한인 연구, 21, 427-431.
- 김현미, 김민정, 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한국여성학, 24(1), 121-155.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사회, 10-37.
-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단일호), 57-79.
- 김현미. (2014). ‘유보된 삶’: 몽골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이후의 삶. 이화젠더법학, 6(2), 25-43.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36-71.
- 마누엘, 카스텔, 정병순. (2008). 정체성 권력. 한울 아카데미.
- 문성훈. (2014). 인정의 시대. 서울: 사월의책.
- 민가영. (2009). 트랜스 (trans) 개념을 통한 저소득층 십대 이주 여성의 반복적 이주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5(4), 5-39.
- 박경용. (2013). 사할린 한인 김옥자의 삶과 디아스포라 생활사. 디아스포라연구, 7(1), 163-196.
- 박경용. (2013). 중국 조선족 한 여성 구술자의 삶과 가족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애환-생애 내러티브 (Life Narrative) 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7(2), 68-106.
- 박경용. (2014).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현황과 방법. 아태연구, 21(1), 71-108.
- 박미숙, 김영순, 홍유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269-302.
- 박수선, 류한수. (2009).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

- 민자 여성의 스트레스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6(2), 25-47.
- 박신규, 이성희. (2015).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양육환경과 발달상태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다문화 영유아교육지원방안을 위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159-187.
- 박아청. (1988). Erikson 아이덴티티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241-268.
- 박원순, 김낙홍. (2016).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1.
- 박재규. (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5(1), 5-33.
- 박현선.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중단매개효과분석: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7, 353-376.
- 박현영. (2016). 여성 건강지표,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보건복지포럼, 2-4.
- 방미화. (2013). 제한 조선족의 실천전략별 귀속의식과 정체성. 사회와역사, 98, 227-257.
- 배을규. (2006). 성인교육의 실천적 기초. 학지사.
- 변경원, 최승은. (2015) 이야기를 통해 타자와 교류하는 주체 -Taylor의 인정 이론을 넘어 Ricoeur의 이야기 정체성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 가능성. 교육문화연구, 21(4), 37-59.
- 서도식. (2008). 자기보존과 인정-의사소통사회의 사회적 투쟁모델에 대한 반성- 철학논총 51(1), 183-202.
- 서양임, 한재희. (2016). 일본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문화심리적 현상. 상담학연구, 17(5), 465-486.
- 서운석. (2009). 국제결혼이주자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분석: 중국지역 출신 여성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4(단일호), 175-200.
- 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설진배, 김소희, 송은희.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아태연구, 20(3), 229-260.
- 송명희. (2012). 다문화소설에 재현된 베트남 여성. 현대소설연구, (51), 41-70.
- 송선화, 안효자. (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2), 167-179.
- 송유진. (2008). 베트남 국제 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 및 의사결정과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81-595.
- 신난당. (2014). 몽골결혼이주여성과 세계시민주의의 요청. 구술사연구, 5(2), 81-116.
- 신승철, 이종섭, 이호영. (1994). 한국과 중국 연변 조선족의 가족 기능 연구. 최신의학, 37(1), 60-66.
- 신효진, 손신.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인식, 사회관계망, 사회문화적 적응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연구: 종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36, 139-188.
- 신효진. (2014). 사회관계망의 친밀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 지지 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4), 731-755.
- 심승우. (2011). 다문화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소수자의 주체성과 통치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알기르마, 김영순, 박미숙. (2015). 몽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진로경험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8(1), 101-115.
- 양문승. (2011). 다문화가정 범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4, 69-107.
- 양승민. (2007).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20, 1-32.
- 양옥경, 김연수. (2009). 서울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79-110.
- 양인숙, 김선혜.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 경제연구, 34(1), 237-266.
- 여성가족부. (2006). www.mogef.go.kr.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 119-140.
- 오영훈, 김성영. (2014).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생활 실태조사 연구. 한국종교학회, 67, 57-82.
- 오영훈, 박미숙, 장영신. (2014).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효문화 경험에 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40, 281-303.
- 오창우, 이현주. (2011). TV 가 재현하는 다문화 현실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재귀적 해독. 언론과학연구, 11(3), 147-180.
- 오현선. (2007). 한국사회 여성 이주민의 삶의 자리와 기독교교육적 응답. 기독교교육논총, 15, 247-281.
- 원재연. (2010). 사회학적 에스노그래피의 모색-마이클 부라보이의 사례확장방법을 중심으로. 담론 201, 13(1), 151-178.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명기. (2002). 연구논문: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73-100.
- 윤형숙. (2005). 지구화,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성적·인종적 위계 만들기.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한국여성학회 제 21 차 춘계학술대회 자료.
- 이경숙. (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러브인 아시아>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20(3), 239-276.
- 이광규. (1994). 재중한인: 인류학적 접근. 서울: 일조각.
- 이동후. (2006).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아시아.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아시아, 18(1), 9-35.
- 이문수. (2012).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23-45.

- 이민혜, 이현경, 김수, 장연수. (2013). 조선족 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관계망
과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4), 438-450.
- 이상노, 이현심. (2014).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105-136.
- 이성순. (2014).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에이저(A. Ager)와 스트랭(A.
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이순태.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이승민, 구차순. (2013). 결혼이주여성의 초등학교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7(2), 59-87.
- 이애련. (2014).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베트남여성
을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69-90.
- 이영민, 이용균, 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103-116.
- 이영애. (2012). 결혼이주 여성들의 결혼생활과 육아경험에서 오는 갈등과 소망.
유아교육학논집, 16(5), 435-457.
- 이용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
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용재. (2012). 결혼이주여성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 인간, 1(2),
235-268.
- 이유나. (2015).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되어가기’ 에 관한 질적
연구: 일본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 65-85.
- 이은정. (2014). 필리핀 여성의 한국 결혼 이주경험-경북 경산시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58(단일호), 48-73.
- 이은주. (2016). 베트남 미혼여성의 결혼이주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가정
학회, 53(2), 195-208.
- 이정희. (2012).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애사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5(단일

- 호), 233-253.
- 이철우, 이희정, 곽민호, 김환학, 노호창, 이현수, 차규근, 최계영, 최윤철, 최홍엽.
(2016). 이민법. 박영사.
- 이태정, 이용수, 신현구, 김명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
- 이해웅. (2005).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 107-143.
- 이현재. (2015). 도시민을 위한 인정윤리의 모색. 한국여성철학, 23, 5-31.
- 이혜경, 이진영, 설동훈. (2016). 이민정책론. 박영사.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지, 40(5), 258-298.
- 이혜경. (2005). 한국의 국가발전 정책과 이주정책의 상호보완 가능성: 이주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 보고서.
- 이홍자, 김춘미, 박명숙.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3), 268-277.
- 이효선. (2005). 질적연구: 해석과 이해. 서울: 학현사.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사회학, 44(1), 207-241.
- 이희영. (2014).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 아시아 여성이민자들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2, 110-148.
- 임성택, 주동범. (2000).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 미국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10(2), 33-60.
- 장인실, 서덕희, 이지현. (2012). 재혼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중국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8(2), 143-175.
- 전형권. (2014). 다문화주의의 정치사상적 쟁점 : 정의와 인정, 그리고 소통으로서의 다문화 정치. 21세기정치 학회보, 24(1), 256-257.

- 정귀자.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8-103.
- 정미라. (2005). 문화다원주의와 인정윤리학. 범한철학, 36, 211-233.
- 정상우, 박지인. (2015).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체계 분석과 입법 대안 모색. 교육법학연구, 27(2), 25-55.
- 정상우, 최보선. (2014).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7(3), 101-124.
- 정순돌, 박현주, 오보람. (2010).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의 질과 의사 소통의 일치정도에 근거한 관계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2(1), 133-153.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학생활연구논총, 1, 228-262.
- 정지연. (2016).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교육과 다중지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지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조현미. (2009).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 정체성. 일본어문학, 45, 521-544.
- 조현미. (2013). 두 한인 디아스포라 여성의 삶과 정체성. 일본어문학, 60, 459-484.
- 차윤경. (2009). 세계화 시대,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의미. 제2차 평생교육정책포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평생교육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초연설, 19.
- 채옥희, 한은진, 송복희. (2012).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결혼동기와 한국 가정생활 경험 및 지원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11-129.
- 최금해. (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금혜.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 연구, 143-188.
- 최대회.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됨’의 의미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2), 233-256.
- 최미경. (2016). 베트남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성공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단일호), 103-138.
- 최은영, 이은희, 최정숙, 최선하. (201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여성의 산후 우울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1), 39-51.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출입국 통계 월보. www.immigration.go.kr, 2017년 1월 통계월보.
- 팜티훤짱, 김영순, 박봉수. (2014).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 교육문화연구, 20(4), 137-164.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허선미, 최인이. (2016).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탈구위치와 인정투쟁. 사회과학연구, 27(4), 181-211.
-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15(5), 729-741.
- 홍영숙. (2014). 영어 관념의 유동성과 교사정체성의 다중성: 한 초등영어교과전담교사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언어학연구, 19(2), 183-206.
- 홍지아. (2010). TV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122-143.
- 황정, 이주연.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0(2), 36-62..
- 황정미. (2011). 다문화 담론의 확산과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 변화: 의식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4, 7-41.

- 황해영, 김영순. (2016). 재한 중국동포 단체 리더의 활동경험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22(4), 291-319.
- 황해영, 김영순. (2017).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교육문화연구*, 23(4).
- Ahmed, S. (2000). *Strange encounters: Embodied others in post-coloniality*. Psychology Press.
- Barthes, R. (1966).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narrative*.
- Bhabha,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 Routledge. 나병철 역(2002).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 Blood, R. O. Jr.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Free Press.
- Borjas, G. J. (1985). Assimilation, Changes in Cohort Quality,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463-489.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tells, M. (1997).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2,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 Charles S., Carve · r · Michaer., F. Scheier. (2013). 김교헌 역. *성격심리학*.
- Chatman, S. (1990).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Clandinin, D. J.(Ed.)(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 외 역(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and Connelly, F. M. (1991). Narrative and story in practice and research. in D. Schon (Ed.), *The reflective turn* (PP. 258-281).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Clandinin, D. J.,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nnelly, F. M.,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onnelly, F. M., Clandinin, D. J., He, M. F. (1997). Teachers'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landscap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3(7), 665-674.
- Creswell.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 Dean, J. (1996).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Durham, M. G. (2004). Constructing the "new ethnicities" : Media, sexuality, and diaspora identity in the lives of South Asian immigrant girls.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1(2), 140-161.
- Ezzy, D. (2002). Data analysis during data collection.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60-79.
- Frank, K. (2013), Immigrant Employment Success in Canada: Examining the Rate of Obtaining a Job Match.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7(1):
- Fraser, N. Honet, A.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London. New York:
- Giddens, Anthony(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ddens, Anthony. (1982).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ddens, Anthony. (1991). 이윤희 이현희 (역).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 Hall, S. (1984). Culture, the Media and the 'Ideological Effect'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Eds. James Curran, Michael Gurevitch and Janet Woollacott. London: Edward Arnold. 315-48.
- Honneth, A. (1992). Das Andere der Gerechtigkeit Habermas und die ethische Herausforderung der Postmoderne.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42(2), 195-221.

- Honneth, A. (1994). Kampf um Anerkennung. 문성훈, 이현재(역)(2011). 인정투쟁. 고양: 사월의책.
- Johnson, D. W., Johnson, R. T. (2000). Cooperation leaning, values and culturally plural classrooms. In m. Leicester, C. Modgil, S. Modgil(Eds.) values, the classrooms, and cultural diversity(89-10). London: Cass ell PLC.
- Juul, J. (2010). A casual revolution: Reinventing video games and their players. MIT press.
- K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Behavioral publications, New York.
- Kaplan, H. B. Robbins, C. Martin, S.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93-115.
- Levitt, P. and Glick-Schiller, N.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진우 역 Dame. 2nd ed. (1977).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 Maxwell, J. (2004). Causal explanation, qualitative research, and scientific inquiry in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33(2), 3-11.
- Mead, G. Herbert. (1963).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ad. (1980). Die soziale Identittat, in Gesammelte Aufsatze.
- Nandintsetseg Banzragch. (2011). 한국 내 몽골결혼이주여성의 다원주의적 인정 투쟁. 몽골학, 1-36.
- Nieto, S. (2009). Language, Culture & Teaching Copyright. 김영순 외(역)(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북코리아.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eidman, L. J. (2006). Neuropsychological functioning in people with ADHD across the lifespa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4), 466-485.
-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 kymlicka. (2010), 장동진 외 (역)(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 동명사.
- Witherell, C., Noddings, N. (1991). Stories lives tell: Narrative and dialogue in education.

웹 사이트

- IOM이민정책연구원: www.iom-mrtc.org/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www.naver.com/>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출입국관리사무소: www.immigration.go.kr/
- 통계청, 2015, www.kostat.go.kr.

ABSTRACT

Exploring the Life Experiences of Korean-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 A Narrative Inquiry Research on Recognition Struggle

Hai-ying Huang

Ph. D. Dissertation

Co-directed by Prof. Eul-Kyoo Bae

Co-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February,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the recognition struggle in the marriage lives of Chinese-Korean immigrant women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and are residing in South Korea. By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se married immigrant women experienced the lack of recognition in marriage and how they tried to gain the recognition for marriage. That is,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recognition struggle in marriage from their perspective.

In Chapter 2, the main concepts that form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are discussed. First, the definition of the Chinese-Korean marriage immigrant women has been given, and the support policies for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have been examined. Also, the discourses on married migrant women and the Chinese compatriots have also been reviewed. Through this, the cultural background, in which the Chinese-Korean married

immigrant women are forced to make a struggle for recognition, has been presented. In this chapter,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struggle has been reviewed. That is, marriage immigrant women cannot be free from the cultural stigmatization of the mainstream society, and they have undertaken several efforts to gain recognition in their lives while experiencing the lack of recognition and a distorted recognition. Also, the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has been presented in the frameworks of love, and rights.

In Chapter 3, the research method of the narrative inquiry, research procedures, research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in this study have been introduced. The research procedure is composed of 'existence in research site,' 'moving to field data from the research site,' 'Organizing field data,' 'Moving from field data to research data' and 'Organizing research data,' to understand the marriag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All the research participants have been married to Korean men for more than ten years and are raising school-aged children. The methods used in the data collection were in-depth interviews, and field data for data analysis including transcripts of recorded interviews, field notes, research logs, and contents communicated with participants via SN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arried out by categorizing and classifying the analysis to analyze the field data in the background of the whole story. First, the transcription has been summarized and noted. Next, the analytical data has been classified by attaching a title to a specific topic. Then, the title has been categorized into the analysis frame to construct the detailed components. In the last step, the content was categorized under the subtitle to describe the analysis result. The participants' words or the researcher's anxieties were us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subtitle.

In Chapter 4, the married live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have been given.

In chapter 5, through the lif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their efforts for gaining recognition in various social networks have been highlighted. This way,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recognition struggle and what these

experiences mean to them has been examined.

In the aspect of love, or intimacy, the participants were coping with various kinds of recognition from their husbands and showed various responses by the various forms of in-laws' relationship. Some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experienced the lack of recognition in marriage life.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stigmatizing effects on their children in the local community, so they preferred to acquire personal recognition while hiding the otherness. In the workplace, they confidently showed the background of their habits. In the political realm and on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they indicated a comfortable perspective in living despite the differences in cultural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research participants who have permanent residence also wanted to be recognized as citizens and expressed their desire for equal rights with the Koreans. Given the Particularity of their linguistic, cultural homogeneity with the Koreans, they showed an active assimilation in cultural adaptation and wanted to live the same way as the Koreans. In the world order area, they build their social network in Korea through self-help groups 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lso, they were proud of being 'Chinese-Korean' by forming a transnational network using S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differences in marriage life of the Chinese-Korean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other married immigrant women. In addition, unlike many discourses about Korean-Chinese married migrant women, they showed positive efforts to becom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by utilizing flexible identity as an active acto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crucial in providing preliminary data for establishing differentiated policy and educational goals for the Chinese-Korean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ccount for a majority of the domestic married immigrant women. That is, compared to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that focuses onl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policy for improving their educational level, supporting the employment education and citizen education is more suitable for their current needs.

<부록 1> 연구안내 및 참여 동의서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1. 연구제목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

2. 연구기관/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100 서호관 304B)

3.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_황해영(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010-2563-9168/ haiying04@hanmail.net)

공동연구자_김영순(사회교육과 교수/010-2807-7471/ kimysoon@inha.ac.kr)

연구참여 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 에 관한 연구에 참여해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실지, 않으실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 설명문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위험(불편감)이나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그 중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다문화 시대 정책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 이주를 경험한 집단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이주경험을 하였고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국제결혼은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더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의 아내에서 자녀의 어머니로 그리고 한국가정의 며느리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문화 속에 속함으로써 새로운 다문화적 삶의 전형을 창출하게 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한 적응과 지속을 위한 전략은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부부 및 자녀 상담의 기초, 교육적 가치 및 다문화사회 이주민을 위한 사회 복지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문제 1: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인정투쟁 경험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인정투쟁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5.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를 시행하는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연구 종료 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방법은 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참여자의 한국 이주 전, 이주 후, 결혼 후 살아온 경험들에 대하여 삶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5명의 연구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1회에 약 1~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담의 횟수는 연구의 진행 상황에 따라 2-3회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면담내용을 녹취하고,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녹취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하여 귀하에게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다.

6.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실 경우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 할애를 통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면담을 진행하는 장소와 시간은 연구참여자 편의에 맞추어 가정, 또는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근처로 방문할 예정이며, 최대한 연구참여자가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면담시 식사 대접 또는 차를 대접하고 면담 후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7. 연구참여와 중지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연구 참여를 시작하여 진행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고, 연구 참여 동의서 또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도 연구자 측의 사정으로 연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본 연구를 위해서 귀하의 면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신원이 드러나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되고,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자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9. 연구 관련 문의

본 기관에 연락하실 경우에는 연구참여자 권익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만 문의하실 수 있

습니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32-860-9158 / e-mail : irbedu@inha.ac.kr

연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된 동의서 1부는 연구자가, 1부는 연구참여자께서 수령합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합니다.



●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